

## “공산주의·주사파와의 전쟁은 영적 전쟁”

국가대개조네트워크·기독교와공산주의포럼 정책세미나, 20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려

국가대개조네트워크(대표 김학성) 기독교와공산주의포럼(대표 류금주) 정책 세미나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한국교회와 공산주의’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이윤희 목사(한국군목회 이사장)의 개회기도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묵념, 김학성 대표(자유동맹을 위한 국가대개조네트워크)의 축사, 발제 및 토론 순서로 열렸다. 세미나 시작에 앞서 축사를 전한 김학성 대표는 “인류의 역사는 사탄과의 싸움의 역사다. 이 싸움은 창조 이후로 계속되어 왔다”며 “성경이 부동의 판매 1위 도서이지만, 2-3위는 칼 막스의 자본론과 다윈의 종의 기원이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상이 사회과학 영역에 투영된 것이며, 다윈의 진화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자연과학에 침투된 것”이라며 “인류 본주의 역사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상이

로, 학문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허물뿐이다. 허물 많은 존재가 본질에 우선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성경적 세계관은 본질이 존재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며 “오늘 세미나는 공산주의가 기독교와 교회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깊이 성찰하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교회에 대한 공산주의가 어떤 것인지 올바르게 조명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토론 시간 ‘주사파 운동권의 한국교회 침투’라는 주제로 발표한 이동호 원장(한국컴퓨터전략연구원)은 “한국교회의 좌향좌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상당수 교회와 목회자, 교인들이 좌파 정당을 지지하고 이들에게 성원을 보내고 있다. 이것이 현재 한국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어는 교회를 향한 좌파의 지속적인 사상적 침투 공작의 결과”라며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를 외면했거나 혹은 무



“인류 역사는 사탄과의 싸움의 역사” 20일 국가대개조네트워크·기독교와공산주의포럼 정책세미나가 ‘한국교회와 공산주의’란 주제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장지동 기자

시했다. 그 결과 좌파들의 교회 침투 공작이 성공한 것”이라고 했다.

또 “자본가들이 민중을 억압하는 체제에서 자본가와 착취자들은 종교 특히 기독교를 이용한다고 생각했다. 민중을 억

압하는 상부구조, 정치구조 이념 법체계를 가장 상층에 있어서 사람의 생각을 장악하는 도구가 종교라고 보았다”며 “종교는 마약과 같이 사람에게 현실의 착취를 잊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한국교회 상당수는 기독교 신앙을 잃어가고 있다. 자유주의신학으로 신앙을 잃어가고 있다”며 “그리고 주사파의 침투 공작으로 주사파들의 활동

을 지원하는 숙주 노릇을 하는 교회도 늘어 가고 있다. 때문에 한국교회는 교회에 침투한 주사파 세력을 몰아내는 교회정화 운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주사파들의 숙주 역할을 한 교회 지도자들의 회개 운동이 절실하다”고 말하고, “주사파들과의 전쟁은 정치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인간 생각의 끝이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공산의 세계, 즉 천국을 만들어보겠다는 것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 타락의 결과물”이라며 “따라서 공산주의자들, 주사파들과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고 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민경배 박사(연세대 명예교수, 교회사가)가 “일제하 한국교회와 공산주의”란 주제로 기초발제를 했으며, 토론 시간 이동호 원장 외에도 이상규 박사(백석대, 교회사가)가 “공산주의 운동의 시원과 쇠퇴”란 주제로 발제했다. 또 세미나 시작에 앞서 김학성 대표가 축사를 전했으며, 세미나 이후에는 자유토론과 인사 및 광고로 모든 일정은 마무리됐다. 장지동 기자

## 기장 총회에서 ‘성적지향’ 등 들어간 제7문서 채택 두고 격론

제108회 총회 둘째 날 회무 진행...

전도사 자격 ‘남녀’→‘사람’ 헌법개정안은 부결

서울에서 4일간 진행 중인 ‘유스 원크라이’ >> 5면

“각국 박해 받는 교회 위해 기도 요청” >> 7면

월드미션대 가진수 교수 “예배란 무엇인가” >> 22면



관련 토론을 벌이고 있는 기장 총대의 모습. ©기장 총회

적지향이 포함된 것.

또 제7문서는 ‘성평등’(Gender Equality) 용어도 차용했다. 이 용어는 남녀평등에서 한 발 나아가 트랜스젠더 등 제3의 성의 평등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그간 교계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왔다. 시민단체들은 ‘성평등’ 대신 ‘양성평등’ 용어 사용을 주장하기도 했다.

총회 둘째 날 제7문서 채택을 두고 총대들은 찬반으로 갈려 약 1시간 동안 격론이 일어났다. 찬성 측은 ‘세상의 흐름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나왔다. 성

에선 남녀만 있지 성적지향이란 단어는 없다고 반발했다.

결국 총대들은 해당 안건을 임원회로 이첩시켜 수정안이 만들어지면, 향후 열릴 실행위원회에서 통과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동성애·동성혼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창환 목사는 “해당 문서에 성적지향, 성평등 용어가 들어갈 경우, 이것을 발미로 성적지향 및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기장 헌법에 대한 개정 여론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오전 회무에서 교육위원회도 교단 헌법 정치 제7장 제39조 2항(전도사의 자격) 개정안을 현안했는데, 여기에 전도사 자격을 ‘남녀에서 사람’으로 바꾸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자칫 제3의 성을 인정할 소지가 있어, 성전환자 목회후보생도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총대들은 ‘문제가 있는 원안’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고 현행 조항대로 유지하기로 동의했다.

노형구 기자

## 여성 사역자에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 허락

제108회 총회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 보고

예장 합동 제108회 정기총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둘째 날 저녁 회무에서 여성 사역자에게 목사 후보생 고시 및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이 허락됐다. 강도사는 강단에서 설교를 전할 자격을 갖고 있으나, 교회를 다스리는 처리권 및 성례 집행권은 없다. 이 직분은 예장 합동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기 직전 단계에 해당한다.

이날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위원장 김학목, 위원회)가 보고한 두 가지 청원은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전환 청원 ▲여성 준목 제도 활성화를 위한 목사 후보생 고시 및 강도사고시 응시 자격 허락이다. 해당 위원회 보고는 지난 제107회 총회에서 결의한 ‘여성 준목 제도’ 관련 연구를 시행한 뒤 이번 제108회 총

회에 상정된 것이다.

위원회는 청원에서 “여성사역자지위향상 및 사역개발과 준목 제도 활성화는 성경과 헌법, 신학적 문제로 단기간에 처리하고 방안을 마련하기엔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며 “이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헌법신학적으로 충돌 없는 효율적 대책 마련과 로드맵을 정립하고 또한 여성 사역자들의 고충과 현의를 대변할 수 있도록 상설위원회로 전환·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을 청원한다”고 했다.

또 ‘여성 안수’는 불가하지만, ‘헌법개정 전까지 여성 사역자들의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여성 준목 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 안수가 필요치 않은 목사 후보생 고시와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까지 허락하여, 노회로 하여금 여성 사역자의 직무를 관리, 지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했다. 노형구 기자

**주변 시세대비 30% 낮은 분양가**  
최대 5억 저렴한 혁신적인 공급가

부담 없는 실투자금 | 중도금 전액 무이자 | 청약통장 무관

Harrington Tower

### 지금부터의 강남 부동산! 투자하지 말고 소유하라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가 보이는 지금, 강남 3구의 알짜부동산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높은 가격대의 넓은 공간은 선호하던 투자성향이 수준 높은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리는 생활가치 중심의 새로운 트렌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디오페라 서초 해링턴 타워**

따져보면 불수록 합리적인 여유가!  
**2ROOM 3BAY 특화평면**

2.6미터 층고 + 2층 3베이 혁신평면 설계  
소형 그 이상의 가치! 개방감과 공간감을 극대화한 쾌적한 아파트형 주거공간

차원이 다른 레지던스형 컨시어지 서비스 (080) 하우스키핑, 팻케어, 조식배달서비스 등 수준이 다른 고품격 레지던스 라이프

트리플 역세권 프리미엄에 개발비전까지  
정보사 이전 부지 개발, 양재R&CD특구 개발 등 강남·서초 특급호재 프리미엄

디오페라 서초 해링턴 타워 현장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18길40  
세제 특·미나자산신탁 (주) (주)안락에셋 (주)코우드 세일 효성중공업(주)

주택전시관 OPEN 02.525.0905

※상기 CG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실제 외다를 수 있습니다. ※상기 CG에 표현된 건축물은 외관디자인, 색채, 경관조형, 옥상시설물, 각종 시설물, 명칭 등은 현행규정 및 인허가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회 성윤리 예방 및 대응지침서’ 채택

## 제108회 총회 대사회문제대응위원회 보고... 차별금지법 등 대응 결의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제108회 정기총회가 ‘교회여 일어나라!’는 주제로 18일부터 22일까지 대전 새로남교회(담임 오정호 목사)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둘째 날 저녁 회부에서 ‘교회 성윤리 예방 및

대응지침서’가 채택됐다. 교단 사상 첫 채택이다.

이날 총회에서 대사회문제대응위원회(위원장 정중현 목사)가 지난 제107회 총회 수입 사항 중 하나인 성폭력 대응 관련 안건 ‘교회 성윤리 예방 및 대응지침서’를 마련해 보고했고, 이를 총대들이 받아들였다.

다만 오정호 총회장은 “용어 등 표현에 있어 가변성이 있도록 전문가들에게 도

움을 받자”고 제안했고 총대들이 동의했다.

교회 성윤리 예방 및 대응지침서는 “교회는 교회 내 성 윤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교회는 성 윤리 문제를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사전에 구성하거나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특별 위원회는 성 윤리 문제를 조사할 때 피해자가 여러 번 반복해 증언하거나 피해자

에 대한 악의적 소문이 퍼지는 등 2차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기술했다.

아울러 “노회는 성윤리로 신고된 목회자(목사, 전도사)에 대해 조사하고 처리해야 하며, 해당 목회자가 시무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이후 다른 교회에 청빙을 받게 될 때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과 처벌을 알아야 한다”라며 “노회는 교회 성윤리 예방 교육을 노회원들에게 의무적

로 실시하고, 성윤리 지침 준수 서약서를 격년마다 받아 보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 위원회는 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와 사학법 관련 건에 대해 전국교회에 홍보 및 서명지를 배포해 취합하도록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또 총회, 한국교총, 전문가(한국교회법학회, 진평연 등), 지역교회 등과 협력하면 대처하도록 했다. 이를 총대들이 수용했다.

울산노회 지광선 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대사회적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합동이 장자교단의 파워를 보여줘야 한다.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개최, 성명서 발표 등 대사회적 문제를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오정호 총회장은 “우리 합동 임원회가 한국교회를 지켜야 한다”며 “이 부분에 있어선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노형구 기자

# 기침, 총회장 이종성 목사·1부총회장 홍석훈 목사 선출

## 제113차 정기총회 이틀날 선거 등 회무 진행

18일 강원도 한화리조트 평창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제113차 정기총회를 개최한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가 이틀날 총회장 선거를 실시, 기호 1번 이종성 목사(상록수교회)를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1차 투표에 1,366명의 대의원이 참여해 이종성 목사가 688표, 기호 2번 이음 목사(대전은포교회)가 672표, 무효 6표로 투표자의 3분의 2가 되지 않아 결선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종성 목사 652표,

이음 목사 605표, 무효 7표로 이종성 목사가 제79대 총회장에 당선됐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홍석훈 목사(신탄진교회)에 대해 박수로 받으며 그를 1부총회장으로 선출했다.

총회장에 당선된 이종성 목사는 앞서 정경발표에서 목회자 연금 유지와 투명하고 공정한 학교 이사 파송을 위한 추천 이사제도, 일터 목회자를 세우고, 교단 사업 지원을 위한 공감센터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2일차 회무는 전회의록 낭독, 목회자 인준(147명), 전도사 인준(141명), 교회가입 정원(94개 교회)을 받고 기

인준된 이들은 (재)기독교한국침례회유지재단 이명원 이사장, 학교법인 한국침례신학원 이은미 이사장, 한국침례신학대 학교 피영민 총장, 교회진흥원 전유일 이사장, 국내선교회 김주만 이사장, 해외선교회 문기태 이사장, 침례신문사 김중이 이사장, 전국남선교연합회 강명철 회장, 전국여성선교연합회 김정숙 회장 등이다.

이어 총회 규약 개정안과 지방회 표준 규약 개정안, (재)기독교한국침례회 유지재단, 학교법인 한국침례신학원, 국내선교회, 해외선교회, 침례신문사, 군경선교회, 전국남선교연합회, 전국여성선교연합회, 밴티스트, (재)기독교한국침례회 은혜재단, 기획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규약위

원회, 윤리위원회, 위기관리위원회, 다음세대부흥위원회 개정안을 스마트보트를 활용해 심의, 개정했으며 침례교 사회봉사단 정관을 인준했다.

주요 인준과 개정안을 심의한 뒤, 총무 보고(총회 행정통계, 포상대상자, 침례교 세계연맹, 10회 아시아태평양 침례교대회, 112차 임원회 회의록)와 112차 사업과 재무 감사에 대한 보고와 인준, 교단 주요 기관 보고와 재단보고 등을 심의했다.

교단고교변경위원회와 홈페이지관리위원회, 영적성장대회 준비위원회, 민사소송 대응팀, 100만밴티스트전도운동 준비위원회, 침례교사회봉사단 추진위원회 보고를 그대로 받았으며 특별조사위원회 회의록 및 보고서는 부결했다.

2023년 침례교 협동선교 운동에 대해 홍보영상을 시청했고 100만밴티스트전도운동으로 27개 교회를 선정했다. 또 총회는 부흥상 20개 교회와 격려상 7개 교



기독교한국침례회 제113차 신임 총회장으로 당선된 이종성 목사 ©기독교한국침례회



1부총회장으로 선출된 홍석훈 목사 ©기독교한국침례회

회에 소정의 상품과 후원금을 전달했다. 아울러 지난 회기에 해외선교사로 파송한 15가정과 국내에 개척한 41개 교회에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 밖에 총회는 ‘근속 15년 복권의 건(경기지방회)’, ‘라이즈업밴티스트를 정례화한 교단 기도주간으로 지정의 건(경기지방회)’, ‘하늘영광교회 김동원 목사 제명의 건(윤리위원회 인천중앙지방)’, ‘총회장 및 총무 후보자 등록비 수정의 건(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폐지의 건(임원회)’, ‘교단 내외 단체들과 MOU 체결의 건(임원회)’, ‘교단 장애인주일 지정의 건(임원회)’, ‘포괄적 차별금지, 양성평등 등

로 포장된 동성애 및 동성혼 합법화 반대를 위한 결의문’, ‘저출산 극복 및 낙태자살 방지를 위한 생명운동 진흥을 위한 결의문’, ‘기후위기 극복과 창조세계 회복을 위한 결의문’, ‘종교의 자유와 자율성을 훼손하는 사립학교법 재개정 촉구를 위한 결의문(임원회)’, ‘이동원, 김장환, 윤석전 목사의 명예총회장 추대의 건(임원회)’, ‘지방회 탈퇴 조건 20개 미만 한시적 유예의 건(임원회)’, ‘총회 규약에 명시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반복되는 사고를 예방하고 회원교회 간의 화평을 지켜가자는 결의문(새둔산지방)’, ‘의상 안전을 처리했다. 김진영 기자

# 신임 총회장 김흥석 목사, 부총회장 정태진 목사 선출

## 예장 고신 제73회 총회 임원선거 실시... 장로부총회장은 박용호 장로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오는 22일까지의 일정으로 19일 개최한 예장 고신 제73회 정기총회가 첫날 임원선거를 실시했다.

목사 총대 260명과 장로 총대 258명 등 총 518명이 참석한 임원선거에서 김흥석 목사(경기중부노회 안양일신교회, 직전 부총회장)가 찬성 434표를 얻어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됐다.

신임 목사부총회장은 기호 2번 정태진 목사(경남진주노회 진주성광교회)가 306표를 얻어 206표를 얻은 기호 1번 김경현 목사를 제치고 당선됐다. 장로부총회장에는 기호 1번 박용호 장로(대구서부노회 대구서교회)가 267표를 얻어 114표를 얻은 기호 2번 김정환 장로와 178표를 얻은 기호 3번 김정수 장로를 제치고 당선



김흥석 목사(왼쪽)가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됐다. ©최승연 기자

됐다. 서기에는 신진수 목사(경남노회 한빛교회)가 467표를 얻어 당선됐다. 부서기에는 박성배 목사(부산동부노회 용호중앙교회)가 472표, 회록서기에는 김종민 목사(전남동부노회 여수수정로교회)가 473표를 얻어 각각 당선됐다.

부회록서기에는 구빈건 목사(경북동부노회 사랑이웃피는교회) 455표, 회계에는 진종신 장로(경남마산노회 마산동광교회) 425표, 부회계에는 기호 1번 김수

중 장로(경남노회 명곡교회)가 343표를 얻어 171표를 얻은 기호 2번 김장규 장로를 제치고 각각 당선됐다.

김흥석 신임 총회장은 취임사에서 “사랑과 격려 가운데 총회장으로 선출해주신 총대 목사, 장로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저를 응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신 안양일신교회 부목사님과 장로,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 김교원 새중앙총회 신임 총회장, 2024 총회 운영 로드맵 제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 새중앙총회 신임 총회장에 선출된 김교원 목사(참사람교회)가 총회의 도약과 발전을 위한 2024 총회 운영의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지난 14일 서울 방이동 총회 본부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총회’라는 주제로 예장 새중앙총회 제4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총회원 90% 이상이 출석한 가운데 총회장으로 선출된 김교원 목사는 이날 임마누엘 정신으로 한국교회에 건강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초대교회로의 회복과 발전을 다짐했다.

김교원 신임 총회장은 “제4회기를 맞는 지금 교단 부흥과 신학교 발전 등 교단

전체적으로 변화와 내실이 절실하게 중요하다”라며 “엔데믹 시대 새중앙총회가 비상할 최적의 기회와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움츠림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 한 알의 밀알이 된 기도와 헌신의 결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청사진을 펼쳐 보일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신임 총회장은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고 성장케 할 수 있는 성장위원회 창설 △선교 대상 국가를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기획 선교할 수 있는 선교중심의 총회 △일부 노회의 독점을 막고 미비한 소수 노회의 통합과 화합을 통한 노회 평준화를 지향하는 총회 △총회 모든 임원들이 자발적 섬김으로 하나 됨을

이루는 섬김과 희생의 총회 등을 새 회기 총회 운영 로드맵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총회원 모두의 하나 됨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를 당부했다.

직전 총회장 최영순 목사는 “부족함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총회원들의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 총회가 임마누엘 총회로 거듭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총회 발전을 위해 더욱더 힘쓰고 노력하자”고 격려했다.

이날 총회에 앞서 정중자 목사의 사회로 드려진 개회예배는 임용빈 목사의 기도 후 전권위원장 최경희 목사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주님의 작은 목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이어 직전 총회장 최영순 목사의 축도로 개회예배를 마쳤다. 이지희 기자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Shinhan

좋아하는 책들을 마음껏 볼 수 있어 행복해요

아름스 모여라!  
535개 아름스 도서관으로!

#신한카드 #아름스도서관 #꿈 #무한가능성  
#상상력 #너희들이미래다 #금융으로일상을이롭게

책과 함께 꿈꾸며 성장하는  
아이들 모두가 No.1입니다

신한카드가 세상의 모든  
작은 No.1을 응원합니다

신한카드 아름스도서관

아동·청소년이 마음껏 책을 읽고 자신의 꿈과 상상력을 키워도록 국내외 총 535개의 도서관을 개관하였으며, 디지털 콘텐츠를 자유롭게 경험하도록 디지털 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신한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30224131203 | 02-2629-1111 | 02-2629-1111 | 02-2629-1111

Lead by 신한카드

# 김의식 총회장 “제28조 6항, 장로교 원리에 안 맞아”

제108회 총회 기자회견… 명성교회 장소 선정 이유도 거듭 밝혀 NCKK에 대한 견해도 밝혀… “좌로 치우친 경향 있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제108회 신임 총회장 김의식 목사가 서울 명성교회에서 열리고 있는 정기총회 첫날 저녁 회무를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소위 ‘세습 방지법’으로 불리는 교단법 제28조 6항에 대한 생각과 총회 장소 선정 이유를 밝혔다.

◆ “담임목사 청빙은 교회 권한”  
제28조 6항은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각 호는 ①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② 해당 교회 사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제비속과 그 직제비속의 배우자다.

김 총회장은 이 법에 대해 “세계 교회 역사상 유례가 없고 우리 한국에서 수백 개의 교단 가운데 가장, 가장, 통합에만 있는 법이라며 “그 법으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통합교단은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거듭해 왔다”고 했다.

그는 “사실 교회 담임목사 청빙은 당회와 제직회, 공동의회 권한이다. 그리고

노회에서 (그 결정을) 인준해주는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 장로교 법이다. 그런데 총회에서 그것을 규제한다는 것이 장로교 원리에 맞지 않다. 그로 인해 갈등을 겪고 탈퇴하는 교회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했다.

이번 통합 총회 기자회견 제28조 6항에 대한 개정안이 논의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총회장은 “이미 제정된 헌법 제28조 6항을 존중하지만, 교회가 꼭 목사님이나 장로님 자체에게 승계시킬 원할 때는 그 교회의 자율권을 인정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가 해서 당회의 3분의 2 이상,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공동의회 4분의 3 이상 이 허락할 때는 승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라고 했다.

그는 이 같은 개정안이 “이번 총회에 상정될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총대들 의견에 따라서 결정해야 할 문제다. 총회장이 원한다고 해서 꼭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 “명성교회를 총회 장소로 선정한 이유는…”  
김 총회장은 명성교회를 총회 장소로

선정한 이유도 거듭 밝혔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천명(성) 반명(성)으로 나누어 불화와 분쟁을 거듭했다.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명령하셨다”며 “이번 기회에 (명성교회를 둘러싼 갈등을) 치유하고 화해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명성교회를 총회 장소로 선택하게 됐다”고 했다.

김 총회장은 “또 그것을 이루려고 할 때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1만 명의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 영적 대각성 기도회를 가지면서 성령의 화해 역사가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그런 기도회를 개최할 수 있는) 장소로 명성교회가 적합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기도회는 이번 정기총회 기간 중 결국 열리지 않게 됐다. 총회 측은 오는 11월 서울에서 이 기도회를 갖는다는 방침인데, 김 총회장은 기도회 개최 장소에 대해 “명성교회를 총회 장소로 선택해 불편한 마음을 가진 분을 있는데, 또 (기도회를 명성교회에서) 강행한다는 것이 상치받은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생각해 기도회는 명성교회가 아닌 제3의 장소를 모색해 보려고 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 총회장은 명성교회를 총회 장소로 선택한 또 다른 이유에 대해 “지금 한국교회에 완전히 침체의 기로에 있는데 여기서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화해하고 하나 되어 다시 일어나는 것밖에



예장 통합 제108회 총회장 김의식 목사(가운데)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목사 왼쪽은 윤택진 장로부총회장, 오른쪽은 김영걸 목사부총회장. ©김진영 기자

없다는 절대절명의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총회장은 “명성교회를 총회 장소로 선정한 것에 대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반발이 심했다. 명성교회도 반렐할 정도였고, 저희도 곤욕을 치렀다”며 “그러나 계속 기도하면 할수록 언제까지 이상 태로 나누어선 안 된다 해서 전 임원들과 신 임원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총회 첫날인) 오늘 많은 불상사가 예상됐지만 반대하는 분들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수용해주고 용납해주어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친 것에 감사하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도 13개의 시도 별로 치유 세미나와 연합부흥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설득하고 대화할 것”이라며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이번 한 회기 동안 하나 됨을

이뤄나가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 “NCKK, 좌로 치우친 경향 있었다”  
김의식 총회장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K, 총무 김종생 목사)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통합 총회 내에서는 NCKK가 친동성애적 종교다원주의적 행보 등을 보이고 있다며 교단이 NCKK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김 총회장은 “지금까지 NCKK가 성경을 벗어나서 좌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었다”며 “전통적 교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동성애를 인정하는 등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합리 보수 복음주의를 지향하는 통합 총회와 갈등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교단이 파송한 (이홍정) 총무님

때문에 가슴 아비를 했는데, (이 목사가) 중간 사퇴함으로써 새 총무를 추천할 때는, 복음주의적 목사님이 (NCKK 총무로) 가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김종생 목사를) 보냈다”고 했다.

김 총회장은 이번 총회가 열리기 전 교단 내 소위 ‘보수 모임’의 대표자들이 자신을 찾아왔으며 “너무 좌측으로 치우친 NCKK가 되지 않도록 김종생 총무님을 결정할 때도 약속 받았고, NCKK가 너무 좌로 치우치지 않도록 부탁했기에 (김종생 총무의) 남은 임기 2년간 지켜보자고 이해를 구했다”고 했다.

한편, 김 총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계 연합기관 연합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안팎으로 처한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교계 연합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총회장은 “한국교총(한국교회총연합회)에 교단 대표로 가게 되면 이단사이비가 아닌 이상 어떤 양보를 통해서라도 연합해야 함을 역설하고 싶다”며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사이바이단적 요소만 배제시키고 나머지는 대폭 양보하더라도 연합운동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총회장을 맡는 한 회기 동안 총회에 상근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가 담임으로 있는 치유하는교회는 그의 총회장 임기 동안 안식년을 하려했다고 한다.

김진영 기자

## 신임 총회장 김의식 목사, 부총회장 김영걸 목사



예장 통합 직전 총회장 이순창 목사(왼쪽)가 제108회 신임 총회장 김의식 목사(오른쪽)에게 의사봉과 성경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맨 오른쪽부터 순서대로) 김의식 총회장, 김영걸 목사부총회장, 윤택진 장로부총회장 등 예장 통합 제108회 신임 임원들. ©김진영 기자

### 제108회 총회 개최 후 임원선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제108회 정기총회가 19일 서울 명성교회에서 전체 총회대의원(총대) 1,500명 중 1,089명(목사 524명, 장로 565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특히 이후 임원선거를 통해 직전 회기 부총회장인 김의식 목사가 제108회 총회장으로 추대됐고, 부총회장 단독 후보자인 김영걸 목사(포항남노회 포항동부교회)와 윤택진 장로(대전노회 대전제일교회)도 총대들의 박수로 추대됐다.

이 밖의 신임 임원들은 △서기 조병호 목사(서울강남노회) △부서기 김성철 목사(서울서북노회) △회록서기 장승천 목사(대전서노회) △부회록서기 조현문 목사(포항노회) △회계 정성철 장로(서울강북노회) △부회계 송경정 장로(서울남노회)가 선임됐다.

◆ “신앙의 표준인 하나님의 말씀, 최우선 하겠다”  
김의식 신임 총회장은 취임사에서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19 이후 지난 3년 동안 안팎으로 최대 위기 가운데 있다”며 “밖으로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종교다원주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사이

비, 이단 등 반기독교 세력들의 협공이 끊이지 않고, 안으로는 내부적 갈등과 불화, 대립과 분열의 소모전이 끊이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무너져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총회 장소 문제로 삼려를 끼쳐드린 점 마음 속 깊이 용서를 구한다. 이런 위기 때 제108회 총회 주제를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로 정하게 된 것은 가장 먼저, 지난 10년 동안 갈등과 불화를 가져왔던 모든 관계에 있어 용서와 화해의 치유 총회가 되길 간절히 바랐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신임 총회장은 “치유받은 우리의 교회와 총회가 되어야 지역간 계층간 이념간 성별간 세대간 불화와 대립관계에 있는 우리 사회를 치유하고 하나 된 힘으로 복한의 2,600만 우리 동족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나아가 선교하는 민족으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치유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점점 죽은 땅으로 변하고 있는 우리의 지구 생태계가 치유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세계의 교회와 합심하여 마지막 때 복음주의 신앙을 사수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적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총회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김 신임 총회장은 “모든 치유 사역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총회장은 중재자로 조정자이기에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모든 신앙의 표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그리하여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어느 누구도 소외될 없도록 모든 분들을 섬기며 중재해나가는 것을 모든 총회 사역의 중심으로 삼겠다”고 했다.

◆ 부총회장들 “교단 잘 섬길 것”  
신임 부총회장인 김영걸 목사는 “선거를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다. 우리 교단을 사랑하는 분들,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분들, 뒤에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 보았다”며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공의롭게 교단을 잘 섬기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신임 부총회장 윤택진 장로는 “총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교회는 존재할 수 없고, 신앙의 선배 없이 후배는 클 수 없으며, 대전제일교회와 대전노회 없이 (제가) 총회로 나와 섬길 수 없다는 걸 고백한다”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섬기겠다. 교단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열심히 섬길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 기장 신임총회장에 전상건 목사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가 19일 전남 신안 라마다호텔&서원리조트에서 제108회 정기총회를 시작한 가운데,

직전 부총회장이었던 전상건 목사(서광교회)가 찬성 442표, 반대 114표를 얻어 신임총회장에 당선됐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의 평화-선교 공동체’라는 주제로 열린 기장 총회 첫째

날 임원 투표가 진행됐고, 신임총회장 외에도 목사 부총회장-장로 부총회장에는 단독후보인 박상규 목사(광주서광교회)-강신우 장로(성능교회)가 선출됐다.

신임총회장 전상건 목사는 “어려운 시기, 교회의 중심성을 회복하고 예배의 온전성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용국 기자

## 명륜진사갈비가 New 버전으로 확 —! 바뀌었습니다!



**1인분 가격에**  
돼지갈비, 삼겹살, 목살, 닭갈비,  
프렌치릭, 별집떡볶이까지!

**모두 무한!**




갈비먹고 살림장만 하세요!

1등 신선 살림장만 지원 (일천만원 상당) | 2등 시몬스 퀸 침대 | 3등 자코모 소파 | 4등 한솥 6인용 식탁 | 5등 명륜진사갈비 상품권

명륜진사갈비는 1년내내 선물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www.명륜진사갈비.kr에서 NEW버전 가맹점을 확인하세요!

# 동네교회가 부흥하기 위한 8가지 방법은?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샘 레이너(Sam Rainer) 목사(사진)가 기고한 “동네 교회의 귀환: 복귀를 현실로 만들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샘 레이너는 처치앤서스(Church Answers) 회장이며 플로리다 주에 위치한 웨스트브레이크턴 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다음은 칼럼의 요약.

**1. 오명이 장점이 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세위된 교회가 “모든 거리 모퉁이에” 있는 것을 한탄했다. 이해한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교회가 많아 보인다. 하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대형교회 운동이 쇠퇴하고 있다. 젊은 세대들은 (베이비) 부머 세대가 즐겼던 넓은 캠퍼스 위에 거대한 성전을 선호하지 않는다. 동네교회가 운동에 대해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하지만 작고 지역적인 것에 대한 편견은 열어지고 있다. 동네에 자리 잡은 작은 교회들은 특별한 매력을 지닌다. 이러한 교회들이 더 나아

가 주변 지역사회와 소통한다면, 그 오명은 장점으로 바뀔 수 있다.

**2. 교회 양육이 보편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양육(fostering)이라는 단어를 어린이가 한 가정에게 위탁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는 영구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입양과 다르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 양육은 건강한 교회가 특정 기간(보통 6개월에서 1년) 동안 건강하지 못한 교회에 사람과 기타 자원을 제공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많은 경우 양육 관계는 설교자를 과전하고, 예배 시역을 개선하며, 아동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는 일을 포함한다. 가장 성공적인 양육 관계는 주변 지역에 대한 봉사 활동을 포함한다.

**3. 지역 목회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해야 한다**  
너무나 많은 지역사회에서 목회자들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네트워크에 서로 연결된 전초 기지가 아닌 섬처럼 대한다. 목사들은 자신의 섬에서 벗어나 다른 목사와들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 한 지역사회

에서 목사들이 친구가 되면 입기는 깊어지고, 교회는 경쟁을 멈추고 협력하기 시작한다. 동네교회의 귀환은 목사들이 경쟁보다 함께 일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때 본격화될 것이다.

**4. 교인들은 성장을 기대하고 사람들을 초청해야 한다**  
목성과 토성이 수성과 화성에 비교되듯, 큰 교회는 작은 교회보다 더 큰 중력을 끌어당긴다. 지역에 처음 오거나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를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큰 교회는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고, 이러한 교회들은 매 주일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작은 동네 교회들은 성장에 대한 문화나 기대가 없다. 새로운 사람을 기대하지 않거나, 교회로 사람들을 초청하지 않으면 예언은 현실이 되고 만다. 많은 작은 교회들은 교인들이 성장을 바라지 않거나, 기대하지 않아 여전히 작은 교회로 남아 있다. 이러한

뿌리 깊은 사고방식은 작은 규모에 대한 해로운 안락함을 만들거나, 새로운 사람들이 편안한 환경을 어지럽힐 수도 있다. 양가감정마저 초래한다. 동네 교회의 부활은 교회 안에서 문화적 변화가 앞서가며, 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고 기대하기 시작할 때 이루어진다.

**5. 지역사회 활성화가 선교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교회가 활력을 되찾으려면 지역사회의 부흥을 포함시켜야 한다. 더 나은 교회의 건강은 내부적인 집중이 아닌, 외부적인 운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교회 주변으로 1.6킬로미터 반경 이내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네교회의 운동을 상상해 보라. 그러면 나라가 바뀔 것이다!

**6. 이기적인 선호가 이타적인 봉사로 바뀌어야 한다**  
마가복음 10장 35-40절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달라고 요청할 때, 예수님은 그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은 희생과 봉사를

통해 온다. 예수님은 어떻게 봉사하셨을까?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다! 이기적인 선호는 이타적인 봉사를 죽게 한다. 다른 사람의 구원보다 당신의 개인적 소망을 우선한다면, 교회의 사명을 큰 위험에 빠뜨린다. 동네교회가 부활하려면 교인들이 선호보다는 봉사를 우선해야 한다. 활력이 남치는 교회는 더 많이 나아가고 전파하며, 불평하고 고함치는 일은 더 적을 것이다.

**7. 교회 문화의 거품이 깨져야 한다**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밖으로 나아가갈 때 고립된 교회 문화 거품은 깨진다. 교회는 결코 안전의 거품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패로 설계된 것이 아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이웃의 가장 어두운 구석으로 데려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차량과도 같다. 이것은 위대한 사명이지만, 위대한 회피가 아니다. 복음에 대한 순종은 우리를 소외되고 비전하고 방치된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한다. 노숙자나 중독자의 외모와 냄새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앉아서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같은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합당한 사람이 아닌 가장 절망적인 사람들을 섬기라고 부르신다.

**8. 교회는 이웃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  
교회 시설은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목양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비싸지만 필수적인 도구 중 하나이다. 북미 환경에서 건물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사명에 중요하다. 교회 건물을 지역사회 중심지로 만드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실제로 교회 건물은 지역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여야 한다. 초대하지 않는 교회 건물은 교인들이 친구와 가족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리기 어렵다.

이제 동네교회가 회복할 때다. 작은 교회라는 오명은 사라지고 있다. 목회자들은 캠퍼스라는 섬을 떠나 친구들을 사귀는 것에 자유로워야 한다.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동네교회 운동은 다시 시작될 준비를 마쳤다.   
유진 김 기자

## 초저출생 시대, 교회 등 종교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아동돌봄 대안적 돌봄시설  
건축방안 국회토론회 열려



초저출생시대 아동돌봄 대안적 돌봄시설 건축방안 국회토론회가 최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되었다. 행사는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본부장 김경철, 이하 출대본)를 비롯해 CTS기독교TV(회장 김경철, 이하 CTS)와 CBS(사장 김진오)가 주관하고 이채익(국민의힘)·김희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이날, 출대본 본부장인 CTS 김경철 회장과 CBS 김진오 사장이 아동돌봄 입법청원을 통해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한국교회 23개교단 결의서를 포함해 전국 20만 7785명(9월 4일 기준)의 1차 서명지 6권을 이채익·김희재 두 국회의원의에게 전달했다.

서명지를 전달받은 이채익·김희재 국회의원은 “입법청원 위한 20만 여명의 목소리에 더욱 관심 갖고, 한국교회는 물론 종교계와 함께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종교시설을 활용한 대안적 돌봄시설 확충과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뒤따를 때 비로소 인구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임원선 학장(신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최진호 명예교수(아주대학교 사회학과), 장현일 원장(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김희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CBS 김진오 사장, 출대본 본부장 CTS 김경철 회장, 이채익 국회의원(국민의힘), 이정은 목사(출대본 경남본부장), 안광현 교수(유원대학교 교양융합학부)). ©CTS

위기를 극복할 실재적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에 동의했다.

이날 국회토론회 1부는 이채익(국민의힘)·김희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개최사를 시작으로, 김진표 국회의장·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서면 축사, 김경철 회장(CTS)·김진오 사장(CBS)의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2부 토론회는 장현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최진호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를 좌장

으로 △임원선 신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이 ‘아동돌봄과 지역사회자원 활용 방안’ △이정은 저출생대책국민운동 경남본부장이 ‘우리지역 아동돌봄 사각지대 대안은?’ △안광현 유원대학교 교양융합학부 교수가 ‘지역소멸과 아동돌봄서비스’라는 주제로 각각 다양한 저출생(저출산) 극복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회는 종합토론으로 모두 마쳤다.

‘초저출생시대 아동돌봄을 위한 대안적 돌봄시설 건축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한 장현일 원장은 “오늘 참석자들

의 힘과 지혜가 모인 국회토론회는 함께 출산율 0.7명, 세계 최하위의 국가적 난제인 초저출생(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여전히 복잡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구조의 주제인 만큼, 일회성 논의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돌봄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하는 아동돌봄시설의 범람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살피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9월 14일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과 사무총장들이 참석한 아동돌봄 입법청원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 이어 열린 이번 국회토론회를 통해 ‘관련 법 개정 추진을 통해, 종교시설을 주중에는 다음세대를 위한 돌봄센터로 활용하고, 주말 등 종교일에는 상황에 맞게 종교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에 더욱 힘을 예정했다.

입법청원 서명운동은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현재 입법청원 서명운동 양식은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홈페이지(<https://www.happyborn.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서명운동 페이지(<http://www.happyborn.kr/form/write/7091>)를 통해서도 서명운동 참여가 가능하다.   
정지동 기자

## 파이디온, ‘신입교사’와 ‘성경교사’ 위한 세미나 개최

각각 10월 14일과 21일  
2회에 걸쳐 각각 오전과  
오후에 온라인으로 진행



파이디온 선교회가 교회의 교육사역을 위한 ‘두근두근신입교사’ 세미나와 ‘점프업성경교사’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두근두근신입교사’와 ‘점프업성경교사’ 세미나는 10월 14일과 21일 2회에 걸쳐 각각 오전과 오후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두근두근신입교사’ 세미나는 교사의 소명과 역할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교사를 위한 4가지 기쁨을 통해 교사의 소명과 역할을 세운다.

‘점프업성경교사’ 세미나는 분반공부(소그룹)의 원리와 진행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반공부의 원리와 진행을 준비하여 분반공부의 목적과 기능을 회복시키는 시간을 갖는다.

파이디온은 “교회학교 교사 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어요? 이

제 더이상 고민만 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고민에 대한 답은 교사의 모본이 되시는 예수님뿐”이라며 “이번 강의를 통해 다음세대를 예수님처럼 가르쳐 하나님의 세대로 세우는 영향력 있는 교사로 성장하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교사를 위한 ‘TJT’ 세미나”는 교사의 모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원리로, 교사의 모델되시는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교사로 서기 위한 TJT (Teaching as Jesus Taught) 세미나”라고 했다.   
이상진 기자

125th Anniversary  
국민 생활 건강 캠페인

## N°14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동화약품 SINCE 1897

눈, 코, 입을 만지면  
감염 위험



일러스트: 토토티(tototi)



# “주님 허락하신 광야... 우리 힘으로 안돼, 포기 말고 기도해야”

## 서울에서 4일간 진행 중인 ‘유스 윈크라이’ 집회

‘무너져 가는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울부짖는 기도 집회인 2023 유스 윈크라이(Youth One Cry)가 진행 중이다.

‘Victor’s in Christ(롬 8:31)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집회는 방주교회(담임 반태호 목사)에서 21일까지 매일 저녁에 진행된다.

‘윈크라이’ 집회는 대화장 박동찬 목사(일산광림교회)와 준비위원장 이형노 목사(중앙감리교회)를 비롯한 유스윈크라이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최했으며, 서울에서 열리는 4일간의 집회에서는 황덕영 목사(새중앙교회), 햇빛트리대학 김윤희 총장, 원유경 목사(POP교회), 배화여자대학교 김영석 교수 등이 설교자로 나선다.

19일 저녁에 열린 2일 차 집회에서는 ‘별로인 위십이 찬양을 이끌며, ‘유턴이 어가 특송으로 섬겼다. 설교 가운데 황덕영 목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이 광야 가운데 자기중심적인 방식을 내려놓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로 돌파할 것”을 강조했다.

새중앙교회 담임 황덕영 목사는 메시지를 전하며 “이 시대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 보다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이다. 그런데 조금 ‘아리리나’하다. 교회마다 사회마다 위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위상은 크게 올라갔다”고

했다.

이어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어쩌면 환경적으로 열악하고 개개인은 가난할 수 있지만 교회마다 기도원마다 가득 차서 기도로 나라를 위해 기도했다. 기도는 시간차가 있다. 바로 응답될 수도 있지만, ‘응’은 있는데 ‘답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황 목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지 않. 나의 세대에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답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올 수도 있다.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며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고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막 살 수 있나? 그럴 수 없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신실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약하고 넘어진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광야같이 어려운 삶을 산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곳에 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광야에 두신다. 성경에서 광야는 지리적 인 장소적인 것이 아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 영적인 상황을 이야기한다”며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승리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기도의 대상에게 나타난다. 우리가 기도로 심으



새중앙교회 담임 황덕영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상진 기자



집회에는 많은 젊은 찬양사역자들이 함께해 특송으로 섬겼다. 19일에는 가스펠 찬양 그룹인 유턴이어가 특송으로 섬기고 있다. ©이상진 기자

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다음세대가 회복되고, 북쪽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미전도 종족 가운데 승리가 나타난다”고 했다

그는 “광야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건강의 문제, 취업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등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우리는 광야를 돌파해야 한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전쟁을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사랑은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있다. 이 시대가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일할 때, 주님께 충성할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 분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

하신다. 우리가 캠퍼스든, 직장이든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해 있다. 이것은 끊이지 않는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조건을 다는 이기적인 사랑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다. 이 민족과 우리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 우리의 자원으로 많은 숫자로 싸워서 승리할 수 없다”고 했다.

황 목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은 과정이지 결론이 아니다. 힘들어도 무너지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또한, 지금 잘 가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고만할 수 없다. 왜냐면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 설 때 일어나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를 알지 못한다. 우리 세상의 종말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 마지막 날, 어두운 때에 기도로 쓰임 받아 승리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문은수 목사는 ‘기도회를 인도하며 “많은 것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별히 다음세대가 너무 많이 무너졌다. 초대교회 모든 것이 막혔던 상황에서도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음세대에게 거룩한 돌파를 주시길” 위해 기도했다.

그는 “이 시대의 젊은 크리스천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부족하다. 자기중심적인 자기애적인 신앙이 깨지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애용함으로 기도하자”고 강조했다.

문 목사는 “우리가 많은 행사를 하고 큰 대회를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오직 기도할 뿐이다.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없다’며 “다음 세대가 사라진 교회들이 많다. 교회 목회자들이 이들을 위해 사역할 때, ‘말뚝인 독에 물 붓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많다.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기도했다. 이상진 기자

## 거룩한방파제, 3차 국토순례단 모집한다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대회장 오정호 목사, 이하 거룩한방파제가 3차 국토순례단을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3차 국토순례는 오는 10월 8일 경주에서 출발해 포항-영덕-울진-삼척-동해-강릉-주문진-양양-속초-고성-통일전망대로 이어지는 402km의 동해안길 코스다. 최종 도착일은 11월 1일로 총 24박 25일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거룩한방파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악한 시대를 분별하지 않고 이 시대를 분별하여 포괄적차별금지법, 동성애퀴어축제, 학생인권조례, 성혁명교육과정, 국가인권기본계획, 생활동반자법, 아동기법안 등의 반대하여 다음세대와 우리의 가정, 학교와 교회

를 지키기 위한 거룩한 연합운동이다.

또한 2015년 한국 기독교계가 주축이 돼 조직한 초교파적 기독교 사회단체로 2023년 대회장은 새로남교회의 오정호 목사, 준비위원장으로 에스더운동본부의 이용희 교수, 사무총장으로 (사)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의 홍호수 목사가 맡고 있다.

거룩한방파제는 동성애퀴어축제에 반대해 2015년부터 매년 국민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올해 7월 1일 국민대회에는 주최측 추산 15만 명의 기독교인과 시민들이 참여했다. 이와 더불어 거룩한방파제는 국회에서 추진되는 포괄적차별금지법과 생활동반자법의 입법에 반대하며, 성혁명 교육과정과 국가인권기본계획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등에 담긴 미성년자의 성적 문란함을 조장하는 독소 조항에도 반대하고 있다.

거룩한방파제 국토순례를 직접 인솔하

고 있는 홍호수 사무총장은 “1차, 2차를 완주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한 놀라운 일이었다”며 “이번 3차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완주를 목표로 걷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거룩한방파제는 올해 5월과 7-8월 각각 1차와 2차 국토순례를 진행한 바 있다. 1차는 부산-서울의 572km 루트였고, 2차는 7-8월 목포에서 임진각까지 올라오는 596km의 여정이었다.

한편, 이번 3차 국토순례도 거룩한방파제의 이러한 뜻을 알리고 전국적인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기획으로, 신체건강한 성인 남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전 구간 완주 또는 지역 구간 참여가 가능하며, 모집 기간은 이번 달 30일까지다. 신청은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홈페이지 주소: <https://loveisplus.co.kr>). 장지동 기자

## 해비타트의 815런, 10호 ‘손진구 선생 후손 집’ 공사 소식

### 해비타트, 가수 선과 함께 주최 독립유공자들 후손들에게 집 헌정하는 문화행사

해비타트가 가수 선과 함께 마라톤을 통해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에게 집을 헌정하는 문화행사를 진행 중으로, ‘손진구 선생의 10호 집 공사 소식을 전했다.

이들은 광복절인 8월 15일의 숫자를 차용해 8.15km를 달리는 마라톤 행사를 통한 모금으로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을 섬기는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명 ‘815런’으로 최근 해비타트는 10호 집 봉사활동의 소식으로 1905년 을사늑약 당시 이를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상소문을 올린 인물이자, 의병을 훈련시키고 3.1 만세운동까지 활약했던 손진구 선생의 후손 가정에서의 공사를 보고했다.

해비타트는 “피란 하늘이 펼쳐졌던 지난 월요일, 완공을 곧 앞두고 있는 경북 영천의 독립유공자 후손 가정에서 봉사활동을 다녀왔다”며 “손진구 선생의 외손녀

님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기 위해 비닐로 임시방편을 삼고, 단열이 되지 않아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오래된 주택에서 거주하고 계셨다”고 했다.

이들은 “건강이 악화되신 후손분과 가족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선 님, 배우 윤세아 님과 매니저 님, 이연진 코치님, 그리고 815런 페이스로 참여하셨던 권오재 님이 방문하셔서 새 보금자리를 짓는 데 힘을 보태주셨다”며 “안전 장비를 잘 착용한 후에 외부 공사를 단열재 위를 섰고보드로 마감하는 팀으로 나누어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가수 선은 “2020년 8월 15일, 81.5km를 처음으로 뒀 이후 4년 만에 10호집까지 왔다. 앞으로 100호까지 90호 남았다”며 “열심히 달려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가수 선이 지난 15일 광복절, 32도의 폭염 속에도 8.15km 마라톤을 완주하며, 총 15억여 원의 기부금을 모금했다. 이번 마라톤은 선과 한국해비타트가 주최한 행사로, ‘2023 815런’ 즉, 광복절의 의미와 독립유공자에 대한 감사함을 표



해비타트와 가수 선이 주최한 815런 문화행사, 10호로 손진구 선생 후손의 집 공사 현장 모습이다. ©한국 해비타트

현하고 이를 기념하자는 의도로 기획된 문화행사이다. 또한, ‘잘 될 거야, 대한민국!’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모금도 펼쳤다.

또한, 선은 2020년부터 개최한 네 차례의 815런을 통해 38억여 원의 기금을 조성한 바 있다. 이 기부금으로 전남 화순 1호집과 경기 동두천 2호집, 충남 청양 3호집, 경남 창원 4호집, 울산 5호집, 충북 제천 6호집, 경북 청송 7호집, 전남 구례 8호집, 충남 보령 9호집이 헌정됐다. 이상진 기자

동화약품 SINCE 1897

# 무좀, 이제 붓으로! 한번에!

\*이 약은 단 1회 적용한다.

#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교회로”



시애틀형제교회가 창립 52주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있다. ©교회 측 제공



시애틀형제교회 권준 목사와 사모의 모습. ©교회 측 제공



시애틀형제교회 창립 52주년 감사예배에서 찬양하는 시애틀형제교회 성가대. ©교회 측 제공

## 창립 52주년 시애틀형제교회

시애틀형제교회(담임 권준 목사)는 지난 17일, 창립 52주년을 맞아 연합예배를 드리고, 언어와 민족, 세대와 문화를 뛰어 넘어 하나님을 꿈꾸는 공동체로 나아가길 것을 다짐했다.

시애틀형제교회 성도들은 지난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다음세대가 부모세대보다 더욱 크게 부흥하는 교회를 향해 다시금 헌신을 결단했다. 차세대들은 부모세대의 희생에 감사하며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삶으로 '킹덤 드림'을 향해 살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예배는 시애틀 형제교회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한어권 중고등부 코람데오의 흥겨운 댄스, 연합 찬양대의 경

쾌한 찬양과 경배가 이어졌으며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교회"(행 2:42-47)라는 제목으로 실비아 로 전도사(유·초등부)와 알렉스 리(영어권), 권준 목사가 설교했다. 권준 목사는 한어권 회중과 영어권 회중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다음 세대와 영어권 회중을 리더로 세우고,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나아가자고 독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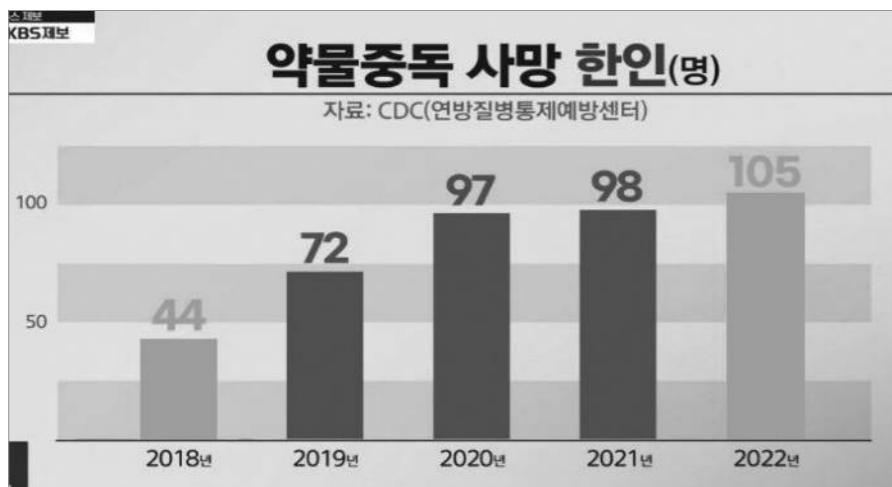
권 목사는 "교회의 DNA는 선교이며,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는 모든 목적이 선교"라며 "우리 교회와 각 성도들이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의 비전과 헌신이 수많은 미주 한인인민교회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하나님의 비전으로 한 마음이 되어 선교적 사명을 다하며, 세상을 축복하고 구원하는 주께서 꿈꾸시는 교회로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영어 예배의 비전을 소개한 알렉스 리 목사는 "언어와 세대, 민족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누구나 편안하게 와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한다"며 "영어권 주일예배를 비롯해 소그룹과 제자 훈련을 실시해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우고, 전 세대가 같은 비전을 나눌 수 있는 교회, 다음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욱 부흥하는 교회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전

했다. 실비아 로 전도사는 2세대를 위해 헌신한 1세대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다음 세대들은 1세대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꿈과 비전, 믿음의 삶을 볼 수 있었다"며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삼고 제자의 삶으로, 자신의 꿈을 넘어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부모 세대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민선 기자

## ‘2달러 펜타닐’ 노출된 초등생… 재미 한국인 마약 급증



약물중독 사망 한인 숫자. ©KBS캡처



마약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 ©KBS캡처

### 한국인 마약 사망자 4년 사이 2.4배 증가 2달러면 펜타닐 구매... 초등학생도 위험

최근 미국에서 마약 중독으로 숨지는 한국인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의 경우 산 값에 구할 수 있어 초등학생까지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월 LA 코리아타운의 한 주택가에서 재미 교포 박모(20)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박씨에게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이 검출됐다고 한다. 지난 5월 로스앤젤레스 외곽의 한 길가에는 신모(33)씨가 숨진채 발견되기도 했다. 신씨에게서

는 펜타닐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지난해 미국에서 약물중독과 과다복용으로 숨진 한국인은 105명으로, 2018년에 집계된 44명보다 2.4배 많은 수치를 보였다. 17일 KBS가 보도했다. 약물 중독자 수는 해마다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한국인이 주택가에서 숨진 채 발견되거나, 마약 중독을 치료하는 합숙소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드러났다.

합숙소에서 마약중독을 치료하던 유모(20)씨는 "13살, 14살에 마약을 시작해서 20살까지 했다"며 "이제 막 내 삶을 찾았고 얼굴도 깨끗해졌다. 이제 마약은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미주한인마약퇴치센터를 운영하는 한영호 목사는 "2달러면 펜타닐을 살 수 있다"며 "초등학생까지 손낼 수 있는 단계에 온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주영 기자

## 美국방 “푸틴, 北의존 고립 방증 50여개국 우크라이나 위해 단결”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북한과 이란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됐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우방 50여개국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단결했다며 한국과 일본의 참여도 언급했다.

제국주의적 야망이 유엔 회원국의 주권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번 UDCG회의에서 각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의사를 거듭 재확인했다며 특히 한국과 일본의 참여를 강조했다. 그는 "이것(우크라이나 문제)은 규칙에 기반한 질서에 관한 것이며, 전 세계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대한민국의 당국자들이 화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드 오스틴 미국 방장관(사진)은 독일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UDCG)' 15차 회의에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 이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며 "전 세계 국가들은 러시아의 정복 캠페인에 저항하기 위해 계속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와 수많은 파트너들의 결의와 용기를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50여개국 국방장관과 관계자가 대면과 화상 방식으로 참석했다고 미국의소리(VOA)는 전했다.


오스틴 장관은 푸틴의 '시간 끌기 전략은 틀렸으며 "세계는 강과 폭군의

조성하 기자

광고심의필 : 2017-1405-1900

소화 · 정 장 · 변 비 · 영 양 에 는 **일반의약품** Since 1956

# 원기소플러스 정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서울약품 | 주 인터넷 창에서 원기소플러스, 원기소 를 검색하세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약사의 상의하십시오.

효 모 · 효 소 · 유 산 균 · 복 합 제 제

## 腸(장)은 비우고, 영양은 채우고 소화력은 높이세요

- ✓ 효모는 각종 성분의 영양공급원입니다
- ✓ 효소는 소화를 도와주고 활성화해줍니다
- ✓ 유산균은 저하된 장기능을 개선해줍니다
- ✓ 효모속 베타글루칸 성분은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 ✓ 효모속 비오틴 성분은 탈모를 예방합니다
- ✓ 어린이, 남·녀·노·소, 누구나 복용 할 수 있습니다

| 효능 · 효과 | 소화불량, 소화촉진, 정 장, 변비, 영양, 과식, 체할, 설사, 묽은변, 구역, 구토, 식욕감퇴, 식욕부진, 복부팽만감, 위부팽만감, 장내이상발효.

| 복 용 방 법 | 물과 함께 삼켜서 복용, 또는 입안에서 녹이거나 씹어서 복용.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길 72-1 소비자 상담 : 02-407-5535, 02-533-2992

# “각국 경제와 치안 안정, 박해받는 교회 등 위해 기도 요청”

## 한국선교연구원(KRIM) 세계선교 기도 제목

### ◇니제르, 군부 쿠데타로 인해 주변국과 전쟁 위험 고조

7월 27일 사하라 사막 중간에 위치한 니제르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했다. 군부는 러시아와 시리아의 지지와 협력을 기대하며 2년 전 대통령으로 선출된 모하메드 바줌(Mohamed Bazoum)을 몰아내고 임시 군정을 선포했다. 미국과 유엔, 유럽연합 등은 군사정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남아프리카 15개국 연합체인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도 군사 개입 시한을 통보한 상황이다. 러시아와 서방 간의 무력 충돌로 변질과 우려하고 있다. 아프리카연합(AU)도 쿠데타로 군정이 들어선 니제르의 회원국 자격을 정지시켰다. 니제르 군부의 수장인 티아니(Abdourahmane Tiani) 장군은 3년 내 민정 복귀를 약속했지만 ECOWAS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부는 최근 2년 내에 군부 정권이 세워졌던 말리나 부르키나파소에 군사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군부는 니제르에서 생산되는 우라늄에 대해 독점권을 가지고 있던 프랑스에 대해서 수출 중단도 선언했다. 니제르의 쿠데타 상황이 주변국과의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고 속히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이 과정에서 시위와 폭력 사태로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기도하자. (출처 www.washingtonpost.com, www.aljazeera.com)

### ◇에리트레아, 10년 이상 수감됐던 기독교인 13명 풀려나

기독교 인권단체 순교자의 소리(VOM)는 8월 9일 에리트레아에서 10년 이상 감옥에 갇혀 있던 기독교인 13명이 석방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VOM은 20년 이상 부당하게 투옥 중인 것으로 알려진 나이즈기(Haile Nayzgi) 목사와 게브레메스켈(Kiflu Gebremeskel) 목사를 비롯해서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400명 이상의 기독교인에 대한 석방을 위한 지속적인 기도를 요청했다. 에리트레아 정부는 테와헤도 교회(Tewahedo Church)로 알려진 에리트레아 정교회, 수니파 이슬람교, 가톨릭, 일부 복음주의 루터교회만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지난 5월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에리트레아를 특정우려국가(CPC) 17개국 중 하나로 지정했다. 2022년 2월에는 10년간 감옥 생활을 한 뒤 15년 동안 가택 연금 상

태에 있던 정교회의 안토니오스(Abune Antonios) 총대주교가 사망했고, 2022년 10월에는 유럽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가톨릭 신부 3명이 에리트레아의 인권 침해를 공개 발언한 혐의로 공항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올해 초, 오픈도어(Open Doors)에서 발표한 2023 월드와치리스트(World Watch List)에서도 에리트레아는 여전히 기독교 박해지수 4위를 기록했다. VOM의 미디어 국장인 넬레톤(Todd Nettleton)은 전 세계 113개국 17,000명 이상이 에리트레아 기독교인 석방을 위한 서명에 동참했고, 에리트레아 내에서도 목숨을 걸고 이 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에리트레아에서 압박과 박해로 고통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나가고, 무엇보다 감옥에 수감된 기독교인들이 하루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출처 www.baptistpress.com, www.uscifr.gov)

### ◇동아프리카, 타국으로 이주하는 여성 두 배 이상 증가해

소말리아 북부 보사소(Bosaso)는 예멘을 거쳐 걸프만 국가로 이어지는 이민 루트를 계획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열악하고 불안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는 갈수록 고국을 떠나 타국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그런데 지난 2년 사이 아프리카 뿔 지역에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이민을 택하는 젊은 여성들과 소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숫자는 2021년 53,000명에서 2022년 106,700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전적 사기와 인신매매, 강제결혼, 일자리 알선을 미끼로 한 학대와 착취도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이주기구(IOM)는 보사소(Bosaso)와 하르게이사(Hargeisa)에 이주민대응센터(MRO)를 설립해서 여성들이 인신매매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무료로 의복과 음식, 물을 제공하고 있다. 보사소 센터의 직원인 파리아다 무세(Fariida Musse)는 센터에 오는 많은 여성들이 몇 달 동안 인질로 잡혀 있었고, 임신을 해서 이곳을 찾는 여성들도 수십 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이주기구(IOM)는 2022년부터 지금까지 예멘에서 5,700명이 넘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지만, 여전히 예멘에는 아프리카에서 이주해 온 43,000명이 갇혀 있다



에리트레아의 사막에 놓여 있는 선박용 철제 컨테이너 감옥. 기독교인 수감자들은 이런 컨테이너에 10년 이상씩 감금되어 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고 전했다. 동아프리카 각 나라들이 자국의 경제 안정과 정치적 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찾아 고향을 떠나는 이민자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어 그 삶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자. (출처 reliefweb.int)

### ◇나이지리아, 해외에서 일자리 찾는 의사와 간호사 늘고 있어

나이지리아에는 지금 자파증후군(japa, 요부바어로 도망치다. 탈출하다)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많은 수의 나이지리아인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해외로 이주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특히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인력들이 해외 취업을 위해 국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은 이를 막을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더 나은 급여와 근무 조건을 찾아 미국, 영국, 캐나다 및 소득 수준이 높은 일부 중동 국가로 이주하고 있어 자국 내 의료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8년 동안 적어도 5,600명의 의사가 영국으로 이주한 가운데 2억 2천만 명에 달하는 나이지리아 인구를 감당할 수 있는 의사는 현재 24,000명뿐이다. 나이지리아 의사협회는 이들 중 85%도 이민을 계획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때때로 해외로 취업하려는 의사는 브로커들이나 밀수업자들의 사기에 걸려들기도 하고, 자중해를 건넌다가 사망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해외 취업의 열망은 의사뿐 아니라 나이지리아 사회 전반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21년 나이지리아 사회회합조사(Social Cohesion Survey)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인의 73%가 해외로 이민을 원하고 있었는데, 이 수치는 2019년보다 무려 41%가 증가한 것이었다. 나이지리아 경제와 안보 불안이 해소되어 국민들 모두가 나라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특별히 의료 인력들이 국민들의 생명을 돌보는 일에 자긍심을 가

지고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출처 www.economist.com)

### ◇수단, 약 1,400만 명의 아동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 필요

수단에서 4월 발생한 군부 간 충돌로 70만 명이 인근 나라로 피란길에 올랐다. 수단의 불안한 상황을 피해 국경을 넘어 차드와 남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이집트 등으로 이주한 수단인은 지금까지 약 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8월 4일, 유네스코(UNICEF)의 인도주의 활동 담당 부국장인 차이반(Ted Chaiban)은 수단 내 약 1,400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적절한 구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단에서 어린이들은 무고하게 살해당하고, 납치되고, 심지어 무장단체에 징집되기도 한다. 4월에 폭력과 전투가 발생하기 전 수단의 국내 실정인 170만 명이었던, 현재는 추가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실정인이 늘어나면서 어린이들은 부모를 잃거나 부상을 입거나 각종 질병과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유네스코는 수단에서 5세 미만 어린이 300만 명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고, 그중 70만 명이 급성 영양실조로 사망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약 170만 명의 어린이가 필수 예방접종을 받지 못해 질병 발병 위험도 극도로 높아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수단 피란민들이 삶의 터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단 군부 갈등이 하루속히 해소되고, 빈곤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과 난민들을 보살피는 일에 전 세계가 협력해 나가도록 기도하자. (출처 news.un.org)

### ◇에티오피아, 정부군과 민병대 간 전투로 인명피해 다수 발생

에티오피아 서북부에 위치한 암하라(Amhara)주에서 지난 4월부터 정부군



에티오피아 서북부 암하라주에서는 지난 4월부터 정부를 상대로 민병대의 폭력 시위가 발생해 치안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Warographics 영상 캡처

상대로 민병대의 폭력 시위가 발생하는 등 치안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암하라주에서 활동하는 파노(Fano) 민병대는 2020년 11월부터 2년간 이어진 정부군과 티그레이 반군(TPLF) 사이의 내전에서 정부군을 지원했다. 그런데 2022년 11월 에티오피아 정부와 TPLF의 평화 협정이 체결된 뒤 아비(Abyi Ahmed) 총리의 명령으로 지역 민병대를 군대와 경찰에 통합하려는 시도가 계속되면서 파노 민병대와 연방 정부 간의 관계가 틀어졌다. 8월 초, 파노 민병대가 일부 도시와 알리벨라 공항을 장악하고 정부군을 공격하며 교전이 벌어졌다. 급기야 에티오피아 정부는 8월 4일 암하라주 전역에 인터넷을 차단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또한 연방경찰은 암하라 사람들에 대한 아비 정권의 공격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암하라 국민운동(NaMA) 소속 국회의원 크리스티안 타델레(Christian Tadele)를 체포했다. 8월 13일에는 바히르다르(Bahir Dar)에서 공습 공격으로 인해 민간인 22명이 사망하고 50명 이상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운동가들은 지난 4월 27일 집권 여당인 변명당(PP)의 지역 대표가 암살당한 이후 에티오피아 정부 당국에서 수천 명의 암하라인들을 체포, 구금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정부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암하라주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하고, 또다시 티그레이 내전과 같은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자. (출처 www.economist.com)

### ◇남아공, 범죄자의 회복과 변화를 가져온 신앙 기반 교정 활동

데이비드 헤리티지(David Heritage)는 자신을 입양했지만 늘 폭력적이었던 양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1995년에 체포되어 구속되었다. 육체적, 정서적, 심리적으로 학대당한 그는 교도소에서도 양부모

를 향한 분노 속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지만 그는 리우코프(Leeuwkop) 감옥에서 신앙 기반 교정 활동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진심으로 회개했다. 데이비드는 제일 먼저 브랜스톤(Bryanston) 감리교회의 교정 담당 목사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감옥 내 교회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교육 과정에도 참여하면서 영어와 수학, 인문학 기초를 배웠다. 데이비드는 석방 이후 고용과 숙박에 있어서 도움을 주겠다는 브랜스톤 교회의 동의를 얻어 감옥에서 12년 반을 보낸 후 가석방될 수 있었다. 가석방된 이후 그는 교회의 봉사활동 프로그램에서 일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노숙자와 실업자를 돕는 일에 매진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리우코프 감옥의 교정 활동에도 참여해 아내를 만날 수 있었고, 수감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하트라인(Heartlines)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른 교정 센터에도 보급했다. 현재 데이비드는 가석방자와 전과자를 지원하는 비영리조직인 리바이브 이니셔티브스(Revive Initiatives)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이들이 하루빨리 회복되어 지역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남아프리카대학교(UNISA)의 신교학 교수인 마사우(T. D. Mashau) 박사는 1996년 이후 남아공의 교정 시스템이 재할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목사들과 영적 리더들이 수감자들의 회복과 재할, 사회로의 재통합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말한다. 재범률과 수감 시설 내 범죄율이 높은 남아공에서 신앙 기반 교정 활동의 도움을 받아 수감자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회복을 경험하고, 사회로 다시 돌아와 변화된 삶을 살아가 수 있도록 기도하자. (출처 IBMR 47, no. 3)

한국선교연구원(KRIM,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Mission)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마음을 전하세요

## 풍성한 추석 선물 대잔치

- 목사님 명절 선물로!
- 부모님 영양 보충을 위해!
- 수험생 영양 관리를 위해!
- 운동선수 체력관리를 위해!

**"나무인삼"이라 불리는 황칠**  
황칠을 발효하면

- 영양성분 UP!
- 장어의 잡냄새 제거
- 깊어지는 풍미!
- 특유의 쓴맛을 부드럽게!

더위에 지친 여름!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 바라크 황칠 장어 진액

POINT1  
국내산 민물장어

POINT2  
국내산 발효황칠

POINT3  
13가지 부원료

POINT4  
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대곶남로580번길 55-19  
본점 :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113 평강상가 1층

NAVER "월드씨앗나라" 를 검색해보세요!

문의: 080-915-5000 / H.P: 010-5333-3169

# “마사 아미니 사망 1주년... 이란 기독교인, 시위 가담하면 체포 위험”

마사 아미니(Mahsa Amini)가 사망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이란 기독교인들은 시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가 보도했다.

지난 16일(이하 현지시간)은 아미니가 사망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사망 당시 22세였던 아미니는 엄격한 여성 복장 규정에 따라 하잡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란 종교경찰에 체포된 직후 사망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그녀의 사망으로 촉발된 여성인권 시위 참가자들이 처한 위험을 설명했다.

수지 켈먼 USCIRF 국장은 CBN과의 인터뷰에서 “기독교인들은 정부로부터 시

위에 참여하지 말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보고한다. 만약 시위에 참여하고 체포되면 감옥에서 성폭행을 당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란에서 소위 명예살인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이슬람에서 개종한 여성과 소녀들이 더욱 취약해졌다고 보고했다. 법이 완화되면서 기독교인들은 시아파를 떠난 가족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위험이 더욱 커졌다.

지난 9월 발표된 USCIRF 보고서에는 지난해 하잡 시위 도중 구금된 후 악명 높은 에반 교도소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발언한 아르메니아 기독교 여성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

신문관은 그녀에게 “당신은 기독교인

이기 때문에 하잡을 벗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추정에 따르면 수백 명의 시위자들이 정권에 의해 살해됐고 최소 7명이 ‘위장 재판’ 이후 처형됐다.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지원하는 릴리즈 인터내셔널(Release International)은 소수 종교인들이 시위대에 대한 폭력 사태에 휩쓸려 갔다고 말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 11개 도시에서 실시된 급습으로 약 69명의 기독교인이 체포됐다. 한 달 전에는 또 다른 50명이 구금되었다.

가정교회에 참석하는 기독교인을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나 국가의 적으로 간

주해서는 안 된다는 2021년 11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체포는 계속되었다.

폴 로빈슨 릴리즈 CEO는 “이란의 자유 운동이 탄력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 중 가장 강력한 자유, 모든 자유의 초석은 종교와 신념의 자유”라고 말했다.

릴리즈 인터내셔널은 이란의 가정교회 운동에 참여하는 기독교인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란 당국에 모든 시민에게 완전한 신앙의 자유를 허용할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릴리즈는 “대법원이 기독교인을 국가의 적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범죄 대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고무되었다라며 “이 메



©Wikimedia Commons/Nick Taylor

시지는 아직 이란 정부의 최고위층에도 고 체포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대경 기자

## “코코 가우프의 US오픈 우승이 신앙과 가족 가치의 승리인 이유 5가지”

테니스 선수 코코 가우프(Coco Gauff, 19)가 지난 9월 2023년 US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신세계 1위 여자 테니스 선수 벨로루시의 아리나 사발렌카를 2-6, 6-3, 6-2로 꺾고 역전승을 거두었다.

가우프 선수는 또한 전국 무대에서 기독교 신앙과 가족 가치의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보도했다.

플로리다 주 보인턴 비치에 소재한 세인트 존 스코프 침례교회 교인인 가우프 선수는 경기 후 코트 옆에 잠시 무릎을 꿇고 공개적으로 기도를 드려 여러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가우프 선수는 “그냥 감사하다고 기도했을 뿐이고, 힘든 시간이 그 순간을 더욱 달콤하게 만들기 위한 것임을 이해했다”라고 했다. 그녀는 투데이 방송에서 “쉬운 일이었다면 그 순간만큼 감사함을 느끼지 못할 것 같다”라고 했다.

가우프 선수의 건전한 이미지와 신앙에 대한 헌신으로 인해 그녀는 미디어의 사랑을 받고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되었다.

하지만 이 꿈은 헌신적인 부모인 캔디(Candi)와 코리 가우프(Corey Gauff)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CP는 전했다.

결혼 재단 설립자인 해리 벤슨은 최근 출판된 ‘영국 가족 붕괴의 원인’에서 “결혼은 관계 명확성을 제공하고 희생과 용서와 같은 좋은 일을 장려한다. 이는 자



테니스 선수 코코 가우프가 지난 9월 9일(이하 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US 오픈에서 첫 그랜드 슬램 타이틀을 획득한 후 기도를 하고 있다. ©X/SportsCenter 영상 캡처

녀가 관련될 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CP가 제시한 코코 가우프의 US오픈 우승이 신앙과 가족 가치의 승리인 5가지 이유다.

**1. 코코 가우프는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ESPN 분석가이자 전 프로 테니스 선수인 메리 조 페르난데스는 지난 9월 9일 US 오픈 경기가 끝난 후 그녀에게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 물었을 때 “당신도 알다시피 그것은 매우 중요했다”라고 했다.

가우프 선수는 “나는 결과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단지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기도했다”라며 “나

는 인생에서 정말 축복 받았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했다.

**2. 그녀의 부모님은 결혼한 지 23년이 되었으며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올해 초 캔디 가우프는 자신의 우선 순위가 가족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그녀는 1월 4일 인스타그램에 “2023년 나의 테마는 FAMILY”라고 적었다. 이어 “선택한 각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와 목적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삶에서 나를 지탱해 준다는 것이다. 가족... F-Foundation, A-Action, M-Movement, H-Importance, L-Love, Y-Yield”라고 밝혔다.

**3. 캔디와 코리 가우프는 딸의 가장 큰 지지자이다.**

2019년 CBS ‘디스 모닝’에서 게일 킵과 인터뷰에서 코코 가우프 선수는 워싱턴 1라운드에서 테니스의 전설 비너스 윌리엄스를 꺾은 후 “부모님이 가장 큰 지지자”라고 말했다.

**4. 그녀는 자신의 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는 대규모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코코 가우프 선수는 전통적인 미디어 뿐만 아니라 소셜 미디어에서 존재감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목소리를 사용하여 여러 세대에 걸쳐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다. 그녀는 틱톡에서 약 60만명의 팔로워, 인스타그램에서 150만 명의 팔로워, 페이스북에서 40만명 이상, 트위터에서 36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5. 코코 가우프는 21세기 미국에서 자신의 신앙을 실천하는 완벽한 예시이다.**

코코 가우프 선수는 Z세대의 일원이다. 미국성서공회(American Bible Society)의 2023년 미국성서현황(State of the Bible USA 2023) 보고서에 따르면, Z세대 중 약 절반은 코코 가우프처럼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성경의 메시지를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

ABS의 정보 책임자인 존 파파르 플레이크 박사는 성경에서 “Z세대의 성경 참여율은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 세대는 여전히 성경의 메시지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대경 기자

## “요르단의 난민 수용능력 이미 한계 넘어”- 압둘라 국왕

인구 1100만명에 시리아난민이 3분의1 넘어 국제사회 기부금 부족으로 유엔 지원금 삭감

유엔총회에 참석한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은 19일(현지시간) 요르단의 난민 수용 능력과 난민에 대한 봉사 능력이 최근 국제사회의 지원금 부족으로 인해 한계를 이미 넘어섰다고 말했다.

압둘라 2세는 이날 유엔총회에서 연설하면서 “난민들은 모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다. 난민들은 우리 유엔 회원국들이 애초에 그들을 국외로 내쫓은 고국의 여러가지 위기를 해결해주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국왕은 현재 난민들은 국제사회의 구호에 기대어 생존하고 있는데, 최근 몇 달 동안에는 여러 유엔구호기관들이 이들에 대한 구호와 생존에 필수적인 여러 지원을 대폭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유는 국제사회의 구호기금이 극심하게 줄어들어 부족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구 1100만 명의 요르단은 난민들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넘어섰다. 최근의 구호기금 삭감으로 이미 수십 만명의 난민들의 생존이 위태로운 지경에 놓였다고 압둘라 2세는 말했다.

국왕은 요르단에 거주하고 있는 거의 140만 명의 시리아 난민들의 절반은 18세 이하 미성년자이며, 그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전부는 요르단 뿐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기본적인 필요

에 따라 식량, 에너지, 특히 식수를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요르단은 세계적인 물 부족 국가여서 지금 같은 물의 추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직면했다. 이런 물부족 사태 외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가뭄, 홍수 같은 재해까지 덮쳐 난민 구호에 큰 압박을 받고 있다”고 압둘라 2세는 호소했다.

시리아 난민들의 미래는 현재 거주하는 나라가 아닌 고국에 달려 있지만, 귀국할 수 있을 때까지는 최대한 그들을 도울 수 밖에 없다고 국왕은 강조했다.

그런데 귀국은 고사하고 최근 시리아 지역의 긴장과 내전이 고조되면서 더 많은 시리아인들이 국외로 탈출하고 있다. 요르단은 더 이상의 난민을 받아들여 돌볼 만한 능력과 자원이 없다는 것이다.

압둘라 2세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2254호에 따라 정치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시리아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그에 따른 난민 문제 등 모든 현안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요르단 내의 시리아 난민 문제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그런 날이 오기까지 요르단은 우리의 국가 안보를 해치는 다른 위기들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국왕은 밝혔다. 차미레 기자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 위태로운 기업의 기회를
  - 개인채권 매입펀드
  -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자금
- 침재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류 지형권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 OnBid(온비드)
-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을
  - 기업구조조정펀드
  - 캠코 신사금융
  - 기업구조조정지원센터(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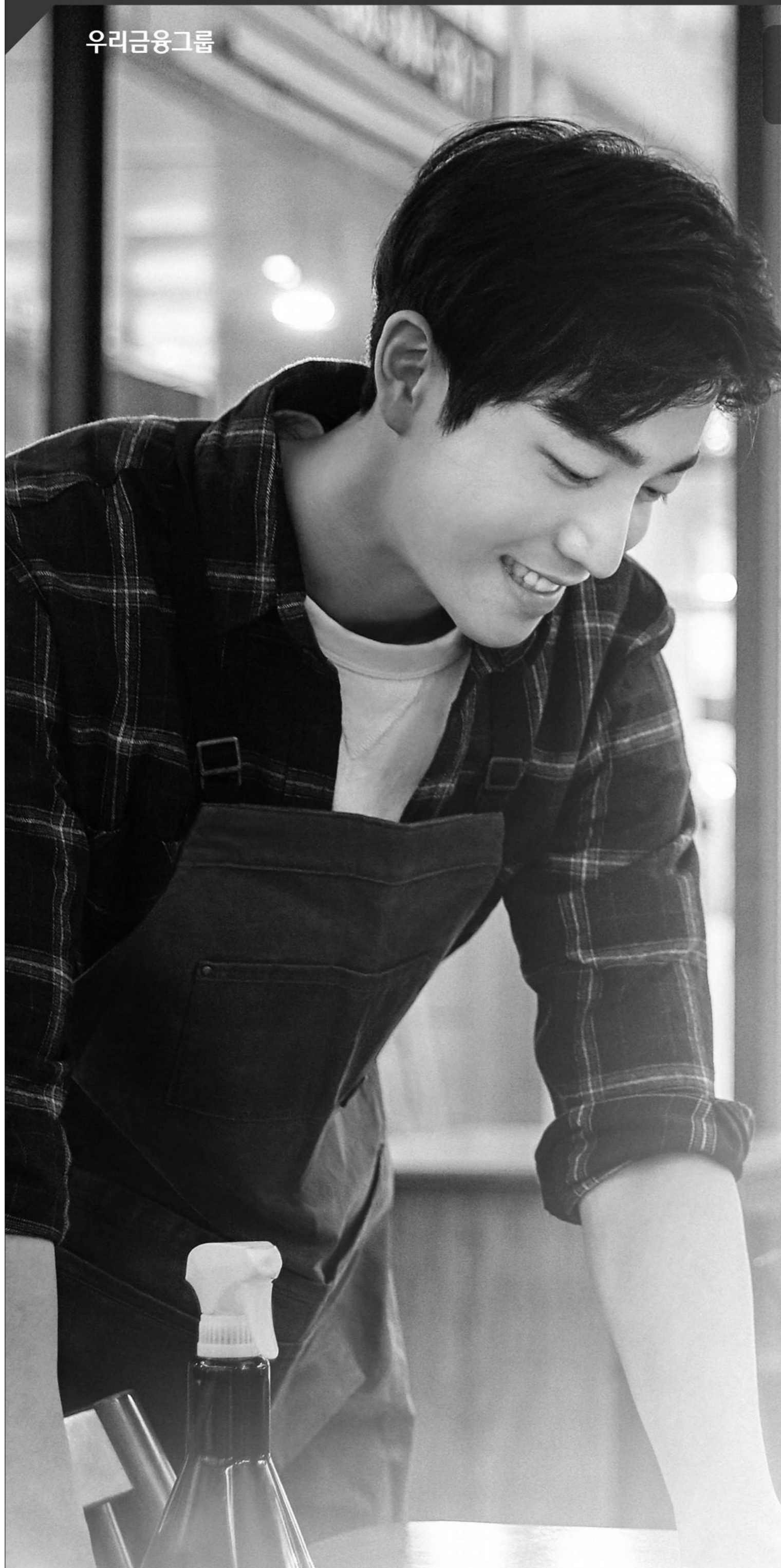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http://www.kamco.or.kr) 문의 1588-3570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우리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시대 앞에 작아지지 않을 힘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할 힘

우리가 힘을 모을수록  
우리 청년의 힘도 강해질 테니까

|우리은행 대국민 상생금융 프로젝트|

# 우리 청년에게 우리의 힘을

기대출 제한 없고, 금리까지 부담 없는

**우리 청년도약대출**



우리 청년에게 힘이 되는 우리 청년도약대출

확정금리 연 5%  
(최초 1년간)

기대출 한도 차감 없이 최대 500만원 대출 가능  
(CB등급에 따라 차등)

중도상환수수료 Zero  
우리WON뱅킹 통한 무방문 / 무서류 대출

우리WON뱅킹으로  
바로 가입하기

일반금융서비스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청년도약대출(해환출씨) : 대상은 만 34세 이하 & 연 소득 48만 원 이하, 재직기간 3개월 이상의 급여 소득자입니다. 개인신용평점 및 내부 심사 기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최대 500만 원, 대출금리는 연 5.0%입니다. 상품 가입 후, 최초 1년간 확정금리 연 5.0%가 적용되며 만기 연장 시에는 우리은행 내부 산출 금리가 적용되어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대출 가능 여부 및 최종 대출금액은 고객 신용도, 소득, 담보 방식, 보유 중인 우리은행 및 다른 은행 여신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체 이월은 적용금리 + 연 3%(최대 연체 이월은 연 12%)이며 중도상환해당금은 면제됩니다.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이자는 매 1개월 단위로 후회 납부하며 금리연체(요구권 대상 상품입니다. 단, 최초 1년간은 확정금리 적용범위로, 금리연체 요구권 제외 대상입니다. 대출 만료 시점에 고객의 신용(개인신용평점, 재직, 연 소득, 대출 현황 및 금융거래(채무 등)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상단의 대출 대상 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되거나, 대출금리 및 상환 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용가려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정 기간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으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반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제 면적 제한으로 상품의 내용 전부 표시할 수 없으므로 가입 전 상품설명서를 참조 해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 (1599-5000, 1588-5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일 2023-07-31(2023.08.11~2024.12.31)



# “지구상 어디든 간다”... 정부,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본격화

### 미국과 유럽 시장 양분... 우리도 적극 참여 의지 원희룡 장관 ‘원팀코리아’ 이끌고 젤렌스키 면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00조 시  
장으로 추산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 장관은 최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  
넨탈 호텔에서 열린 ‘GICC 2023(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에서 “정부는 내년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의 지원 예산  
과 ODA(공적개발원조) 예산을 대폭 확대  
하기로 결정했다”며 “우리나라는 우크라이  
나 재건 사업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  
혔다.

원 장관은 또 “첨단 건설·스마트 시타  
친환경 등 미래를 향하는 각국의 노력을  
우리가 이끌고 도울 수 있다”며 “인프라  
협력을 위해서라도 지구상 어디든 갈 준  
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향후 10년 간  
1조 달러(약 1200조원)에 이르는 규모로  
추산된다. 제2의 마셜플랜으로도 불리는

막대한 규모의 사업인 만큼 재건 사업을  
위한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전쟁 이전 수준으  
로 도시를 되돌리는 것을 넘어 시스템 전  
면으로 재건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도약을 꿈꾸고 있어 우리나라에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시장 선점을 위  
해 치열한 물밑 작업에 나선 가운데 우  
리나라 정부도 이 시장 참여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전명한 상태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정상회담  
을 가진 데 이어 지난 13-14일 원희룡 국  
토부 장관이 18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들로 꾸린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대표단  
을 이끌고 카이우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  
통령과 면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전후 재  
건 프로젝트를 논의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뒷줄 왼쪽)이 최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2023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ICC)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특별세션에서 한국·폴란드·우크라이나 건설협회 간 양해각서 체결 중 드미트로 포도마렌코 주한우크라이나 대사사와 대화하고 있다. ©뉴스시스

대표단은 이번 방문에서 가장 시급한  
카이우 교통 마스터플랜, 우만 시 스마트  
시티 마스터플랜, 보리스필 공항 현대화,  
부차 시 하수처리시설, 카호우카 댐 재건  
지원, 카이우-폴란드 등 철도노선 고속화

등 6대 선도사업을 선정했다. 또 3억달러  
무상지원과 함께 총 23억달러의 EDCF  
공여협정을 체결했다. EDCF는 우리 정  
부가 개발도상국 정부에 장기저리로 빌  
려주는 자금으로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사업 착수 여건을 마련한 셈이다.

원 장관은 전쟁을 겪고도 빠른 경제 성  
장을 일궈 낸 우리나라의 경험과 기술력  
이 우크라이나에 전반에 우호적인 여론  
이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카이우를 찾  
은 한국 재건협력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원전, 방산, 자원개발, 재건 등 4대 분  
야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 전쟁과  
단기간에 경제가 성장했던 경험이 있어서  
우크라이나가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나라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이런  
제 얘기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지도자들  
이 하는 얘기로 설명했다.

이런 점 때문에 우리나라가 우크라이  
나의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게 원 장관  
의 설명이다. 원 장관은 “한 시간 가량 젤  
렌스키 대통령과 전후 구상과 의지를 들  
어보니 왜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와 긴  
밀하게 협력하고 싶어하는지 잘 이해하게  
됐다”며 “아직도 전쟁 중이고 전 국토가

초토화 되는 전쟁을 겪으면서도 전쟁  
이전보다 훨씬 더 번영을 누리고 있는 우  
리나라가 롤모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또 “우리나라는 인프라, 정  
보통신, 스마트 시티 등 우크라이나에 투  
입될 수 있는 미래형 기술을 모두 패키지로  
갖춘 나라이기도 하다”며 “게다가 우리  
기업들이 솔루션을해서 건설기계를 무  
상으로 기증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우  
호적인 여론이 급상승하고 있었다”고 말  
했다.

전문가들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건설, 전력기기, 기계, 원전 등 우리나라  
기업에 상당한 사업 기회로 작용할 수 있  
다고 분석한다. 키움증권 김지산 리서치  
센터장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자금  
지원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이 양  
분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한국 정부  
역시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드러내고 있  
고 국내 기업들은 과거 이라크전, 아프가  
니스탄 내전 등 전후 복구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강세훈 기자

## 대통령실, 문 겨냥 “굴종적으로 한산한 게 평화는 아냐”

대통령실은 2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 비판에 대해 윤 대

통령 발언을 인용해 “굴종적으로 걸로  
봤을 때 한산한 게 평화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현지시

간 19일) 미국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에서 “어떤 게 믿음직스러운 평화인가, 있  
는 그대로 수치를 보여줄 수 있는 경제나  
그것으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전날 9·19 평양공  
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기념식에 참석해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  
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  
는 벗어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서해교전에서 이긴 장교들을 퇴진시킨  
어디없는 일도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1차 핵실험, 문 전 대통령 때 핵과 미사  
일이 가속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북한에 불리  
한 감시정찰자산, 공군 기동력을 위축시  
킨 게 9·19 합의”라고 비판했다.

9·19 군사합의의 파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9·19 합의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이 공공연히 어겼고, 현 시점에서는  
여러 문제점을 직시하고 관찰하고 있다”  
며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할지 지켜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던 모습. ©뉴스시스

나중에 판단하겠다”고 여지를 뒀다. 양소리 김승민 기자

## 윤미향 2심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의원직 상실형

### 횡령·사기·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후 원금 횡령 등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나오는 모습. ©뉴스시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  
용주·한창훈·김우진)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해 1심과 달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A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제 보조금 사업에 진행된  
사업비를 초과해 사업비가 청구돼 불필  
요한 국가 재정 지출이 초래됐다”고 밝  
히고, “피고인들의 보조금 신청에 기만과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인정됐다”고 판  
시했다.

이어 “윤 의원은 누구보다 기부금을 철

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  
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며 “시민과 한국정  
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큰 피해를  
끼쳤고 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  
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

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  
법 위반 등 6개 혐의, 8개 죄명으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그는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 사  
이 위반부 피해자 김원옥(95) 할머니의  
신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원을 기부·증  
여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금액에는  
김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  
억원 중 5000만원도 포함된 것으로 검찰  
은 보고 있다.

하지만 1심은 지난 1월 검찰이 적용한  
윤 의원의 혐의들을 대부분 무죄로 판단  
하고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  
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  
면서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  
상실하게 된다. 현역 국회의원은 공직선  
거법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상실  
하게 된다. 박준현 기자

## ‘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건, 대전지검이 수사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 의  
뢰한 사건 수사를 대전지검이 맡는다.

대검찰청은 20일 “감사원이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  
을 19일 대전지검으로 배당했다”고 밝혔  
다.

앞서 감사원은 부동산 시장 과열로 여  
론의 못매를 맞던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  
까지 최소 94회 이상 국토부 산하 한국  
부동산연구원(한국감정원)에 부당한 영향  
력을 행사해 통계수치를 조작했다는 조  
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전국주택  
가격 동향조사’ 통계치를 국토부가 공표  
전 입수해 청와대 입맛에 맞게 바꿨다는

계 감사원의 설명이다.

통계법은 통계작성 기관이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  
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부동산 대책이 이어지는 동  
안 청와대에서 지속적으로 통계 조작 지  
시가 내려졌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장하성·김수현  
·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  
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을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  
사 요청했다.

대검은 “통계청이 대전 지역에 있고, 관  
련자들도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대전지검 배당 사유를 설명했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처장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수사요청 관련 발표를 하던 모습. 감사원은 감사결과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 작성기관인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서술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뉴스시스 하종민 기자

KB금융그룹 | **세상을 바꾸는 금융**

나, 우리, 모두가 바라던 카드를 만날 시간

KB국민 WE:SH 카드  
My WE:SH / Our WE:SH / WE:SH ALL

time to WE:SH

■ KB국민 WE:SH All 카드 연회비: 일반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겸용(MSA)) 2만원(기본연회비 7천원 + 제휴연회비 1만3천원), 모바일 단독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겸용(MSA)) 1만4천원(기본연회비 1천원 + 제휴연회비 1만3천원) ■ KB국민 Our WE:SH 카드 연회비: 일반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겸용(Mastercard)) 1만5천원(기본연회비 7천원 + 제휴연회비 8천원), 모바일 단독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겸용(Mastercard)) 1만5천원(기본연회비 7천원 + 제휴연회비 8천원) ■ KB국민 My WE:SH 카드 연회비: 일반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겸용(Mastercard, AMEX)) 1만5천원(기본연회비 1천원 + 제휴연회비 8천원) ■ 연체이자율: 회원별 / 이용상품별 정상이자율 + 3%, 최고 연 20% 이내 ※ 단, 연체발생시점에 정상이자율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지자 할부수수료를 적용 - 무이자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시점의 동일한 할부기간의 유지자 할부수수료를 적용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절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금 보유 등)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연신금융업의 심의필 제 2023 - C2b - 01317호 (2023.02.17 ~ 2024.02.16)

KB국민카드

# “형법 낙태죄 정리 없이 모자보건법 개정 논의 안 돼”

행동하는프로라이프 등 단체들, 기자회견서 주장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소속 62개 시민 단체들과 사단법인 프로라이프가 낙태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했다. 이들은 “최근 언론에 따르면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9월 20일에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논의했다며 ‘형법의 낙태죄 정리 없이 모자보건법의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의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하고, 국회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형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후 낙태죄를 다루는 형법 개정안 6건과 낙태 허용범위 등이 담긴 모자보건법 개정안 8건이 발의되었지만, 국회는 개정시한을 넘겨 버렸고 21대 국회가 거의 끝나가는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라고 했다.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시민단체 회원들의 모습.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이들은 “국회는 지난 4년 동안 낙태에 대한 입법 의무가 없는 것처럼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소극적으로나마 태아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마저 외면한 채 출생통보제만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현재 대체 법안을 마련하지 않는 국회의 직무유기로 인해 태아의 생명을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법적 가

이드가 없어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21대 국회의 폐회와 함께 낙태죄를 둘러싼 논란은 장기적인 미궁으로 빠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러한 국회의 안일한 태도는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치 권력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을 뿐”이라며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측과 태아생명보호를 주장하는 측의 팽팽한 대립을 보면서 어느 쪽의 편을 들어주어야 표를 얻을 것인지, 아니면 표를 잃게 될 것인지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단체들은 “내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먹는 낙태약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형

법에서 낙태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은 채 어떻게 모자보건법에서 먹는 낙태약을 다룬다는 것인지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땅에 태어날 태아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며, 지켜야 할 국가적 양심”이라며 “국회는 모자보건법 개정에서 앞서 형법의 낙태죄를 먼저 정비하라”고 했다. 이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는 태아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동시에 여성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올바른 법과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태아가 죽으면 대한민국도 죽고, 태아가 살아야 대한민국도 산다. 21대 국회가 생명을 살리는 입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 ‘최대 5억’ 문제 판 교사들 수사선상 일타강사·유명학원도 엮이나

교육부, 자진신고 통해 적발한 24명 수사당국 넘겨

사교육 업계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예상문제를 판매한 교사들이 과거 수능·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나며 교육계 파장이 만만치 않다. 업계에서는 소위 ‘일타강사’나 대형 입시학원의 형사 처벌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사교육업체에 수능 예상문제를 판매하는 등의 영리 행위를 자진 신고한 현직 교사 322명 중 최소 24명이 수능 본시험 또는 모의평가 출제위원·검토위원으로 활동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이 중 출제 참여 전에 사교육 업체와 거래했던 4명에 대해 수능 업무를 방해(업무방해) 등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1명은 모의평가 출제만 참여했고, 3명은 모의평가와 수능 출제에 관여했다.

수능·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하려면 서약서를 써야 한다. 또 당국의 자격 심사 과정에서 최근 3년간 수능 관련 상업용 수험서 집필 등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교육부는 해당 교사 4명이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수능·모평 출제에 참여한 이후 문제를 판매한 22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정탁금지법)에 따른 ‘금품수수 금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출연기관법)상 ‘비밀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

로 했다. 이 중 2명은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교사들이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진이 출제 기간 알게 된 모든 사항을 비밀로 하겠다고 서약하는데 이를 어기고 문제를 판매한 만큼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해당 교사들이 문제를 팔며 1인당 최대 5억 원에 달하는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현직 교사들에게 문제를 사들인 것으로 의심되는 사교육업체 21곳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 중에는 ‘일타강사’로 불리는 유명 학원 강사 개인이나 다수의 계열사를 거느린 유명 대형 입시학원이 포함됐다.

사교육 업계에서는 이번 수사를 통해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가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016년 수능 국어 유명 강사 A씨가 현직 교사 2명에게 수능 6월 모의평가 출제 지문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9개의 학원에서 강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후 현재 강단에 복귀했다. ‘일타강사’라 불리는 강사들은 움직임 만으로도 주가가 요동치기도 한다. 이적을 놓고 역대 소송전이 벌어지는 일도 많다.

한 사교육 업계 관계자는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제를 사들인 개인 강사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모의고사 문제집을 제작할 수준의 유명 강사일 가능성이 높다”며 “학원 중에서는 대형 학원이 많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는 “사교육 입장에서 과하다며 억울할 수 있겠지만 수능 출제 이력을 숨거나 이용한 부분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그간 교사가 사교육에 모의고사 문제를 내는 것에 대한 죄의식이 사실 없었는데, 죄를 묻게 되면 학원·강사·교사 모두 경각심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부는 전날 ‘유명’ 강사나 학원이 포함됐음을 밝히면서도 연루된 업체가 어디인지, 강사는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았다.

입경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도 전날 브리핑에서 “수사 권고 규칙에 따르면 업체명이라는 개인명은 비실명 조치하도록 돼 있다”며 “(검찰에 송치하더라도) 명백하게 공개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수사 과정에서 문제를 사고 팔기 위해 사교육 업계에서 교사들을 암암리에 어떻게 관리했는지 드러날지도 관심이 다.

교육부는 앞서 7월에도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집중신고 결과,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출제 경험에 있는 현직 교사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해 왔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그간 출제 당국이 수능 출제나 검토에 참여한 위원 명단을 공개한 적이 없었다. 때문에 사교육 업계에서 지인과 학원 등을 총동원하거나 교역의 금품을 주고 예상문제나 소위 ‘족집게 문항’, ‘킬러 문항’ 제작을 의뢰했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수사 과정에서 수능 본시험에 출제됐던 문제가 유출됐거나 사교육 업체에 판매된 문제가 수능 문제와 유사했던 것으로 드러날 경우 논란은 더 커질 수 있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자진 신고 내역을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 시험까지 수능과 모의평가(연 2차례) 출제·검토위원 명단과 대조했다. 이번엔 고소·수사의뢰되는 교사들이 참여했던 시험이나 연도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교육부는 수능 출제 과정에 있어 위원 1명이 전권을 갖고 단독으로 문제를 만드는 구조가 아니라 다수의 위원이 문항을 수차례 검토하는 형태라, 특징인이 사교육 업계와 결탁해 출제하려고 작정해도 수능과 모의평가에 그대로 출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김정형 김경록 기자

#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 유통처방 “5년간 약 3000건”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일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 의료용 마약 처방량은 3만 8778건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을 처방한 의사는 1218명, 처방환자 수는 1191명, 처방건수는 3010

건이었다. 그러나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를 의뢰받은 건수는 단 35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 명의로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는 총 39개 항목으로 알려졌다. 이 중 상위 5개 항목은 ▲알프라졸람(7231건) ▲졸피뎀(6368건) ▲클로나제팜(5970건) ▲로라제팜(3286건) ▲펜타미드라진(3063건)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주로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통

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조제·투약 의심 사례를 추출해 실제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가 조제·투약됐는지 지자체 보건소와 연계해 점검할 수 있다”며 “이를 방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망자 명의를 도용하면서까지 마약류를 처방하고 받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당국은 사망자 명의 마약류 처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통해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황재희 기자



서울 대치동 학원가 모습(자료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뉴시스

준법감시필 2022-11

**푸른씨앗심고! 희망 미래 열고!**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대한민국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선택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가입자 10,000명 돌파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 및 근로자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퇴직급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주에게 좋은 점**

- 사용자부담금 지원 :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지원합니다.
- 보다 낮은 수수료 : 0.2% 이하의 낮은 수수료를 책정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낮춥니다.
- 쉽고 간편한 가입절차 : 퇴직연금 가입 시 복잡한 절차(규약서, 운용·자산관리계약서 등)가 표준계약서 하나로 해결됩니다.
- 법인세(사업소득세) 절감효과 : 사용자부담금 납입액이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손급 및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 분할적립하여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 퇴직금을 분할하여 사외 적립하도록 장기근속에도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좋은 점**

- 공적 기금형 퇴직급여제도 :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합니다.
- 안전한 노후보장 : 퇴직급여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사외적립되어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받습니다.
- 안정적인 수익률 추구 : 공동으로 조성된 기금을 바탕으로 노사정 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수익률을 관리합니다.
- 믿을 수 있는 투자사결정 : 근로자 선택을 대신하여 노사정 대표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공정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진행합니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콜센터 1644-0083    검색창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를 쳐보세요!

# 인도 법원 “성경 배포, 불법적 개종 유인 아냐” 판결

인도 고등법원이 성경 배포, 어린이 교육 및 선한 가르침을 제공하는 활동이 우타르프라데시 주의 개종금지법이 정의하는 ‘유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 결정은 알라하바드 고등 법원의 사법 아메드 판사가 호세 파파첸과 그의 아내 시자의 항소를 검토한 후에 내린 결정이다. 이들은 올해 3월, 지정 카스트(Scheduled Castes, SC) 및 지정 부족(Scheduled Tribes, ST)과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는 특별 판사에 의해 보석 신청이 기각되었다.

파파첸과 시자는 지정 카스트 및 지정 부족 공동체의 주민들을 기독교로 개종하도록 유인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들

은 우타르프라데시 불법 종교 개종금지법(2021년)과 지정 카스트 및 지정 부족(폭력 행위 방지법)에 따라 그들에 대한 최초 정보 보고서(FIR)가 제출된 지난 1월 24일부터 구금돼 있었다.

이 보고서는 우타르프라데시 주의 암베드카르 나गर 지역 내의 인도 인민당(BJP)의 당원인 지라 만타가 제기한 불만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우타르프라데시 주의 개종금지법은 ‘유인(Allurement)’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누군가를 개종시키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한다. 유인에는 선물, 만찬, 돈, 고용, 명성 있는 종교 학교의 무료 교육, 개선된 생활 방식 또는 신성한 은혜 등의 형태로 유혹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지역 검찰은 파파첸과 시자가 기독교

국가를 수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기독교로 개종하도록 심리적 압박과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유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라 만타는 이들의 개종 시도로 인해 공동체가 “불쾌해 했다”고 했다.

경찰 조사 중에 마을 주민들로부터 수집된 증언에 따르면, 파파첸과 시자는 지역 사회에 윤리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성경 책을 배포하며, 아이들의 교육을 장려하고, 싸움과 음주를 금하도록 권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진술을 바탕으로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은 두 사람의 활동이 개종금지법에 따른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파파첸과 시자에 대한 보석을 승인했다.

아메드 판사는 또한 개종금지법이 피

해 당사자나 그 친척만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며, 지라 만타의 최초 정보 보고서를 무효화한다고 판결했다.

우타르프라데시 주 의회는 2020년에 집권 여당이 ‘사랑의 지하드(Love Jihad)’라고 부르는 개종 시도를 막기 위해 개종금지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불법 개종 또는 그 반대의 목적으로 실시된 결혼”을 범죄화하여, 종교가 다른 커플이 함께 모여 결혼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었다. 특히 우의 힌두교 단체들은 이러한 결혼을 방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으며, 그 결과 일부 무슬림 남성들은 그들의 배우자가 관계와 개종에 자발적으로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처벌을 받아 왔다.

유진 김 기자



인도의 기독교 신자들이 십자가를 손에 들고 행렬을 지어 걸어가고 있다. ©디스 이즈 크리스천 아시아리아 페이스북.

# 각국 정상, 유엔 총회서 러 침공 비판… “야만적 행동 책임 물어야”

19일(현지시간) 유엔총회가 개막한 가운데 각국 정상들은 첫날 일반 토론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AP통신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설에서 러시아의 침공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방위를

지원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미래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크고 작은 모든 국가에 동등하게 적용되고 중요시하는 주권과 영토 보전의 기본 유엔 규약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전달하는 외교적 해결책을 이끌어내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노력

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며 “러시아만이, 이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러시아만이 이 전쟁을 즉시 끝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평화를 가로막는 것은 러시아뿐”이라며 “평화를 위한 러시아의 대가는 우크라이나의 항복, 우크라이나 영토, 우크라이나의 아이들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바이든은 특히 “우크라이나가 ‘분할’되도록 허용된다면 유엔의 어떤 회원국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오늘 이러한 적나라한 공격에 맞서야 하며, 내일 다른 침략을 도모하는 자들을 저지해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전 세계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주권과 영토 보전, 그리고 자유를 수호하는 용감한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함께 계속해서 함께 서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나치 독일과 소련에 의한 제2차 세계 대전의 점령과 자국의 분할에 비유하고 세계에 러시아의 야만적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두다 대통령은 “폴란드는 독립을 잃었고, 세계 지도에서 지워졌고, 극도로 잔인한 점령을 당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비극을 그 어떤 나라보다 더 잘 이해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탈에 올려놓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쟁에는 승리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영토 보전을 바탕으로 외교와 대화를 통해 종전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유엔총회에 직접 참석한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세계 지도자들에게 러시아 침공의 목표는 “우크라이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는 오늘 이러한 적나라한 공격에 맞서야 하며, 내일 다른 침략을 도모하는 자들을 저지해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전 세계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주권과 영토 보전, 그리고 자유를 수호하는 용감한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함께 계속해서 함께 서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나치 독일과 소련에 의한 제2차 세계 대전의 점령과 자국의 분할에 비유하고 세계에 러시아의 야만적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두다 대통령은 “폴란드는 독립을 잃었고, 세계 지도에서 지워졌고, 극도로 잔인한 점령을 당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비극을 그 어떤 나라보다 더 잘 이해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강도로부터 자신의 집을 지키는 집주인”으로 비유하면서 “우크라이나 자신의 방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두다 대통령은 “오늘 희생자는 우크라이나이며 내일은 우리 중 누구라도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루이스 아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러시아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유엔이 신뢰를 잃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취약성을 “영토 확장이나 정권 교체를 목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전쟁을 벌이는 상임 이사국들의 행동의 구체적인 결과”라고 비난했다. “그러한 (안보리의)마비는 안보리를 개혁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도 했다.

비록 룰라 대통령은 명확한 비교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발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비교된다는 가정을 열어둔 것이라고 가디언이 보도했다.

룰라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 참석한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20일 별도 회동을 갖기로 했다. 지난달 룰라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젤렌스키나 푸틴 대통령 모두 평화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룰라와 젤렌스키는 브라질이 평화를 촉구하고 러시아에 군대 철수를 요구하는 유엔 결의안에 투표한 후 지난 3월 화상 회화를 했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중재 역할 부각했다. 그는 “튀르키예는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협상 태

이탈에 올려놓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쟁에는 승리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영토 보전을 바탕으로 외교와 대화를 통해 종전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유엔총회에 직접 참석한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세계 지도자들에게 러시아 침공의 목표는 “우크라이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세계 식량 공급을 무기화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탄약과 군사 장비 외에도 러시아는 식량 공급과 같은 다른 많은 것들을 무기화하고 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러시아의 흑해 항구 봉쇄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식량 곡물 운송이 어려워지고 식량 가격 상승이 세계 기아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사례를 들어 “러시아가 식량 가격을 무기화하고 있다”며 “그 영향은 아프리카 대서양 연안에서 동남아시아까지 이어진다”고 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어린이 납치 사건을 거론하며 “집단학살”이라고 규탄했다.

박준호 기자

# 美·EU, 히잡시위 촉발 ‘아미니 의문사 1년’ 對이란 제재 내놓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이란 도덕경찰에 구금된 채 사망한 22세 마흐사 아미니의 기일을 맞아 “이란의 가장 지독한 인권 유린자들”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제재를 발표했다. AP통신이 보도했다.

아미니는 공공장소에서 이란 여성의 히잡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과 관련해 히잡을 느슨하게 착용했다는 이유로 체포됐고, 3일 후 경찰에 구금된 상태에서 사망했다.

그녀의 죽음은 8000만의 인구를 가진 이란의 전역에 걸쳐 젊은 여성들이 거리를 행진하고 공개적으로 그들의 머리카락을 노출시키고 자르는 등 시위를 촉발시켰다. 이란 정부는 시위를 외국의 간섭 탓으로 돌리며 강력한 진압으로 대응했다.

대통령 선거 부정에 항의해 일어난 대규모 반정부 시위인 2009년 ‘녹색 운동’ 이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들어 이란에 가장 심각한 도전 중 하나를 안겨준 아미니는 시위에서 여전히 강력한 상징으로 남아 있다.

바이든은 15일 “미국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이란의 용기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회복력과 결의로 세계에

영감을 주고 있다”며 “우리는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서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날 아미니의 죽음과 관련해 이란 정부 보안군과 이란 교도소 조직의 수장을 포함한 29명의 인물과 조직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또한 아미니의 사망과 관련해 이란의 준군사조직인 혁명수비대와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는 반관영 파르스 통신과 타스님 통신, 이란 국영방송 프레스TV도 제재했다. 이란 반관영 ISNA 통신은 호세인 아미르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의 이란 제재를 ‘농담’으로 일축했다고 보도했다.

아미르압둘라히안 장관은 “미국이 요즘 이란에 가하는 제재는 농담에 가깝다”며 “때때로 우리는 몇 년 전 사망한 사람들의 이름이 이 명단에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타스님 통신은 이번 제재에 대해 “국가 안보를 지키는 기관들에게는 새로운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반복적인 행동”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미 국무부는 이와 함께 이란 전역의 인터넷 차단을 통해 평화 시위대를 살해하거나 구금하거나 검열하는 데 관여한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이란 도덕경찰에 구금된 채 사망한 22세 마흐사 아미니의 기일을 맞아 “이란의 가장 지독한 인권 유린자들”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제재를 발표했다. AP통신이 보도했다.

아미니는 공공장소에서 이란 여성의 히잡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과 관련해 히잡을 느슨하게 착용했다는 이유로 체포됐고, 3일 후 경찰에 구금된 상태에서 사망했다.

그녀의 죽음은 8000만의 인구를 가진 이란의 전역에 걸쳐 젊은 여성들이 거리를 행진하고 공개적으로 그들의 머리카락을 노출시키고 자르는 등 시위를 촉발시켰다. 이란 정부는 시위를 외국의 간섭 탓으로 돌리며 강력한 진압으로 대응했다.

대통령 선거 부정에 항의해 일어난 대규모 반정부 시위인 2009년 ‘녹색 운동’ 이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들어 이란에 가장 심각한 도전 중 하나를 안겨준 아미니는 시위에서 여전히 강력한 상징으로 남아 있다.

바이든은 15일 “미국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이란의 용기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회복력과 결의로 세계에



마흐사 아미니 ©영국 가디언 뉴스 보도화면 캡처

란 관리 등 13명에 대해 비자 제한 조치를 내렸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란 정권의 전국적인 시위 진압과 관련해 미국은 이란인 25명과 국영 언론 3곳, 인터넷 조사 업체에 대해 이 같은 비자 제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영국, 캐나다, 호주 등과 협력해 이란의 시위 진압에 대응한 미국의 13번째 제재조치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국제 파트너들과 함께 이란인들의 인권 행사를 억압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적절한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아미니 사망 기일을 맞아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고위 간부들을 포함한 4명의 관리에 대한 자산 동결 및 여행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박준호 기자

# “목양 관계 안에서의 영혼 섬김이 없다면... 중요한 것 잃어”

[인터뷰] 한길교회 고광선 목사

LA코리아타운에 어느 정도 적을 두고 살아온 사람들, 코리아타운을 방문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교회가 있다. 바로 피코 대로와 사우스 노턴 에비뉴에 위치한 한길교회이다. 이민교회 안에서 유례를 찾아 보기 어렵게 세계로교회와 헤브론교회가 함께 통합해 '한길교회'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한 이 교회는 말씀의 바른 토대 위에 교회를 세우고자 노력해 온 교회로 알려져 있다.

지난 4월 30일 한길교회는 위임예배를 드리며 공식적으로 고광선 목사의 리더십 아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고광선 목사는 한길교회를 '말씀의 토대가 잘 세워진 교회' 이면서도, 동시에 '일반적인 한인교회 안에 나타나는 어려움도 갖고 있던 교회'라고 소개했다.

또한 한길교회 사역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 교회 생태계의 회복'이다. 한길교회에서는 중보기도 헌신자 60여 명이 기도도 섬기고 있는데, 이들의 기도제목은 교회의 공동체 울타리를 넘어 지역교회가 다 함께 건강하게 세워지고, 지역 사회가 변화되는 데까지 이른다.

"60여 분의 중보기도 헌신자들이 교회의 다양한 사역뿐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 나라,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저희가 특별히 기도하는 것 중의 하나는 한길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 교회의 생태계이다. 한 교회가 지역 교회와 사회의 도움 없이 한 성도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가는 게 쉽지 않다. 지역 교회 전체가 함께 건강하게 세워져야 한 영혼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커뮤니티 불락 파티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를 섬기고 있다."

이를 위해 성탄절 전날인 23일 지역 커뮤니티와 '참여하고 싶어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교회들과 함께 메시아 연주를 준비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길교회는 강해설교, 말씀 중심 사역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5일(금), 한길교회 목양실에서 만난 고광선 목사는 한길교회의 성경공부 교재들을 책상 위에 준비해 놓았다. 그 중 '은혜의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교재는 개혁주의 핵심 5대 교리(TULIP)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으로, 교회의 핵심 리더십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 그뿐 아니라 '라브리 강좌 등을 통해 성도들의 영적 필요를 공급한다. <화평한 가정 만들기>는 30-40대 '다리놓는공동체' 수련회를 위해 제작한 교재이다.

또한, 이 교회는 총 3년 과정인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 교인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강사진으로 이승구 교수, 김연수 선교사 같은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현장과 줌으로 진행한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러나 고 목사는 그는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귄 없이 지적인 만족에 머무는 신앙을 경계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사귄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의 신앙 성장의 중요한 요소는 누군가의 영혼을 함께 양육하고, 목양 관계안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섬기는 경험이 없으면 신앙에서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친다. 제가 한길교회 와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함께 바꿔야 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한길교회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는 성도분들이 많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예배 안에서 설교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누리는 것에서 자족하는 정도에 머물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놓친다."

"한길교회가 도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나눌 수 있고 그 복음을 나눌 영혼을 잘 양육하고, 그 영혼을 책임질 수 있고, 그 영혼을 위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십자가의 도를 삶으로 살아내는 자리까지 가야 성숙한 교회라고 생각한다."

◆복음 강요할 수 없어

그러면서도 교회가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강요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규칙과 규율을 가지고 성도가 복음을 살아내도록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와 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진 자들은 그 은혜의 복음이 삶을 바꿔 낸다고 생각한다. 그 은혜가 삶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어서 나를 변화시켰듯, 누군가를 변화시켜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면 삶의 변화는 따라온다."

해방 이후 남한에 설립된 남산장로교 신학교(과경화 되기 이전의 조선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신 할아버지, '70년대 한국 엑스플로(Explo)집회' 훈련 교재들을 유산으로 남겨주신 증조 할아버지, 그렇게 4대째 신앙을 해왔음에도 어린 시절 부모님이 아픔을 겪는 과정을 지켜보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싹트고 그러다 교회를 떠났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그를 다시 교회로 이끌었다.

말씀을 묵상하며 첫사랑 같은, 주님과 친밀한 사귄을 경험한 그는, 이후 철원에서 군복무를 하던 20대 무렵, 40대 초반의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영혼을 빚어 가시는 고귀한 통로로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깊이 체감하고, 목회자의 소명을 확신했다.

◆20대 청년의 가슴에 꽃인, 젊은 목회자의 한 마디, "크건 작건 진실한 목회자 되라"

"사실은 저는 캠퍼스 사역을 하고 싶었다. 후배들 계속 양육하고 가르치고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살고 싶었다. '평생 이 일만 해도 행복하겠다' 싶었다. 그런데 철원에서 군복무를 할 때, 철원 부대에 부임하신 40대 초반의 젊은 목사님이 20대 초반의 저에게 말씀하셨다. '광선 형제, 목회자가 되면 좋겠는데 크고 작고에 관계없이 진실한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젊은 목회자의 한 마디가 그의 가슴에 꽃혔다. 20대 초반 그의 내면에는 '그래도 큰 사역을 하고 싶다'는 내밀한 욕망이 있었던 것. 그런데 '진실한 목회자'라는 그 말이 반향을 일으켰다. 그 한 마디는 세월을 가로질러, 그의 사역을 관통하고 있었으며, 그가 나는 모든 이야기 속에 흐르고 있었다.

"낮에는 소총수로, 저녁에는 대대군장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교회가 조금씩 막사로 되어 있었다. 그 추운 지역에 건물 안에 열음이 일 정도로 열악한 가건물로 지어진 곳이었다. 그곳에서 군중 병들과 부대 교회 건축을 위해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나중에 교회를 지어주는 사역을 하는, <군복음화후원회>에 선정되어서 서울의 한 교회에서 교회를 지어주셨다. 동료 군중들과 벽들을 옮기며, 서로의 연합함을 고백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어머니로서의 교회의 역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나'를 경험하게 되었다."

◆"은혜의 흔적들, 교회 안에 고스란히... 교회는 이것 전하는 통로"

그는 한 사람이 온전하게 길러지는 것은 교회를 떠나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말한다.

"교회 안에서 어린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은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어 가시는 은혜의 흔적들이 교회 안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영혼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이 목회자로서 너무 감사하다."

고 목사는 얼마 전 어르신 한 분의 임종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의 사명을 묵상했다. 이민생활 내내 한결같이 신앙생활을 해온 어르신의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그는, 영혼의 아름다움을 목격했다. 그는 이 믿음의 고



한길교회 고광선 목사 ©주디 한 기자

백이 이민 2세, 3세에게 전하지길 바라며,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매개체, 통로는 교회"라고 말한다.

◆한국교회 사역과 이민 교회 사역을 비교한다면

"사람에게 상처가 있으면 상처의 아픔 때문에 누군가 사랑으로 다가갈 때, 그것을 밀어낸다."

그는 이민교회 목회의 특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한국 교회의 사역은 목회자와 성도가 목양관계 안에서 마음을 나누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고 쉬웠다면, 이민교회 안에서는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진정성이 전해지기까지 좀 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그러나 그 진정성이 전해지면,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깊게 나누게 되는 것이 이민교회 성도들이라고.

그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빚어지는 갈등의 요소,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분쟁과 아픔에도 결국은 하나님에 교회의 궁극적인 주인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밖에 없다"며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가 사역을 하면서 기대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는 교회, 성령께서 주관하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교회를 함께 섬기고 싶다. 그것은 어떤 탁월한 소수의 목회자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인프라 때문도 아니다. 영혼이 변화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다.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겠는가? 제가 은혜의 복음을 강조하는 것은, 복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다린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야만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한길교회도 여타의 이민교회와 마찬가지로 세대와 성향에 따른 갈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그럼에도 고 목사는 갈등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라고 본다.

"선배 장로들께서 화평한 교회로 바뀌어 기도할 때 애쓰고 계시다. 피스 메이커 사역을 통해 교회 안에서 갈등을 성경적으로 해결해 가는 화평의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 교회 내의 갈등의 요소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면, 한길교회가 이민교회 안에 건강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믿음의 유산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한길교회가 기대하고 꿈꾸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화평한가정 만들기>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단순히 피스메이커 사역을 다 이 수했다고 피스 메이커가 되는 게 아니다"라며, "제가 경계하는 것은 '그게 또 하나의 계급장이 되는 것이다. 좋은 훈련과정을 이수했다는 것이 또 다른 자기 의가 되어서는 안된다.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은혜의 복음이다'라며 다시 한번 개혁교회의 전통, '오직 은혜로만'을 강조했다.

고 목사는 학부 때 철학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철학을 공부하게 된 것은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공부한 것이다. 철학을 처음 공부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요한복음 수가성 여인처럼, 목마른 저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스탄티우스 2세 통치 말에는 제국 인구의 거의 절반(1/2)이 교인이 되었다. 이처럼 로마 교회가 국교화되면서, 크리스텐덤(christendom), 기독교 사회로 바뀌어져 가던 시기가. 오히려 교회가 세속화의 길로 접어들게 된, 복음의 능력을 잃게 된 결정적 시점이라고 본다. 기독교 사상사를 공부하면서, 오늘의 기독교가 쇠락하게 된 부분들을 거울로 삼아서 보게 된다. 기독교 사회를 기대하며, 교회가 힘의 논리, 교세,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속에서 어떤 면에서 복음의 능력이 희미해지고 연약해졌다."

◆복음의 야성 잃고 좋은 예배 한 편 관람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천 만을 자랑하던 한국교회가 6백만, 5백만도 안되게 쇠락했다. 4세기 초 로마 제국인구의 1/20 정도가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아들 콘



한길교회 다리놓는공동체 수련회 장면 ©교회 측 제공

사라졌다. 대부분 약한 교회들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인프라를 갖춘 대형 교회는 수평이동으로 성도들이 들어오고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들은 생존이 위중한 상황이다. 약한 교회들은 무너져 가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는 병들어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유튜브 콘텐츠를 정말 잘 만들고 화려한 외형과 보여지는 사역이 잘 이루어지면 교회가 뭔가 해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상은 수평이동 성도들이 옮겨가고, 성도들은 복음의 야성은 잃어버리고 관중석에서 좋은 예배 한 편 관람하고 돌아가는 성도들로 전락해 버리고 있다. 교회들이 드러내는 양상은 화려하나 복음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있다. 주디 한 기자

Samsung Financial Networks
삼성생명

5가지 서비스로  
튼튼하고 든든하고 탄탄하게

# 트든타

## 고객케어

**유용한 보험**  
보험료 할인부터  
플리자 예약까지  
편리한 보험 생활의 시작

**쉽고 빠른 청구**  
보험금 청구의 모든 것을  
쉽고 빠르게 해결

**특별한 케어**  
고객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와 자산관리

**빈틈없는 보장**  
꼭 필요한 보장을  
배제없이 점검

**솔솔한 혜택**  
건강과 생활까지  
챙기는 혜택

1588-3114

은행감독 22-1981(변동)등록번호, 2022.9.27~2023.9.26 | 삼성생명 홈페이지/모바일 앱 '트든타' 고객케어, 메뉴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후기 기독교 세계 속에서 자녀 양육하기



데이비드 로버트슨 목사  
호주 '제3공간' 대표

최근 바나그룹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의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원인은 문화에 대한 적대감이나 교육 시스템 또는 소셜미디어나 동료들의 영향이 아니었다. 가장 큰 원인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없다는 것과 교회가 부모들이 신앙을 전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옛 속담을 기독교 용어로 표현하면 "한

기독교인 아이를 키우려면 온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제대로 양식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영적으로 먹이지 않아서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은 관련된 성경적 명령의 일부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언 22:6) "아비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엢 6:4)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전하라"(신명기 6:6-7) 시편 78편 4절에서 여호와와 백성은 "우리가 여호와와 찬송할 일과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라"고 약속한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나? 문제를 분석하는 것과 이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분명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효과가 없다. 어쩌면 우리는 과거로부터 지혜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 싶다. **1. 진정한 영적 생활** 주님께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려면 우리 자신도 그것을 알아야 한다. 즉 부모는 자녀가 볼 수

있는 살아있고 사랑이 넘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2. 가정예배** 가족 예배의 실천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떤가? 각 기독교인의 가정을 작은 교회로 보고 기도, 성경 읽기, 찬양이 양치질, 아침 식사, 숙제와 마찬가지로 일상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것이다. **3. 교리문답** 또 다른 잊힌 실천은 교리문답이다. 저는 최근 현대적으로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진 소요리문답을 읽었는데, 정말 도움이 됐다. 매주 주일 그것을 보면 신학이 현대 생활에 얼마나 많이 적용되는지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어떻게 인류를 창조하셨는가?"를 들 수 있다. 교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교육하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한다. 주일 오전 30분 동안 성경 이야기를 색칠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오랫동안 사역했던 스코틀랜드 던디에서, 무슬림 어린이들이 매일 학교가 끝나면 집에 돌아간 후 모스크에서 두 시간 동안 가르친다는 말을 듣고 매우 마음이 힘들었다. **4. 교육** 존 녹스(John Knox)는 교회가 있는 곳에 학교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오늘날 실용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부 기독교 부모들이 점점 더 반기독교적으로 변하는 공립학교에 자녀를 보내도록 강요받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교육의 우선순위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5. 자원**

팟 캐스트, 설교, 레베카 맥롤린(Rebecca McLaughlin)의 '모든 10대가 기독교에 대해 물어봐야 할 10가지 질문(및 답변)'과 같은 책 등 청소년과 부모를 도울 수 있는 훌륭한 자료가 많이 있다. 나는 10대들에게 너무 많은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질문에 답하는 두 권의 책인 ASK와 SEEK를 출판했다. 세 번째가 무엇인지 추측해도 상관은 없다! **6. 기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이다. 바울 사도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장에서 우리에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깨어 있어 주의 모든 백성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라"(엢 6:18)로 권면한다.

## 성령행진

김진홍 목사  
두레수도원

《우리가 어찌할꼬?》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다른 사람처럼 변화되었습니다.

이미 그는 여중 앞에서 겁에 질려 떨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시민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부활》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마치 불을 뿜는 듯이 정열을 다하여 부르짖는 그의 설교를 들은 시민들이 마음에 질려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사도행전 2장 37절-38절)

예루살렘 시민들이 《우리가 어찌할꼬》하며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였을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4 가지를 일러 주었습니다. **1) 너희가 회개하라.**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3) 죄 사함을 받으라.** **4)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베드로의 이 말을 들은 시민들은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사도행전 2장 41절)

그렇게 부흥하게 된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신도 수가 많았을 때는 2만여 명에까지 이르렀다 합니다. 이 《복음 사건》은 예루살렘과 온 나라에 급속히 퍼져 나갔습니다. 그 결과로 위대한 《성령 공동체》가 탄생되었습니다. 레위기 25장에서 기록된 희년 공동체가 출현해 되었습니다. 레위기에서의 희년 공동체는 율법에 따라 이루어진 공동체였으나 사도행전 2장에서의 공동체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진 《성령 공동체》, 《대안 공동체(代案共同體)》였습니다.

## 믿음은 거울이요, 율법은 진단인 것입니다

김병규 목사  
시애틀 영광교회

려줄 뿐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율법만능주의는 아닙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면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율법으로 치료된다고 말하면 영타리입니다. 결국 자기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남의 치료의 길도 막는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믿음 아니기에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인 것입니다. 다음은 믿음과 믿음주의입니다. 믿음은 전인적입니다. 머리로 받아 드리고, 마음으로 믿어 입과 행동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정확한 지식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주의는 입으로만 믿는다 말합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적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자가 믿음주의자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믿는 대상이 확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목상하는 시간만큼 가치 있는 시간은 없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좋은 것을 안 주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나의 훈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목상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 되,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강력한 믿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진짜 같이 보이는 가짜 믿음주의와 율법주의를 접어던져야 합니다. 믿음은 항상 좋고 항상 옳고 항상 살리는 길이기에 무조건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

최윤식 목사  
울북교회

1971년에 한국신학대학(현 한신대학교) 전신에 입학했다. 1학기 개학을 하면서 기숙사 배정을 받았다. 방은 심지 뽑기로 정하는 게 원칙이었다. 심지 뽑아 정해진 방으로 갔다. 비가 스며들었는지 외벽에 습기가 있고 약간의 곰팡이도 서려 있었다. 약간의 퀴퀴한 냄새도 났다. 분위기가 맘에 들지 않았다. 언짢은 기분으로 잠시 방에 머물러 있는데 룸메이트가 들어온다.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야, 그냥 물러나면 어떡하나? 곰팡이 피고 냄새나는 방에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물러난 것 아냐. 내게 생각이 있으니 좀 기다려 봐!” 서너 시간이 지난 후 정식은 내더러 다시 사람에게 가져고 했다. 정식은 다시 내 손목을 잡아끌며 사람에게 찾아가다. 정식은 정중히 말했다. “사감님, 저희들이 원칙을 따라 심지 뽑힌 방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희들도 원칙을 따르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호흡기가 약해서 환경이 좋지 못하면 기침을 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저의 사정을 감안해서 방을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감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이내 방을 바꾸어 주었다. 기숙사 방에 돌아온 나는 정식에게 “너 실력 좋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네.” 정식이 말했다.

“원칙을 지키려 한다는 태도는 보여줘야 되잖아. 그리고 사감의 입장도 존중해 주는 태도가 필요하고. 세상 일은 생애만으로 안 되는 거야. 요령이 있어야지!” 나는 그 일을 통하여 삶의 지혜를 얻었다.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부 후퇴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상황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타당성 내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할 줄 알아야 하고, 상황에 따른 적절한 처세술도 지녀야 한다는 것을. 묵화하면서 실력은 뛰어난데 처세술이 부족해서 묵화에 어려움을 겪는 묵화자들 종종 보았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 기장 총회 제공

# 세상에 행복을 **가** 놓는다.

## World Top K-water

물로 더 행복한 세상!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민감동을 위해 거듭나겠습니다.

환경부 | Kwater 한국수자원공사

# 재난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장홍석 목사  
웨더렐웨이중앙장로교회



지난 9월 8일 밤 11시 11분, 모로코 아틀라스 산악지대 부근에서 강도 6.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120년만에 모로코 남서부를 강타한 이번 지진으로 현재 2,946명이 목숨을 잃었고, 6,67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진 발생 3일이 지나도록 구조 작업을 시작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진으로 무너진 지역이 대부분 점토 벽돌로 건물을 지은 탓에, 무너진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기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뷰를 하고 있던 한 젊은 여인이, 이웃의 품에 안겨 하염없이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혼자 6살짜리 아들을 키우며 힘겨운 삶을 살아가던 젊은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친정 부모님께 맡기고 일을 갔다 오는 사이 온 마을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얼마나 황망했을까요? 얼

마나 간절하게 그 무너진 건물 잔해 속을 헤매고 다녔을까요? 실낱 같은 희망을 붙잡고 흙더미를 헤치고 헤쳐왔지만 결국 아이와 부모님은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웃 리비아의 상황은 더욱 처참합니다. 지난 10일 리비아를 휩쓸고 간 열대성 폭풍 대니얼로 인해 현재까지 최소 6천 명의 사망자와 최대 2만 명의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외신은 사망자가 이미 만천 명이 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연 강우량이 20mm에 불과한 사막 지대에 400mm가 넘는 집중 호우가 내린 결과입니다. 특히 2개의 댐과 4개의 다리가 무너진 리비아 항구 도시 데르나와 홍수와 함께 도시 대부분이 물에 잠겼고, 지역 주민의 15% 가량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5살, 16살 아이들까지 거리의 시체들을 묻고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를 하던 한 남성이 울먹였습니다. 아직도 어리기 만한 아이들이 길가리에 널브러진 시체들을 수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염병을 우려한 지역 정부가 데르나 시를 사실 상 봉쇄하고 시체들을 아무렇게나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어머니요, 누구의 아들인지 밝혀지도 않고 백성들의 슬픈 마음 속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수 많은 백성들이 이미 죽었고, 또 죽어가고 있는데도 두 나라 정부는 이런 저런 정치적인 이유로 외국의 원조를 거부하며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하메드 6세 모로코 국왕은 지진이 일어나던 날 프랑스 파리의 호화 저택에 머물고 있었을 뿐 아니라 미국과 유엔, 그리고 프랑스의 원조를 거부한 일로 비난을 받고 있으며, 2011년 카다피 독재 정권을 축출했던 리비아는 오랜 내전으로 인해 수습은 커녕, 동서로 나누어진 채 사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매칠 전, 독일 구조대가 모로코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해 다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루에도 한두 번씩 발생하는 여진의 두려움 때문에 누군가는 필수적으로 그 땅을 탈출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지금도 그 땅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세상 임금들은 정치 놀음에 여념이 없지만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재난 만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심통

이민규 목사  
웨더렐웨이제일장로교회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날이 갈수록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특히 주일에는 2부 예배 통역을 위해 전체 원고를 쓰는 것이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원고를 쓰는 것이 부담일지라도 설교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한 글자씩 다듬을 수 있고, 저 스스로에게도 정리가 되어서 목회에 매우 유의합니다. 그럼에도 매 주일 원고를 적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설교 원고를 쓰려고 모니터 앞에 앉으면 어떨 때는 머리가 하얗습니다. 어떻게 써 내려가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본문에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마음을 울리는 그 한 말씀이 제 중심에 화

살처럼 박혀야 합니다. 거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데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그분의 속마음을 깨닫게 되면,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제 영혼의 곁가에 들리는 그 순간부터는 원고 쓰기가 쉬워집니다. 술술 써 내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영적 소통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만 쓰려고 하면 막막해집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속이 쓰립니다. 괜히 하나님께 심통(心痛)이 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마음에 통증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심통(心通)을 경험하면 그때부터는 매우 쉽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것, 즉 말씀을 통해 깊은 은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느낍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 깊은 마음의 통함, 마음의 교제가 있으면 얽힌 관계도 풀기가 쉬워지고, 설명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이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표현하지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심정이 내 영혼에 임하시고 계시나요? 내 이웃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생각이 아닌 마음의 소통이 있어야 하는데, 내 이웃과 마음을 잘 나누고 계신가요?

마음이 통하기 전에 실타래를 풀려면 아마도 제가 설교 준비에 난항을 겪는 것처럼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통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진실된 마음을 서로 나누면 우리 안에 답답한 심통(心痛)이 아닌 시원한 심통(心通)이 경험되어지리라 생각합니다.

## 社說

### 목회자의 은퇴, 빛 뒤에 어두운 그림자

지난달 6일 주일예배에서 은퇴를 선언한 청파교회 김기석 목사가 최근 모 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은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김목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계획"이라며 "어떤 일이 닥쳐와도 가볍게 받아들이 것"이라는 말로 40년 목회를 마무리하는 소회를 전했다.

한국교회는 상당수의 교단이 목회자의 정년을 법에 정하고 있다. 예장 합동과 통합, 기감 등은 목회자의 정년을 70세로 정한지 이미 30년이 넘었다. 그런데 당시의 신체나이 70세와 지금의 건강 나이 70세에 차이가 크다는 지적과 함께 매년 총회 때마다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현 의안이 올라오는 게 현실이다.

주요 교단들은 아직은 이런 목소리에 요지부동이다. 사회 통념에 맞지 않고 목회자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이유다. 그러나 은퇴 시기를 앞두고 교단을 이탈해 제약이 덜한 교단으로 옮기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언제까지 이 제도를 고수해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다.

목회자 '정년제'를 한국교회에 처음 시작한 교단들이 요즘에 와서 반대로 은퇴 시기를 늦추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력을 받는 때에 스스로 은퇴 시기를 앞당긴 목회자도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이름이 알려진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조기 은퇴 선언은 교계 일각에서 부는 정년 연장 분위기와 대비돼 눈길을 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는 정년을 5년 남기고 지난 4월에 조기 은퇴했다. 그는 "은퇴 후 여전히 할 일이 있겠지만 주 예수님과 하나 되고 친밀하게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에 더욱 힘쓰려 한다"고 은퇴 소감을 밝혔다. 교인들은 유 목사처럼 오랫동안 목회 일선에 섰던 담임 목회자의 은퇴를 서운해하면서도 다음 세대 목회자에게 목회를 넘긴 후 아나갈 '제2의 사역'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는 분위기다.

다만 이런 사례는 언론이 미담으로 보도할 정도로 한국교회 풍토에서 아직은 비교적 드문 케이스에 해당한다. 목회자의 은퇴문제로 갈등을 겪었거나 현재 겪고 있는 교회들이 여전히 많다는 뜻이다. 담임 목사의 은퇴와 은퇴 후 예우, 후임 목사 청빙 문제 등에서 적절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교회 내분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앞서 김기석 목사는 은퇴와 관련 "젊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았다. 나이가 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적다는 것을 알아채기 시작했고, 슬프지만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오히려 여유가 생겼다"라고 속 마음을 털어냈다.

그런데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가 아

니라 받아들이기 힘든 여건과 환경에 처한 목회자들도 많다. 특히 귀국한 은퇴선교사 중 상당수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불안정한 노후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은퇴는 이상이 아닌 냉혹한 현실이다.

한국선교연구원(KRIM)이 발표한 '2022 한국선교현황 통계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가 전 세계 169개국에 파송한 선교사 수는 2만2천여 명이다. 이들 중 선교 1세대들이 최근 은퇴 시기와 맞물려 한꺼번에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갖가지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귀국 선교사의 상당수가 고국에 돌아와 노후를 보낼 마땅한 주거지나 생활기반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평생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했지만, 은퇴 후 돌아온 고국에서 자신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단이나 후원회 준 교회 어느 곳도 노후 생활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현실이 이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전 세계 선교사들의 사정이 모두 우리와 같진 않다. 미국 교회는 대부분의 교단이 은퇴선교사에게 교단 연금, 퇴직금 등을 제공하며 든든한 노후 생활을 보장해주고 있다. 미 남침례회의 경우, '가이드 스톤'이라는 은퇴 계획 시스템에 의해 사역 기간 생활비를 받고 생활비와 별도로 은퇴 노후자금과 근무 연수에 따른 퇴직금도 지급한다. 15년 이상 활동한 선교사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까지 제공한다는 우리의 현실에선 꿈 같은 일이다.

은퇴선교사에 대한 대책 마련에 있어 한국교회는 아직 기초 수준이다. 예장 고신은 교단 세계선교회(KPM) 차원에서 은퇴선교사의 노후 정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기독교한국침례회도 19일 열린 총회에서 열악한 노후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은퇴 사역자(목사-선교사)들을 교단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은퇴사역자 주거안정사업 추진위원회를 신설해 관련 활동을 전개하기로 한 건데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어떤 목회자는 은퇴시 상당한 전별금을 받고 또 다른 사역의 길이 활짝 열린다. 이런 이들에게 은퇴는 빛나는 영예로 제2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평생 복음 사역에 매진하다 나이가 차다 하는 이유로 아무런 보장 없이 무작정 임지를 떠나야 하는 이들에게 이런 사례는 꿈같은 얘기일 뿐이다. 특히 해외에서 복음 사역을 펼치다 은퇴 연령이 돼 귀국한 선교사 상당수가 생활고에 시달리는 현실은 선교 한국을 기치로 삼고 달려온 한국 한국교회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다. 교단과 선교단체가 이들 선교사의 노후 걱정 없는 은퇴 대책을 서두를 때다.

## 기독교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채정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구독문의 02-6085-8166  
광고문의 02-6082-8165  
대표구좌  
농협 355-0018-9278-03 (주)기독교일보사

미주 기독교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교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기사 제보는

독자께서 기사화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02-739-8119 혹은 press@cdaily.co.kr 등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주신 내용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사화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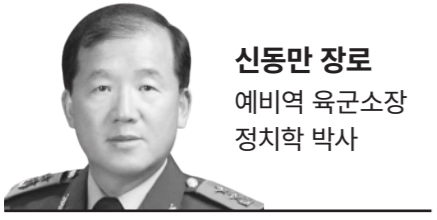
# 희망이 담긴 당신의 예금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해 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의 지급을 보장해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 한반도는 자유민주 복음통일국가로 거듭날 것: 새로운 도약, 인재 양성(4)



신동만 장로  
예비역 육군소장  
정치학 박사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의 지도자나 주변4대 강국의 지도자도 해결할 수 없다. 각국의 모든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어 충돌하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제 중의 난제다.

북조선은 특히 백두혈통이라는 악한 영과 어둠의 영이 따리를 들고 북한 주민을 지배하며 주민을 영원한 노예로 종속시키는 것이 김일성3대가 호의호식하는 길이기 때문에 주체사상과 핵 무력으로 남한을 종속시키는 것이 그들의 일관된 목표다.

북한의 남조선 혁명역량강화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화문화 전 분야

에 주사파와 종북주의자들이 기생하며 존재하는 이유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뱀은 거짓과 미혹의 영이다. 북한 노동당이 조직부와 선전-선동부를 강화하는 이유다. 이에 편승하여 21세기 대한민국에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운동권을 비롯한 공산주의의 더러운 망령과 아등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과 이를 통해 더러운 이(利)를 탐하는 자들이 득실득실하다. 대한민국의 국민과 교회가 남북의 자유민주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다. 성령께서 분별력을 주실 것이다.

핵무기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핵으로 대응하는 것이 상책이며 강 대 강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다. 무력은 무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기본이다. 더욱이 상대가 공산주의자이면 더욱 그렇다. 공산주의자는 교류와 협력의 대상이 아니다. 백번을 약속하면 중국에는 백번을 파기하며 백번을 속인다. 아들의

영, 악한 영, 거짓과 미혹의 영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악을 선으로 간주하는 자들이다. 우리의 상식으로 접근하면 백전백패(百戰百敗)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남북의 체제 경쟁은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끝났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함으로써 공산주의 체제인 북조선인민공화국은 이미 몰락한 것이다. 남쪽은 좋은 길을 선택했고, 북쪽은 나쁜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겨놓고 싸운 전쟁인 것이다.

해방 전 일본은 한반도 이북의 산악지역에 수공업품을 비롯한 군수공장 등 중화학 공장을 건설하여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을 대비해 왔다. 거리상으로 중국과 가깝고 폭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산악지역에 군수품 공장을 세웠다. 남쪽의 평야 지대와는 대비되는 조건이 된 것이다. 해방 후 한동안 북한의 경제

활동 여건이 좋았던 이유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해안으로 산업화의 기초를 다지고 박정희의 지도력은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하여 한강의 기적을 낳았으며 국민들의 민주화를 위한 열망과 투쟁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뤘다.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 것이다. 국민의 근면성과 도전정신과 창의성 덕분이다. 군대도 한 몫을 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장정들은 군대에 들어가 문맹을 깨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정신을 배웠기 때문이다. 21세기에 한민족을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

대한민국을 부흥시킨 산업화 세력은 21세기에 들어와 지구촌의 세계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매너리즘에 빠져 전근대적인 통치행위를 일삼은 박근혜의 탄핵과 함께 몰락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기가 막힌 것은 박근혜가 천안문 전승절에 참석한 사건이다. 박근혜는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이 6.25전쟁의 승리

를 자축하는 전승절에서 시진핑과 함께 사열을 받는 것이다. 소탐대실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에 큰 혼란을 가져온 사건이었다. 박근혜를 보좌했던 참모들도 책임이 크다.

박근혜의 탄핵 이후 집권한 김일성 주체사상을 옹호하고 추종하며 민주화로 위장한 운동권 세력도 문재인 정체가 탄로 남으로써 국민의 심판을 받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조국 사건을 계기로 이들의 위선과 무능과 부패와 오만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탄핵 이후 총선에서 승리한 일부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라. 오직 자기들 편만 살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는 눈앞에 탐욕에 눈이 멀어 가리거리 눈먼 이(利)를 쫓는 자들이 아닌가. 이들과 북조선의 김정은과 그 옹위세력과 무엇이 다른가?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바라보고 있다. 국민들이 우매한 탓이다. 저들의 쇼와 선전-선동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김일성3대세습 우상독재체제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조만간 멸망할 것이다. 악의 축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악은 타협하는 대상이 아니라 제거하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들의 영, 악한 영인 마귀는 대적하는 것이며 교류나 협력하는 대상이 아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이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마음을 성결케 하라”(약4:7-8)고 말씀하고 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 공산당의 세력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속히 약화되어 멸망의 길로 들어섰다. 오래지 않아 남북의 자유민주 복음 통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동북3성과 연계주 옛 땅도 회복될 것이다.

<다음에 계속>

## 복지부, 의료정보 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 가동

보건복지부는 개인 의료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본격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가동으로 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의료데이터를 본인의 동의하에 손쉽게 조회, 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과거의 진료·투약, 건강검진, 예방접종은 물론 진단검사·수술내역 등의 정보를 일일이 찾을 필요 없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국민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245개소 의료기관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며 안정성 및 효용성 등의 점검을 거쳤다.

이번 분가동에는 의료데이터 제공기관을 800개소로 늘리고 제공 데이터의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유한 예방접종이력, 건강검진·진료·투약이력에 한

해서 볼 수 있었지만, 이번 분가동으로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병리검사, 수술내역 등 12종 113개 항목의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이용한 일반 국민 96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91.7%가 다른 병원으로 이동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 84.5%가 평소 스스로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다, 89%가 가족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나의건강기록 앱’을 내려받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이미 앱을 사용 중인 경우는 업데이트 절차를 거쳐면 새로운 버전의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건강정보 고속도로 홈페이지에서 앱 이용방법과 소개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이 제공받은 의료데이터에 대한 조회·저장·공유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4년 건강정보 고속도로 관련 예산은 참여 의료기관 확산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 제공

122억 원이 반영됐다. 이는 2023년보다 25억 원 증액된 예산규모다. 복지부는 향후 우리나라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건강정보 고속도로 분가동은 정보의 주체인 국민이 자신의 의료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일상 속 건강관리, 웨어러블 모니터링 등 국민의 능동적인 건강생활 실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플랫폼이 되리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서다는 기자

## ‘야간학교 봉사’ 제천시 공무원 부녀 KT 희망나눔인상

충북 제천에서 야학 선생님이 봉사하는 공무원 부녀가 KT그룹 희망나눔재단의 희망나눔인상을 받았다.

재단은 1986년 문을 연 제천 정진야간학교 교사인 김창순(58, 김사진(29) 씨를 다섯 번째 희망나눔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천시 건설과 과장이기도 한 김창순 씨는 1992년부터 정진야학과 인연을 맺고 학생들에게 저녁에 중등 수학 과정을 가르치고 있다. 2014년 정진야학 교장으로 부임한 뒤에는 매일 사비로 교육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제천시 노인장애과 주무관 김서진 씨는 아버지 김창순 씨의 뒤를 이어 지난해 정진야학에 합류해 매주 금요일 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김창순 씨는 “못 배운 게 한이라던 어르신을 위해 야학 봉사를 한 지도 30년이 훌쩍 지났다”며 “야학 봉사가 내게 가장 큰 행복이자 힐링인 만큼, 한 명의 학생이라도 더 배움의 길을 걷도록 끝까지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서진 씨는 “일을 마친 후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어르신을 보면 없던 힘도



왼쪽부터 김창순, 김서진 씨 ©KT그룹 희망나눔재단

번쩍 생긴다”며 “아직 교사로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많은 분이 정진야학에서 많은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꾸준히 돕고 싶다”고 말했다.

정진야학은 제천시 지역 유일의 검정고시 야간학교다. 가정형편 등으로 학업을 놓친 늦깎이 만학도들이 중고등학교 과정을 배우고 있다. 지금까지 약 1800명의

졸업생과 860명의 검정고시 합격자가 나왔다.

한편 KT그룹 ‘희망나눔인상’은 지난 2021년부터 나눔으로 아름다운 사회 가치를 만드는 데 기여한 사람(단체)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나눔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 KT그룹 희망나눔재단이 제정한 상이다. 서다는 기자

## 조국을 위한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 파독근로자초청 시민추진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20 맨하탄21리빙빌 1121호  
연락처 : 070-7799-6335 사무총장 조근식  
후원계좌 : 농협 351-0889-0234-13(파독근로자복지재단)  
국민 여러분의 후원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일정 : 2023년 10월 2일(월)~7일(토)

## 독일 근로자 파견 60주년 기념

독일 거주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초청합니다.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조국을 재건하기 위해 외국의 차관이 절실했던 대한민국은 1963년부터 독일에 근로자(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을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파견 근로자들을 담보로 대한민국은 독일로부터 차관을 얻어 오게 됩니다.

그때 받아 온 차관은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포항제철을 건설하는데 마중물이 되었고, 오늘날 조국의 산업화를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독 광부, 간호사들은 1,000m 깊이 탄광의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을 참으며 석탄 채굴로 젊은 청춘을 희생하였고, 간호사들은 독일의 병원에서 온갖 힘든 일들을 도맡아 처리하면서 조국과 가족을 위하여 모진 고생을 감내하셨던 대한민국 산업화의 영웅들입니다.

이제 그분들은 팔순이 넘은 고령의 나이로 생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입니다. 독일에 살아남은 파독근로자 중에는 고국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면서 아직 고국의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어렵게 생활하시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있으며,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그분들을 초청하여 고국의 발전상을 보여드리고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분들을 초청하는 행사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호소합니다.

초청 행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원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파독근로자초청 시민추진위원회

고문  
강우영 구본철 김시영 김정서 이상훈 김호일 박동호 박현제 박희도 배인식  
백 일 성중경 송종완 송현순 신현상 정재호 이근호 유 현 윤 용 윤명원  
이규택 이병수 이병화 이창호 이현원 전용만 조금세 차오성 한선식

자문위원  
강군열 강석정 권영철 김근우 김일권 김일주 김태연 김형철 도태우 박성원  
박선길 박찬성 박진진 신성환 윤재용 이재민 이희철 임요한 임종우 조대한  
조원환 지대중 최경규 하형규 한규선 한요한

공동위원장  
강도용 강영근 경철수 김중대 김태진 류승남  
배은희 손병덕 송재영 신동훈 이동수 이두우  
이종민 이진호 지광선 최명진 황기식

추진위원  
가용성 권태성 권유정 김길수 김다해 김병규 김성진 김수현 김명길 김영달 김용진 김원하 김은진 김인희 김정남 김철호  
노요한 류두환 목돈균 민영생 박경만 박노아 박윤성 박종호 박철성 박평서 박학기 방현강 배재경 백태현 성현오 송용팔  
안성원 안종길 양국용 양유식 영동용 오기복 오미라 왕영근 우희삼 유관모 윤교근 윤상근 윤치환 이 훈 이규영 이서규  
이억주 이영학 이육희 이원중 이종석 이종현 이철호 이한승 장래인 정순일 정신의 정주문 전지현 정봉호 정우혁 정지영  
정창욱 조규연 조승일 조양진 진유신 최승원 최영오 최영호 최진희 최준식 최태수 표세철 하용근 한정운

## 부동산

### 서울 강서구 단독교회매매

-소재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연면적: 279.8(평)  
-건축규모: 지하 2층~ 지상 4층  
-매매가: 27억  
연락처 ☎ 010-4621-6428

### 경북 포항 교회 매매

-소재지: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진리  
-대지면적(건축면적): 총 212.35평  
-매매가: 3억 3천  
연락처 ☎ 010-6780-0467

###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교회매매

-소재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면적: 대지면적 460평  
-주차대수: 약 50대  
-매매가: 15억원 (융자 8억)  
연락처 ☎ 010-3672-0680

### 부천교회매매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부근  
-면적: 대 423㎡ / 건 364㎡  
-매매가: 22억  
연락처 ☎ 010-9924-7571

### 대구 개척교회 임대

-소재지: 대구 달서구 한실로6길130 청솔빌딩402호  
-면적: (약40평)엘리베이터 가동중  
-해당층수: 4층  
-임대료: 3000/월88만원(부가세포함)  
연락처 ☎ 010-7506-1009

### 성남 분당구 서현동 교회임대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면적: 330평  
-임대료: 30,000 / 1,800만원  
-시설: 주차장, 엘리베이터, 로비  
연락처 ☎ 010-3702-3251

### 서울 노원구 교회임대

-소재지: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건물면적: 146㎡(44평)  
-임대료: 2,500/ 90  
-시설비: 300만원  
연락처 ☎ 010-3899-1626

### 경기 수원시 교회임대

-소재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매물면적: 86평(5층 건물 중 지하)  
-임대료: 보증금1000만원/ 월세89만원 (부가세 및 관리비10만원 포함)  
연락처 ☎ 010-3283-4047

### 경남 양산시 찬양산 기도원 매매

-소재지: 경남 양산시 어곡동 1981번지(대지)외 2필  
-면적: 총 3필지 약 1만평.  
-매매가: 6억 (대출1억 별도)  
-주차: 30대 가능  
연락처 ☎ 010-6208-3698

### 부산교회매매

-소재지: 부산 기장군 정관 신도시 부근  
-면적: 대 208㎡ / 건 146㎡  
-매매가: 5억  
연락처 ☎ 010-6707-1374

### 양평교회매매

-소재지: 경기도 양평군  
-면적: 대 552.07㎡ / 건 191.74㎡  
-매매가: 3억 5천  
연락처 ☎ 010-9218-4375

### 인천시 교회임대

-소재지: 인천시 서구 검암동 부근  
-면적: 건 132㎡  
-임대가: 1000/88  
-시설비: 800만원  
연락처 ☎ 010-2510-0769

### 경남 창원시 교회매매

-소재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부근  
-면적: 건 215㎡  
-임대가: 3000/66(시설비 1500만원)  
연락처 ☎ 010-9363-1400

### 성남/판교 교회부지매매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판교대장 부근  
-면적: 1112㎡ (336평)  
-매매가: 66억  
연락처 ☎ 010-5423-0159

## 신문 광고

###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천영실(520607-2\*\*\*\*\*) 2019.5.30. 사망  
최후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시장로45번길 14 (경화동)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2023년단319 상속한정승인(부산가정법원)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2023. 6. 26.  
○ 청구인: 천영철  
○ 공고기간: 2023. 9. 21. ~ 2023. 11. 21.  
○ 신고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시장로45번길 14 (경화동)  
2023. 9. 21.

###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조연남(281105-2\*\*\*\*\*) 2019. 1. 8. 사망  
최후주소: 순천시 송광면 유경길 51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2023년단10186 상속한정승인(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2023. 6. 22.  
○ 청구인: 1.이강희 2.이강근  
○ 공고기간: 2023. 9. 21. ~ 2023. 11. 21.  
○ 신고처: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85, 7층 (신정동, 동진빌딩) 법무법인 강할 변호사 최희진  
2023. 9. 21.

###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이미영(570918-2\*\*\*\*\*) 2020.10.11. 사망  
최후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1길 7 (암사동)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2023년단177 상속한정승인(수원가정법원)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2023. 6. 20.  
○ 청구인: 이다연  
○ 공고기간: 2023. 9. 21. ~ 2023. 11. 21.  
○ 신고처: 경기도 시흥시 매화1로 61, 111동 501호 (매화동, 하이드파크)  
2023. 9. 21.

### 상속한정승인공고(심판결정)

망 김형민(650220-1\*\*\*\*\*) 2019.9.1. 사망  
최후주소: 서울 성북구 대사관로11가길 62 (성북동)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 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2022년단8518 상속한정승인(서울가정법원)  
2023년지1771 심판결정(서울가정법원)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2022. 2. 4.  
○ 한정승인결정(심판결정): 2023. 6. 7.  
○ 청구인: 1.김영규 2.김지현  
○ 공고기간: 2023. 9. 21. ~ 2023. 11. 21.  
○ 신고처: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 15층(서초동, 법조타워)  
2023. 9. 21.



## 하늘문을 여는 기도대성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행:5)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자!

신현영광교회 본당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담임목사 박만규  
T 010-3739-4512

## 화성시 교회 긴급매매

☐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소재

☐ 면적: 대지 100평/ 건물 250평 (지하1층~지상3층)

☐ 매매금액: 280.000 만원

☐ 용자금: 90.000만원

☐ 입주가능일: 매매 즉시 목회 가능

\*목회자 사택 즉시 입주가능

\*복지시설(요양원)동시운영 가능

▶ 연락처 ☎ 010-5779-2368

## 급 기도원, 연수원, 수양관 매

강원도 평창, 총 3500평

최고의 시설과 조건

사유지 막창 끝자락

계곡, 등산로 독점

전용 진입 도로 300m

도로에서 보이지 않음

수려한 산세와 시원한 조망

☎ 010-6659-2999

## 교회대출안내

2019-경기군포-007

능력 지혜로 목사님의 목회사역에 재정적인 큰 힘이 되도록 (은행근무 경력으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교회담보대출: 교회건물, 상가교회, 성전부지 교회대지 및 건축자금
- \* 교회: 연 4.5~6%대 (감정가의 70~80% 대출 가능)
- \* 지역 상관 없음 \* 성전 구입 자금
- \* 타 은행 담보도 가능함 \* 건축 중에도 가능
- \* 현재 대출금액의 30%를 더 받을 수 있음
- \* 교회 예배 관경 보지 않음 \* 교인수 상관 없음

목사님 ~ !!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사랑의성전짓기운동본부

선교국장 임요셉 목사

문의전화: 010-9166-5600, 010-8652-5600

TEL: 031-439-5555 FAX: 031-452-5800  
http://www.love-ch.net E-mail: moon4903012@hanmail.net

## 신간 그리스도인의 비전

리처드 미들턴 교수(자메이카 캐리비안 신학대학원 구약학)와 브라이언 왈쉬 교수(트리니티 칼리지)는 세속화된 사회가 변화될 수 있음을 말하며 사회에 절실한 생명과 인도와 희망을 기독교의 사회적 구현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이 책을 집필했다.

저자는 책 속에서 “우리는 자연을 숭배하는 모든 범신론적 관념을 거부하지만, 땅을 정복하려는 성경의 명령에 포함된 자애로운 보호와 보존이라는 매우 중대한 요소 또한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동산을 경작하며 또한 보존해야 한다. 우리의 문화 형성은 이기적이어서는 안 되고 창조세계에 대한 참된 돌봄과 더불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인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는 아

웨의 공극적 주권에 대한 순종적 응답으로서 우리의 통치권을 행사하도록 부름 받았다. 땅을 정복하는 것은 언약적 책임의 문제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마치 반죽 속에 넣은 누룩이 반죽 전체에 퍼지는 것과 같다고 설명하셨다(마 13:33; 눅 13:20-21). 하지만 이 비유의 요점은 하나님 나라가 서서히 성장해서 마침내 모든 것을 채울 것이라는 게 아니다. 예수님은 후천년주의자가 아니셨다. 예수님은 세상이 점점 나아지리라고 믿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 투쟁이고 전투임을 인정하셨다. 하지만 이 비유는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준다. 죄의 누룩이 모든 창조세계 속에 철저히 퍼져 있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누룩도 ‘저주가 발견되는 곳이면 어디든’ 퍼져 나갈 것이다. 또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당신의 가공할 개입에 의해

하나님 나라가 총만하게 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철저한 무신론자들의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 세속주의가 이 어지는 것은 아니다. 바나드 질스트라가 지적했듯이, 세속주의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부정과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세속적 세계관에서 신 존재가 반드시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세계가 어떠한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님이 말해야 할 메시지를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이렇듯 세속주의는, 세속(saeculum)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와 관계성에 회의적이다. ‘세속주의의 어원인 이 라틴어는 직역하면 ‘시대’라는 뜻으로 특히 시간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이해된 창조세계를 가리킨다. 또한 이 단어는 역사 영역, 즉 모든 일의 시간적 영역에서 하나님을 점점 배

제시킨다. 세속이 점점 절대화됨에 따라 현대 세계관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지위가 현저하게 점점 축소되었고, 그것에 비례해서 인간의 지위는 점점 확대되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저자는 “기독교 공동체를 기독교적으로 만드는 것은 예배다. 철저한 공동체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이 공동체가 주류 문화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 때문이다. 공동체의 예배는 공동체 전체의 생활 패턴을 형성한다.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공동의 정신 곧 세계관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는 공동체의 것으로 말이다. 결국 공동체의 예배는 그저 종교 의식 정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이것이 롬 12:1-2의 요점이다). 바로 여기에 몰락해 가는 사회 속 기독교의 문화적 증거의 본질이 있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 9월, 작가들의 말말말



남은 자들은 특징이 있다. 남은 자들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남은 자들은 아침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와 같다.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다. 나는 남은 자다!(I Am the Remnant!) 나를 향한 그 부르심을 수락하겠는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흔드는 제자 중의 제자! 지금은 택하신 남은 자들이 일어날 때다. 나는 남은 자다!(I Am the Remnant!) 지금은 남은 자가 사람들을 구조하고, 소생시켜야 한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세상에 풀어놓아야 할 때이다. 남은 자의 삶은 포기, 좌절의 삶이 아니다. 불신의 삶이 아니다. 불만의 삶이 아니다. 눈물의 삶이 아니다. 결코 부정의 삶이 아니다. 남은 자의 삶은 긍정적인 삶이다. 믿음의 선진처럼 인내하는 삶이다.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다. 승리의 삶이다. 감사의 삶이다. 섬김의 삶이다. 기쁨의 삶이다. 헌신의 삶이다. 영광의 삶이다. 영원한 기대하는 부활의 삶이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 신학’의 결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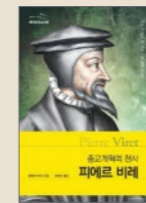
박영호 ‘남은 자 신학’



일반적으로 기독교의 핵심을 가장 정확하게 동시에 한 마디로 명료하게 전하려면 기독교의 3대 보물인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잘 설명해주면 된다. 이 이상의 요약적 이고도 핵심적인 요약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와 공저자는 기독교의 3대 보물만큼은 교회 학교 교육과 가정교육에서 반드시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린 아이 때부터 시작하는 성경과 교리를 근간으로 하는 교회학교의 ‘말씀 교육’과 책임있는 크리스천 부모로서 가정에서의 ‘말씀 교육’(자녀교육, 성경암송 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교육에 있어

특히 ‘개념화 작업(conceptualization)’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그러하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고백의 내용’에 대한 우리 개개인을 또한 그들과 동일한 신앙임을 드러내는 고백인 것이다. 그런 ‘사도신경’에는 기독교의 근본(beginning, foundation)과 본질(Essence)이 간단명료(簡單明瞭)하게 잘 요약되어 있다. 그렇기에 신조를 통하여는 이단과 사이비를 걸러낼 수 있으며 정통 신앙에서의 주류가 지향하는 바를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신조를 고백함으로써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Christian Identity)과 소속(하나님나라 소속, 하나님의 소유, 자녀)을 밝히는 것이 되기도 한다.

이선일, 이성진, 김성민 ‘기독교의 3대 보물’



진리의 등불이 다시 빛나게 불타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열릴 때 아담은 행안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물러가게 될 것이다. 빛의 귀환이다. 이 빛은 수천 개의 반짝이는 면으로 그 빛을 발할 것이다. 그 찬란한 광채는 모든 보석, 즉 주님이 친히 부르신 모든 일꾼을 통해 저마다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빛날 것이다. 루터, 츠빙글리, 파렐, 칼뱅, 녹스, 불링거, 베즈가 바로 그 일꾼들이다. 이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전투에 참여하도록 부르신 전사들이다. 위인? 부자? 아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 부서진 사람들일 뿐이다. 주

님에 붙들린 사람들이다. 세상을 뒤집어엎은 사람들이다. 이들이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다. 이들 중 한 명이 바로 잊힌, 알려지지 않은, 기억되지 않은 사람 피에르 비레이다. 그는 변변찮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떠돌이처럼 죽음을 맞기도 앓았으나 하나님에 의해 부서지고 붙들린 사람이었다. 부자도 아니었다. 그의 이름에는 왕족이니, 귀족이니 하는 신분을 드러내는 장식도 일절 없다. 명망 있는 가문도 아니다. 그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야망 없이 자신을 바친 한 사람일 뿐이다. 이 사람이 바로 16세기 위대한 종교개혁의 새벽에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 피에르 비레이다.

레베카 슈츠 ‘피에르 비레’

## 신간 크리스천은 돈 걱정하면 안 되나요?

‘크리스천은 돈 걱정하면 안 되나요?’ 신앙생활 하며 한 번쯤 들어 보았을 말이다. ‘돈 걱정=믿음 없음’이라는 공식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돈에 대한 기독교의 인식은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얼마든지 선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돈에 대한 바른 재관과 물질세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이 책의 저자들은 그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함께 고민을 풀어가자 모인 여덟 명의 이야기를 대화식으로 풀어낸 것이다. 목회자요 금융전문가인 멘토(Mentor)와 사회 각층에서 일하고 있는 일곱 명의 젊은 멘티(Mentee)들로 구성된 이 모임은, ‘돈, 어떻게 벌 것인가?’, ‘돈,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돈,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큰 주제 아래 몇 차례에 걸쳐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다.

저자는 책 속에서 “돈은 우리 삶의 필

수 불가결한 요소다. 창조주께서 우리를 물질세계에서 살게 하셨기 때문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마태복음 4:4)라는 말씀 속에는 ‘떡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 나아가 모름지기 사람이라면 단지 먹고 사는 문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고 했다.

이어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경은 돈에 관해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돈이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으면서 왜 동시에 돈에 관해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돈은 적극적으로 벌고 관리해야 할 대상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고 생각하고 뒤로 미루어 놓아야 하

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배우고,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 다루셨던 주제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천국’이며, 두 번째로 많은 것이 ‘돈’임을 알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또한 이 영적인 천국의 원리를 돈의 원리를 이용해서 설명한다는 것이 더더욱 놀라웠다”고 했다.

끝으로 저자는 “이 책은 크리스천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돈을 다루는 데 적용되는 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돈에 관해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가르치신 분이 예수님인데 돈에 관해서는 교회보다 세상이 더 많이 가르친다. 교회와 세상은 서로 많이 배우며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 “김기창 ‘예수의 생애’ 성화는 기독교 불후의 명작”

윤보 김기창 화백(1914-2001)의 예수의 생애 성화가 그려진 지 70년 만에 책으로 나왔다.

책 ‘예수의 생애 - 성화 해설집(쿠팡출판사)은 김 화백이 그린 예수의 일대기 30점 연작을 소장석 세에덴교회 담임목사가 성경 배경을 해설한 내용과 함께 엮은 책

이다. 2001년 작고한 김 화백은 1978년 ‘나’의 심혼을 바친 것 쓴 예수의 일대기에서 625전쟁 피난 시절인 1952-53년 자신과 친분이 두터웠던 미국 감리교 전선 선교사(1897-1956)의 거둔 제안으로 한국의 풍속화로 예수의 일생을 그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 기간 중 예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 일대기를 담은 그림 30점을 완성했다. 책에는 김 화백의 작품과 소 목사의 해설이 나란히 실렸고, 소 목사는 “김기창 예수의 생애 성화는 기독교 문화의 지경을 넓힌 불후의 명작”이라 했다. 이수지 기자



예수의 생애 - 성화 해설집 ©세에덴교회

**크리스천투데이**

**추천사**  
장로님께서 칠수를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갑 경교 (구세군 전주교회)

#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추천사**  
참된 이해 없이 맹진적으로 받아들이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준일 목사 (범어중앙교회)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읊어낸 책입니다. 박효준 목사 (양원내안교회)

# 매일묵상 주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함

시편 60:1 - 60:12

1 하나님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홀로  
 2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3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  
 4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기를 주시고  
 5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  
 6 하나님여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  
 7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  
 8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애돔에는 내  
 9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  
 10 하나님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11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12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13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14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15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16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17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18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19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20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치라 하셨도다

9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  
 10 하나님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11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12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13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14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15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16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17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18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19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20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단어설명]

척량 / 자로 잰  
 홀 / 왕권, 권위, 주권의 상징으로 왕이  
 손에 들었던 짧은 지팡이.

하나님의 분노(1-4)

본문은 국가적 문제를 불붙고 하나님  
 을 향해 부르짖는 민족적 기도 시의 모  
 습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애뎀인으로  
 부터 입은 깊은 상처의 배후에는, 분노하  
 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



습니다(1,2,3절). 다윗이 어떤 고통을 겪은  
 지, 어떤 패배를 하든지 간에 그것의 근  
 원적 원인이 하나님이었습니. 문제는  
 애뎀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입니  
 다.  
 1,2,3절이 모두 '주께서'라는 말로 시작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눈으로 자신

에게 닥쳐오는 사건들을 이해해야 하는  
 지를 교훈합니다. 징계도 분노도 그리고  
 회복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인식  
 이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자 탄식은 회망  
 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민족의 고난  
 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  
 게 된 자들이 다시 주님의 깃발 아래로

모이기 시작합니다(4절). 허약하고 흠어  
 졌던 군대가 진리의 깃발 아래에서 더 강  
 한 군대와 민족으로 거듭납니다. 나는 범  
 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에 나의 회복  
 과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약속(5-12)

다윗은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  
 다 소망하고 있는 것에 의해 더 감격해  
 하고 있습니다(6절). 그는 승리를 약속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6-8절). 다윗은 현재의 땅뿐 아니라 모  
 압과 애뎀 블레셋까지 소유하게 될 것이  
 며, 유다와 에브라임도 귀한 대접을 받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모압은 그의 목  
 욕통이 될 것이며 애뎀은 그의 신발장이  
 될 것입니다. 블레셋도 그의 종이 되어 두  
 려움으로 절규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에  
 게는 아직 함락되지 않은 몇몇의 견고한  
 성들이 있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11절).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기에 여전히  
 자신이 환난 중에 있음을 알지만(9절),  
 이 전쟁이 분명 자신의 승리로 끝날 것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12절). 우리의 대적  
 을 밟으실 분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라는 진리의 발견이 우리의 삶을 감격으  
 로 이끕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일이 가  
 장 바른 용기이며 승리의 완전임을 믿으  
 십시오. 생명의 삶 제공

날 새 새롭게 하소서

## ‘새댁’들의 상처 치유하고 위로하는 ‘엄마’ 권사님

용인 사랑마을교회  
 여전도회장 김경자 권사



김경자 권사

경기도 용인에 위치  
 한 사랑마을교회(담임  
 광영오 목사)의 여전도  
 회장 김경자 권사(65)  
 는 교회 젊은 새댁들에  
 게 ‘엄마’로 통한다.  
 김 권사의 휴대전화  
 에는 주일에 먼 곳에 가느라 교회에 나  
 오지 못한 딸 같은 성도가 “보고 싶다”고  
 하는 문자, “마미”라며 친근함과 애정을  
 전하는 문자가 여러 통 보란대 있었다.  
 문자를 보여주는 김 권사가 환한 미소  
 를 지었다. 딸자식 같은 젊은 새댁들에 대  
 한 애정이 유독 각별한 그것이다.  
 그는 “제 딸이 학교 때는 교회에서 살  
 다시피 했는데, 시집가다 세상으로 나  
 가 돌아오지 않는다”며 “그래서 젊은 아  
 녀들이 들어와 열심히 하면 무척 기쁜  
 것”이라고 사연을 털어냈다.

나의 사랑하는 책

## 주제성구 : 친구 동역자

- 고린도전서 15:33  
속지 말라 약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  
을 더럽히나니
- 고린도전서 5:11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  
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  
람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  
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사귀지  
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  
라 함이라
- 누가복음 7장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  
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  
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다 하니
- 마태복음 26장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  
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  
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  
는지라
- 베드로전서 3:8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  
음을 같이 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  
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 시편 122장 8절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  
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  
지이다
- 시편 15:2~3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  
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  
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  
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훼방치 아니하  
며
-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  
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나니
-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  
면 곧 나의 친구라
- 잠언 13:20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  
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 잠언 14장 20절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  
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 잠언 17장 17절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  
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뉘느니  
라
- 잠언 18:24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  
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  
밀하니라
- 잠언 18장 24절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  
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  
밀하니라
- 잠언 19:6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  
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  
라
- 잠언 19장 7절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  
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 잠언 19장 6절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  
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 잠언 19장 7절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  
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 잠언 20:19  
두루 다니며 함담하는 자는 남의 비  
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  
귀지 말지니라
- 잠언 22:24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  
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 잠언 27:6  
친구의 통쾌는 총성에서 말미암은 것  
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  
서 난 것아니라
- 잠언 27:9  
기쁨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  
게 하나니 친구의 총성된 권고와 이  
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 잠언 27장 10절  
네 친구와 네 아버의 친구를 버리  
지 말며 네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  
어가지 말지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  
제보다 나으니라
- 잠언 27장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  
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  
니라
- 잠언 27장 6절  
친구의 아픈 책망은 총적으로 말미  
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  
짓에서 난 것아니라
- 잠언 27장 9절  
기쁨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  
게 하나니 친구의 총성된 권고와 이  
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식물로 못고치는 질병은 약으로도 치유되기 어렵다**

**홍천마를 잘 알면 질병이 두렵지 않다**

**질병과 건강 때문에 아직도 고민하십니까?**

**홍천마 진액 골드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 극찬한 천마

■ 천마의 종류  
국내에 분포하는 천마는 크게 나누어 꽃대색이 적황색인 홍천마와 담황색인 청천마가 있다.

■ 천마의 효능과 신비  
천마는 미끈하게서 얼어지는 마옥(木玉)이라 하여 미비가 되는 증상을 다스린다 하여 하늘 천(天) 마옥의 매(菓)를 더하여 천마(天馬)라 불려 왔으며 예부터 정음초(正風草)라 불리기도 한다. 정음초란 이름 그대로 바르게 풍을 다스리는 풀이라는 뜻.

천마는 난초과이며 여러 해 식 물로서 자연에 따라 핀다 는 있지만 자연산은 5월~6월에 마치 꽃대같이 색이 올라와 작 고 흰 꽃을 피우는데 꽃을 피울 때면 그 천마는 이미 속이 비어 가고 있는 중이다. 천마는 5월~6월에 색을 올리고 7월이면 그 색이 시들고 말라버리기 때문에 자연산 천마는 1개월 정도만 색을 볼 수 있기에 채취 기간이 짧아 색이 막 올라오는 시기가 최적이 채취기간이다.

이때 채취하지 않으면 여러 해가 걸려서 채취를 하는 것이 통상적 이나 농가에서는 색이 없어 발전하지 않으므로 천문 일초종 들은 그 장소를 는 어 거 바 무앗다가 매달 씨를 뿌려 놓았다가 지만 애를 보고 채취했다.

천마의 색에는 이미 물이 나지 않고 꽃대처럼 올라와 작고 흰 꽃을 피우며 그 색도 푸른빛의 색과 분홍색의 홍천마가 있다. 뿌리가 성장했을 시에는 마치 고무마처럼 생겼으며 기로로 일정한 간격의 줄무늬를 나타낸다.

천마는 천마라 명칭해서, 줄기는 적진(赤筋) 또는 정음초(正風草)라 부른다.

천마는 천마 뿌리에 버섯처럼 균근에 의해 자라는 반 기생 식물이다.

천마 는 뇌 질환 계통의 질병에 최고의 신약이며 특약 으로 잘 알려져 있다.

고혈압, 당뇨, 시중독, 디스크, 백혈병과 각종 암, 발기부전 등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영 문에 기술된 내용을 살펴보자.

(동의보감)  
모든 해(毒)와 어지러운 증상에 천마가 아니면 치료하기 어 렷다.(非天麻不)  
천마는 두통과 고혈압, 어지럼증에 특효약이라 할 만하다. 어지럼증은 한의학에서 '현훈'이라고 부르는데 대부분 간과 신장의 기운이 손상되어 간의 열이 위로 오르고 몸 안에 열과 양이 서로 충돌하거나 풍 속의 수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여 생 기다. 몸이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우며 구토가 나고 귀에서 소리가 나며 실감이 약해진다. 이럴 때에 천마를 사용한다. 천마는 간의 열을 내리고 바람과 습기를 없애며 마음을 진 정시킨다.

**홍천마 17주년**

**고객감사이벤트**

이벤트 기간 : 2023. 8. 10(목) ~ 9. 27(수)까지

기존가격(₩198,000)에 제품은  
기존(1+1+1=3박스) + 이벤트 선물 추가 1박스  
총 4박스(240포)를 보내드립니다.

“질병이 치유되고 건강이 유지됨이  
하나님의 복인줄로 믿습니다.”

**홍천마진액골드는 특산물 3년산으로만  
추출제조하여 제품이 아주 탁월하다.**

**1SET 가격으로 3SET 드립니다!**

1SET + 1SET + 1SET = 3SET  
80m 60팩      80m 60팩      80m 60팩      80m 120팩

198,000 + 198,000 + 198,000 = 594,000

공급가격 = ₩198,000 (부가세 별도)

**우울마진 확 줄여  
소비자에게 돌려드리는 직거래마케팅**

우울증, 어지럼증, 만성두통, 귀속의 잡소리 등  
이것 저것 다해봐도 아무소용 없으신 분께 혈액순환에 탁월한  
홍천마를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www.hhma.co.kr  
부산 연제구 거제동602-7  
TEL:051)853-2678

080-080-2678

안녕하세요!

홍천마를 생산하는 라파식품이 하나님  
의 은혜로 17주년을 맞이 하였습니다.  
모두 고객님들의 기도와 성원덕분입니  
다. 라파식품은 부산 본사의 제조생산  
공장을 신설 확장하고, 오직 국내 3년산  
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저온 40시간 주  
출제조 공법으로 신제품 '홍천마진액골  
드'를 제조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종전  
제품보다 몇 배나 일한 품질의 '홍천마  
진액골드'를 기존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그동안 홍천마(진액골드)를 복용하신 교역자님, 장로님, 성도  
님, 수많은 고객님들께서 질병이 치유되고 건강이 회복되어  
새로운 삶을 사신다는 체험사례 소식을 접할 때마다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용하고 목사님,장로님,성도님,홍천마를 통하여 더욱 건강을 거  
시고 후시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으시다면 "홍천마"를 복용해  
보십시오.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시고 기쁘고 즐거운 체험을  
하십시오. 사람은 혈액순환만 잘되면 무병장수한답니다.  
식품으로써는 홍천마가 순환기에 최고의 건강식품 인니다.  
이는 질병이든 믿고시고 복용해 보십시오. 놀라운 체험과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한글 동의보감편에 보시면 특히 각종  
암 · 중풍 · 고혈압 · 당뇨 · 만성두통 · 우울증 · 순환기질환에  
홍천마가 탁월하다고 극찬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라파식품은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  
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시민교회(합동)  
이현호 시무장로

국민은행 116601-04-077942  
예금주 : 이주영

## 강지윤 칼럼 ‘남자여, 상처 없는 척 하지 말라’

존 엘드리지는 그의 책 '마음의 회복'에서 이렇게 말했다. "모든 남자가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나는 상처가 없는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 당신 생각에 당신이 지금까지 아무리 즐거운 삶을 살았더라도 상처 입은 사람들로 가득한 상처 입은 세상에서 살고 있을 뿐이다. 당신 부모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완벽할 수는 없다. 어머니는 이브의 딸이고, 아버지는 아담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강지윤 박사

나는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자의 마음 깊은 곳에 스며있는 상처와 그로 인한 왜곡된 인식의 틀을 다 알지는 못한다. 그러나 내 주위에 있는 많은 남자들, 아버지, 형제들, 남편, 아들, 교회의 많은 남자들, 남성 목회자들을 통해 남자를 조금은 알거나 이해하고 있다. 특히 상처 입은 사실을 밝히며 상담하러 오는 남성들을 통해 그들의 내면을 조금이나마 들여다보게 되었다.

부부상담을 받는 경우에도 대부분 남편들을 따로 상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럴 때 나는 남자들이 얼마나 상처를 쉽게 받는지, 또한 그 상처를 인정하기 싫어하는지를 보면서 놀라곤 한다. 상담을 의뢰하는 쪽은 거의 대부분 아내들, 어머니들, 여자들이다. 여자들은 자신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상대라는 것을 확인하면 곧바로 마음을 연다. 그리고 그들의 슬픔이나 아픔이나 상처를 쏟아내어 놓는다.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남자들은 그렇지 않다. 가장 문제는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들은 약하고 자취있지만 강한 척 포장한다. 서툰 성급함으로 내면을 감추거나, 목소리 톤을 높이거나 지나치게 낮추면서 자신을 둘러싼 문제들이 다른 곳에서부터 원인이 되었다는 핑계거리를 늘어놓지만 결국 그것은 자신의 내면에 감추어지고 숨겨진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오래도록 방치되어 있었던 결과로서 현재의 문제들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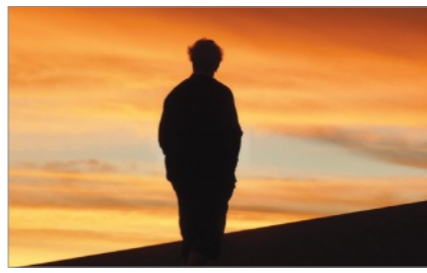
존 엘드리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열아홉 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나 나를 극적으로 구원해 주셨지만 그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모든 상처가 반드시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내 가슴의

상처는 그대로 남아 치유되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다."

남자들은 자신의 허허로운 마음의 빈자리와 상처를 들여보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며 일에 매달리거나,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는 외톨이가 되거나,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어 주위의 사람을 위협하기도 한다. 존 엘드리지가 고백했듯이 자신의 상처 때문에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게 된 것이다. 그 상처가 만들어낸 거짓 자아가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무기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남자들은 특히 자신의 상처가 만들어낸 왜곡된 자아상에 유교적인 가부장적 의식이 덧붙여져서 가족이나 약자를 힘들게 한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겉으로 성공을 거둔 남성 목회자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수많은 연약한 소자들이 상처를 받게 되니 말이다.

나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혹은 직접 대면함으로써 이러한 내용의 상담을 수없이 한다. "목사님에게 심한 상처를 받았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지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큰소리로 영영 운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들이 목회자에게 가는 기대와 신뢰가



크면 클수록 상처는 심하게 남는다. 목회자라는 권위로, 아버지라는 권위로, 상사라는 권위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상처 줄 수 있는 권리가 조금도 없다. 주님은 "소자를 실족케 하는 사람은 밭돌을 매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셨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자신의 상처를 그대로 걸친 채 어려서부터 권위의 가면 아래 수 없는 소자들을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남편들, 아버지들, 목회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권력자들, 그 모든 남자들에게 어머니 같은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부탁하고 싶다. 제발 자신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치유를 받으라고. 그리하여 타인의 작고 부서지기 쉬운 마음을 돌봐 주라고. 나는 남자를 성도하는 것이 아니다. 남자는 여자들 자신의 상

처를 반드시 치유 받아야 한다. 그래야 이 땅에 더 이상 상처받는 아이들과 상처받는 어른들이 나오지 않을 테니까.

존 엘드리지의 책을 읽어보라. 그는 '상처받은 남자는 대체로 두 가지 현상을 보인다. 하나는 미친 듯이 행동하며 그 상처의 약점을 메우려는 현상(폭력적인 남자)이고, 다른 하나는 위축되어 점점 소극적이 되어가는 현상(수동적인 남자)이다. 어떤 두 가지 특징이 이상하게 뒤섞인 경우도 많다'고 한다.

최근에도 한 사람이 이메일을 보냈다. "목사님의 칼럼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제 아내와의 불화 때문에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제 아내는 저와 사는 것이 지겹고 무섭다고 합니다. (...) 저는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서 가족을 부양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데, 물론 제가 좀 무뎠을 수는 있지만 제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기의 문제를 드러내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다. 이미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아무 상처가 없는 척, 용감한 척, 훌륭한 인간인 척 가장하는 위선을 접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가식을 벗어버리고 어린아이가 되어 서는 훈련을 해야 한다. 그 은밀한 상처와 아픔을 치

유하시며 진정한 남자로, 태초에 지음 받은 순수하고 사랑이 많은 아담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나는 내 주위에서 수많은 훌륭한 남성들도 만나고 있다. 그분들은 자신의 약점과 상처를 치유 받고 회복되고 극복한 남성들이다. 그분들을 만나면 부적절한 권위의식을 느낄 수 없다. 폭군적인 이미지나 위협도 전혀 느낄 수 없다. 오히려 편안함과 아버지 같은 따스함이 느껴진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대부분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상처와 왜곡된 자아 이미지를 용감하게 치유 받고 몸부림치며 회복의 길을 걸어 왔는지를 알게 된다. 그분들이 너무나 존경스럽다.

그러나 아직도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거짓 자아와 각양의 폭력으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남자가 많다. 그래서 상처받고 두려움에 떠는 아내들과 여들과 아이들이 많은 것이다. 제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치유를 받아야 한다. 적어도 존 엘드리지가 말하는 남자의 회복에 주목해 보자. 그러면 자신의 모습이 보일 것이다.

강지윤 박사(심리상담학 박사, 한국상담심리치료센터 대표)

## 신앙의 아름다움(2): 살아있음(생명)의 '아름다움'

### 권혁승 박사의

#### 날마다 말씀따라 새롭게(30)



권혁승 박사

"여호와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창 2:7)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요 10:10)

본질적 '아름다움'은 과연 무엇이며 그 판단의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미에 대한 판단 기준은 장소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중세기 미술

작품 속에서 표현된 여인의 '아름다움'은 현대인들이 느끼는 미적 감각과는 차이가 있으며, 동양인과 서양인들의 이상적 여인상 역시 동일할 수는 없다. 시공간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는 '아름다움'이 아닌 보다 더 본질적인 '아름다움', 곧 창조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토브'(좋았더라)의 '아름다움'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살아있는 생명이 지닌 '아름다움'이다. 아무리 고운 자태의 미인이더라도 호흡이 끊기면 사뭇한 시체가 되어 누구도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는다. 모든 피조물은 살아있을 때 아름다운 것이지, 생명이 끊기면 오히려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기괴 대상이 된다. 물 속에 사는 물고기가 합쳐져 물살을 가르며 헤엄치는 모습은 아름답지만 죽고 나면 곧바로 부패하여 썩은 냄새가 난다.

'살아있음'은 단순히 숨을 쉰로 유지되는 생물학적 목숨만이 아니다. 보다 근원적인 생명은 영적 거듭남으로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령 곧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창 2:7). 여기서 '생령'은 히브리어로 '네페쉬' 하얀데, 살아있는 목숨,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생기가 빠진 목숨은 비록 살아 숨을 쉰다 하여도 제대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참 생명을 회복하는 길은 우리의 죄 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죽으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도 말미암아 거듭남의 참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

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아름다움'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작은 반사체들이다.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증거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생명의 본질인 성장이며, 다른 하나는 사랑의 향기이다.

'살아있음'의 명백한 증거는 성장이다. 살아 있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성장하도록 되어 있다. 성장이 없는 것은 곧 생명의 부재를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었다(요 10:10), 더 풍성한 생명의 경험, 그것은 성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생명의 본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넓어지는 결사립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립이다. 그러므로 생명의 성장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다. 날마다 성장하는 생명은 그 자체가 즐거움이며

행복이다. 성장과 함께 삶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영향력과 보람도 더불어 증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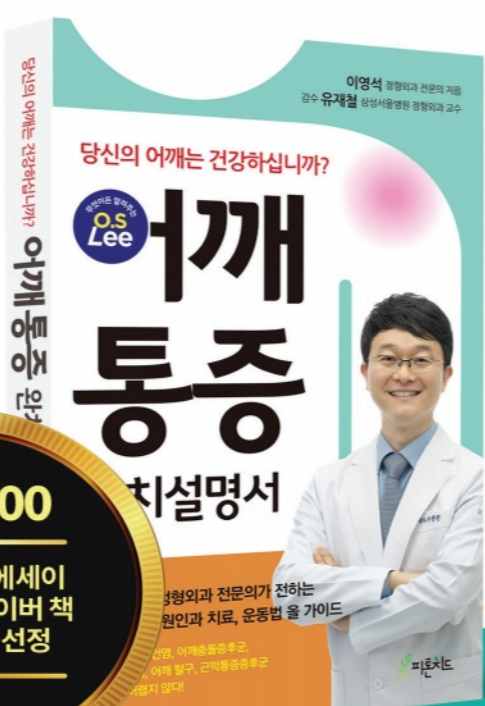
'살아있음'의 또 다른 증거는 사랑의 향기이다. 살아있는 것은 생명의 향기롭고 상큼한 냄새를 풍기고 있다. 그러나 죽으면 부패로 인하여 악취를 뿜어낸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생명으로 부터 생명이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였다(고후 3:15-16). 그것은 생명의 부재를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었다(요 10:10), 더 풍성한 생명의 경험, 그것은 성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생명의 본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넓어지는 결사립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립이다. 그러므로 생명의 성장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다. 날마다 성장하는 생명은 그 자체가 즐거움이며

다. 1만 달란트 빛을 탐감받은 종이 백 데나리온 빛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함으로 주인인 왕의 분노를 사게 되었다는 비유는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 용서해야 한다는 예수님 말씀에 대한 설명이다(마 18:21-35). 달란트는 금이나 은을 측정하는 가장 큰 무게 단위로 대략 33kg 정도이다. 1만 달란트는 330톤의 금이나 은에 해당되는 천문학적 액수의 돈이다. 그에 비하여 은전 명칭인 데나리온은 대략 장정의 하루 품값 정도이다. 백 데나리온은 4개월 봉급에 해당되는 액수의 돈이다. 주인이신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우리가 용서할 분량은 너무도 작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베풀지 못하는 것은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기적이 구원을 영속시키는 비결'이라는 말이 생긴 것도 그 때문이다.

권혁승 박사(전 서울신대 구약학 교수)

#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누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 올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 천로역정 비바람 너머 별들은 빛나고 있으니

## ‘찬 듯하면서도 못다 찬 삶’

헨리 나웬은 현대인의 삶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찬 듯하면서도 못다 찬 삶..’

굳이 유명한 영성가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많은 이들의 삶이, 무언가로 바빠 달려가고 꼭 찬 듯이 보이지만 실상 그 삶의 이면에는 까닭 모를 갑증과 황폐함으로 허거져 있는 것이다.

이 삶에 대한 갑증, 허기짐..

아마 인간이라면 가질 수밖에 없는 숙명과 같은 삶의 조건 때문에 사람들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만나고 사랑하고 위로받고 싶은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인간이라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고 위안 받을 수 있는 인간관계를 갈망한다. 아마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욕구의 하나가 바로 자기 자신만큼이나 소중한 사람을 찾아서 자신의 몸, 생각, 열망, 희망, 두려움 등 모든 것을 열어 보여주고 그의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일 것이다. 이러한 심오한 관계를 맺는 능력이 가장 찬란하게 꽃피우는 것이 바로 부부관계이다. 정상적인 남녀가 압축한 서약을 통해서 한 가정은 이루는 결혼은, 자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사람과 한 몸, 한 마음 그리고 한 영혼이 되고 싶다는 깊은 욕구

가 반영된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 결혼을 하는 이상, 바로 결혼이 안고 있는 연약함이, 함정이 여기에 있다. 결코 가 닿을 수 없는 것을 열망하는 것처럼 결혼은 이처럼 바라는 것이 크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가 성취되지 못할 때 좌절감도 그만큼 깊다. 관계가 밀접하면 밀접할수록 스트레스와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에 속속들이 열어 보여준 자아는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신뢰와 상호 의존에 대한 기대가 흔들리거나 무너지게 되면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보다 상처를 받게 되고 부부는 위기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위기에 빠진 부부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이혼이다. 한때는 부스스한 그의 머리칼이 순수해 보여서 그것마저도 좋았는데 이제는 자신에게 닿는 손길도 싫다. 목소리도 듣기 싫다. 그 사람의 꼴을 보지 않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며 행복한 길이라도 되는 듯 이혼을 생각해보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결혼이 가나인 생의 과정이라는 것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린다.

몇 년 전 결혼식의 주례를 서 준 신부가 나를 찾아와서 자신은 더 이상 남편과 살 수 없다고 하소연을 해왔다. 남편에게 손찌검을 당했다는 것이다. 그녀가 풀어놓은 이야기에는 그들 부부는 결혼 후 3년 동안은 무척이나 행복했다고 한



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남편의 태도와 열정이 시들해지더니 말다툼이 잦아졌다. 며칠 전에도 심하게 말다툼을 했는데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 지경인데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사랑이 식어버린 결혼은 아무 의미도 없으며 지옥과 다를 바 없다”고 성토했다는 것이다.

그녀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지 내가 조용히 말했다.

“그렇지요. 사랑이 식어버린 결혼생활은 무의미한 것이지요. 또 식은 감정으로 서로를 질시하는 결혼생활은 지옥의 괴로움에 비견할만하지요. 그 같은 결혼생활은 서로를 파괴하기 때문에 지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말에 여인은 놀라는 듯했다. 목사가 선뜻 ‘이혼’에 동의해주는 것이 생소했거나, 왠지 한 소린데 정말 이대로 결혼생활을 끝내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일말의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의도는 다른 데에 있었다. 그녀에게 사랑과 결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고 싶었다.

“당신은 남편과 참사랑을 아직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당신들의 이 시기는 대부분의 부부들이 참사랑이라는 목적지를 향해가는 여정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겪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이 진정한 사랑, 참 만남에 도달하기까지는 수많은 고

비와 있습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사랑은 여러 고비와 어려움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 과정 중 첫 고비를 만나 힘들어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와 함께 고린도 13장의 4-7절을 읽었다. 바울은 참사랑이 무엇이고, 참 만남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사랑이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바울은 만남에는 반드시 어려운 고비가 오는데 이 고비를 참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참사랑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오래 참는다.’가 영어로 ‘long suffering’(오래 아파하는 것)이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며, 또한 그것은 속절없는 아픔을 동반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바울이 말하는 참사랑은 참 만남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은 사랑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긴 여정을 떠나는 여행객과 같다. 두 사람은 어느 지점에서 정지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사랑을 향해 끊임없이 움직여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때로는 산꼭대기를 오르기도 하고 가파른 낭떠러지를 만나기도 하며, 때로는 망망한 바다와 세찬 물줄기를 건너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여정을 무사히 마쳐야만

진정한 사랑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 뜨거워지면 상대의 약점은 보이지 않게 된다. 이렇게 사랑이 불붙는 시기를 ‘애정기’라고 한다. 서양 사람들은 ‘하네스’, 즉 꿀맛 같은 시기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깨가 쏟아지는 시기’라고 표현한다.

이런 젊은 시절의 꿈결 같은 시간들이 백발노인이 되어서도 지속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만 애석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정기에 사랑의 깨를 다 쏟아 버리고 만다. 시골에서 깨를 털어 본 사람은 이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배어 낸 깻단을 가을볕에 잘 말려서 막대기로 툭 툭 털어내면 깨가 한꺼번에 다 쏟아져 나온다. 인간의 사랑도 이와 같다. 물불 가리지 못하던 애정기가 지나면 서서히 배우자의 실망스런 모습이 드러나고, 저런 사람과 한평생 살을 맞대고 살아갈 일이 아득할 때... 이때가 결혼생활의 권태기다.

많은 사람들이 한참 깨가 쏟아지는 애정기에 그 사랑의 깨가 일생 동안 쏟아질 것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잘못된 운명은 권태기라는 과정을 결코 지나치지 않고, 사람들은 위기 앞에 결혼을 포기해 버리는 길을 택한다. 그러나 이때의 위기는 결코 우리를 괴롭게만 하는 것이 아니다. 부부의 위기는 자기 성찰과 성장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위기의 극복을 위해 적응을 하는 동안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릴 수 있다.

애정기의 마냥 좋게만 보이던 모습, 밀상스럽게만 보이던 권태기 시절의 모습이 부부에게는 큰 그릇에 용해되어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배우자의 참모습은 권태기에서 쏟아지는 여러 번의 소나기가 지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알 수 있다. 깊은 어둠 뒤에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듯 상대방의 새로운 모습을 새로운 감동으로 맞이할 수 있다. 이것이 참사랑의 모습이다. 그런데도 많은 부부들은 이런 참사랑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결혼생활을 지루하게 지속하거나 파멸적으로 끝내고 만다. 이유는 권태기에서 상대방에게 실망을 느끼고 대화를 포기해버린 데에 있다. 사랑은 감정에서 출발하지만 감정만으로는 완전해지지 않는다. 행복한 결혼생활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지루하고도 힘든 여정이다. 수심, 수백 번의 소나기를 지나고 세찬 파도를 넘은 자만이 가 닿을 수 있는 천국인 것이다.

두 사람의 사랑이 피로와 권태로 시들어버린 꽃처럼 말라비틀어져 떨어질 때... 이때 그 꽃의 화려한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 대신 우리는 그때부터 진정한 사랑을 시작해야 한다. 그렇기에 사랑은 쉽게 고칠 수 없는 병을 인내와 노력으로 최후까지 투병해나가는 가나인 자기 절제와 인내가 필요한 언어이다. 그 과정에서 이전 아프지 않았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이전 건강했을 때는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안목이 열려진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익어가며 우리의 사랑은 깊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 삶의 신비가 있기에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다.

하나의 깨어진 꿈은 모든 꿈의 마지막이 아니다.

하나의 부서진 희망은 모든 희망의 마지막이 아니다.

폭풍우와 비바람 저 너머로 별들은 빛나고 있으니 그대의 성곽이 무너져 내릴 자라도 그래도 다시 성곽 짓기를 계속하라

수많은 꿈들이 재난에 무너져 내리며 고통과 상한 마음이 세월의 물결 속에서 그대를 넘어뜨릴 자라도 그래도 믿음에 매어 달라라.

그리고 그대의 흐르는 눈물 속에서 새로운 교훈을 배우기를 힘쓰라

베리타스 (정태기 목사 / 크리스찬치유상담연구원 원장)

## 성경상식

## 제이

[J]

### 알파벳 하나에 담긴 의미

쇼킹한 뉴스가 있다. 그리스어에도, 히브리어에도 ‘J’라는 문자는 없으며 그런 발음도 없다!

영역 성서를 보면 예수(Jesus), 유대인(Jew), 엘리야(Elijah), 예루살렘(Jerusalem) 등 J가 매우 많이 나오지만, 그 발음은 영어의 J가 아니라 Y에 해당한다.

그리스어에서는 ‘이오타’라는 문자로 모음 I와 자음 Y를 모두 나타낸다. 그리스어 성서에서 예수의 이름은 ‘Iesous’로, 발음은 ‘예수(Yesus)’다. 히브리어에서는 ‘요드’라는 자음으로 Y

음을 낸다. 그러므로 영역본 구약성서의 이름들에 들어간 J는 히브리어 원본의 요드다. 예를 들어 엘리야는 Elijah로 표기하고 Eliyah로 읽는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수백 년 전의 영어에는 I와 J의 구분이 없었다. 두 문자 모두 모음 앞에 위치하면 Y로 발음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음 앞에는 I를 쓰지 않고 J만 쓰게 되었다.

수백 년이 지나자 그 발음은 Y음에서, 현대 영어의 점프(jump)나 제트(jet)와 같은 J음으로 바뀌었다. 독일어, 게일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덴마크어, 스웨덴어 등에서는 여전히 J를 발음한다. 들녘 출판사 제공



한국도로공사 안전동화 시리즈 | 해와 달 편

# 위급한 순간의 생명을 안전띠

안전띠 미착용 시 사망률은 4배 이상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띠,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 “예배란 무엇인가요?”

## 기초 예배자가 알아야 할 7가지 중요한 점 (4)

예배의 정의는 무엇인가?



가진수 교수

예배는 과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예배를 통해 기억하고 재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공생애, 죽으심과 부활, 재림입니다. 우리 예배에는 이와 같은 복음의 내러티브(케리그마)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에 따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숭배하고, 높이고, 경모하고, 찬미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예배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덕성을 찬양하는데 전적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존귀와 존전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우리의 행위에 담아 드리는 예식”입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며,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신 자기 계사에 대한 반응으로, 그분의 뜻에 따라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복종과 경의를 표하는 인간의 경건한 행동을 수반합니다.

또한 예배는 과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현재 주일예배와 같은 공예배를 통해 내일이라는 미래의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3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으며, 예배 예식과 역사, 현재의 예배, 그리고 삶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3가지 개념을 가집니다. 예배 예식, 삶의 예배, 찬양과 음악입니다.

예배의 성격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 ◆ 사하(Shachah)

성경은 예배의 의미를 뜻하는 몇 가지 단어를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사하”이며 “절하다”, “엎드린다”, “내려놓다”, “복종하다”의 의미로 모두 172회 사용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된 곳은 창세기 18:2이며 아브라함이 세 명의 방문객을 경배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 ◆ 아바드(Abad)

‘아바드’는 구약 성경에서 다양한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 뜻은 ‘섬기다’(창 14:4; 출 9:1; 출 21:6), ‘봉사하다’(창 29:25, 민 18:2, 사 19:21, 렘 44:3), ‘일하다’(창 30:26, 출 5:18), ‘사기다’(출 1:41), ‘갈다’(삼하 9:10, 렘 27:11), ‘경배하다’(사 19:21), ‘처리하다’(민 41:0), ‘행하다’(창 20:9, 사 28:21), ‘수고하다’(사 14:3, 겔 29:18) 등입니다.

### ◆ 레이트르기아(Leiturgia)

‘레이트르기아’는 ‘사역, 직무’(눅 1:23, 히 8:6), ‘섬김’(히 9:21)의 의미로 기본적으로 ‘백성을 위해 일하다’,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아바드’가 헬라어로 번역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단어는 지금의 공무원과도 같은 국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용어로 자주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이 성경 안에서도 ‘섬김’의 의미를 담아 사용되었습니다.

### ◆ 프로스쿠네오(Proskuneo)

‘프로스쿠네오’는 대체로 ‘예배’ ‘예배하다’(요 4:20, 24)를 가리키는 말로 가장 흔히 사용됩니다. 이 말은 ‘~를 향해, ~ 앞으로’를 뜻하는 ‘프로스’와 ‘입맞추다’를 뜻하는 ‘쿠네오’의 합성어로서, ‘친밀하게

사귀다’, ‘연합하다’의 의미입니다. 존경의 표시로 손에 입을 맞추는 것을 의미하며, 상대방의 발에 엎드려 입을 맞춰 존경심을 표시하는 것을 뜻합니다.

### ◆ 세보마이(sebomai)

‘세보마이’는 ‘경배하다’(마 15:9, 막 7:7), ‘경외하다’(행 18:13)라는 의미의 헬라어입니다. ‘세보마이’는 기본적으로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존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히브리어의 ‘아레와’ 성격이 같습니다. 성경 안에서 ‘세보마이’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나 태도와 연관되어 있는데, 이것이 경배, 즉 예배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보마이’에서 파생된 단어 중 하나가 ‘경건’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유세보마이’입니다. 여기서 ‘유’는 ‘잘(well)’이란 의미이고 ‘세보마이’는 위에서 언급했던 ‘존경’과 ‘경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의미가 합쳐져 ‘경건’이라는 의미가 만들어진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고 존경하는 것이 경건에 이르는 삶을 알 수 있습니다.

### ◆ 라트레이아(Latreia)

‘라트레이아’(latreuo)의 여성 명사형 단어인 ‘라트레이아’(Latreia, λατρεία)는 공적인 예배를 드러거나 레위인의 직무와 같

은 종교적인 사역을 집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예배 예식의 의미에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주로 성전의 제사장들이 주관하는 예배를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라트레이아’는 주로 내적인 의미인 ‘사하’와 달리 외적인 의미인 섬기고 봉사하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주일예배는 무엇인가요?

주일예배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기쁨의 행위입니다. 주일예배는 부르심과 말씀, 응답과 파송의 네 가지 중요한 기둥과 같은 순서로 각각 찬양과 경배, 성경 봉독과 설교, 결단과 봉헌, 축복과 파송으로 구분됩니다.

예배의 순서는 이사야 61-8의 ‘이사야의 환상’을 통해서 그 본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거룩 거룩 거룩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로 응답하며, ‘나를 보내소서’라고 제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일예배의 형식과 흐름은 마치 “반가운 친구의 식사 초대”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반가운 친구를 초대하면 만나서 인사하고 차 한잔

을 마시고, 준비된 식사를 하며, 식사 후 깊은 담소를 나누고,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하고 헤어지는 것입니다.

주일예배는 공예배(Corporate Worship)라고 일컫습니다. ‘공예배’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입니다. 수요일예배나 금요일예배, 또는 추도예배, 생일예배 등의 여러 예배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큰 범주에서는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지만, 공예배 이외의 예배들은 큰 주제에 따라 드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요일예배와 금요일예배는 기도회의 성격을 가지며, 추도예배, 생일예배, 개업예배 등은 목적이 각각 다릅니다.

반면에 공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예배드리는 것이며, 예배자로서 의무이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에 따라 드리는 매우 객관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예배는 사람의 목적이 아니며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예배이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 찬양인도자의 부르심 III: 찬양인도자의 자질



채웅성 교수

찬양인도자로 사역하기 위해 우리가 개발해야 할 자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에 나타나는 예배, 찬양인도자의 모습을 통해 살펴볼 것 같습니다.

### 1. 예배자(Worshipper): 요 4:23-24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인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배자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인도자는 그 자신이 그분에 대한 진정성과 이해를 통해 예배드리는 예배자이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으로, 그리고 그분을 더 알아가기 위해 애쓰십시오. 여러분이 인도하는 찬양은 여러분의 경

험 이상으로 깊어지거나 확대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그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더 예배자가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 2. 인도자(Leader): 출 14:15-1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찬양인도자는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모세처럼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며 한겨웠던 때로는 그 노예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했던 회중들을 진정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한 언약의 땅에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인도자이어야 합니다.

주변을 살펴보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회중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기 위해 여러분은 그들을 무엇으로 어떻게 안내할 수 있을지 고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찬양에 집중하기 위해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내는 인도자이기 때문입니다.

### 3. 반주자(accompanist): 대하 5:13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

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 때에 여호와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성전에 언약궤를 모실 때에는 목소리와 함께 나팔과 제금, 모든 악기의 반주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반주자도 찬양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듯 찬양인도자도 반주자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찬양인도자는 자신이 인도자임과 동시에 반주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찬양

인도는 솔로로 자신만 혼자 부르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이끄는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인도자는 반주자와 같이 섬김의 마음으로 회중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 4. 중보자(intercessor): 고후5:18-19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양인도자는 인도하면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뿐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나아온 회중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중보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진실하고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하는 자리에서 그들을 기도로 품고 나아가야 합니다.

### 5. 예언자(prophet): 대하 29:30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은 찬양을 인도하는 아삽을 선견자(예언자)로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찬양인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음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예언자이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의 영적 흐름을 읽고 그 흐름에 따라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분별하여 나아가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예배자, 인도자, 반주자, 중보자, 예언자로서의 찬양인도자의 자질이 날마다 개발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기대합니다. 살람!

# 나랑 가까워서 좋고 나를 잘 알아서 좋은 우리동네 좋은 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e음” 앱에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를 확인하세요

# 성경적 투자와 재정 관리 강의하는 신흥재정학교, 9기 모집 중

자본시장·투자·분배정의·재무회계·증권 등 다양한 주제

성경적 투자와 재정관리를 강의하는 신흥재정학교의 재정학교 9기가 모집 중이다.



신흥재정학교의 대표강사 스티브 현 백. ©SNS

신흥재정학교(대표 스티브 현 백)가 주최하는 이번 재정학교는 10월 2째 주를 시작으로 초, 중, 고 과정이 각각 4주간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가 개최되는 장소는 서울(강동, 종로), 대전, 온라인(서울, 대전 지역 참가자는 신청 불가) 등이다.

구체적 장소와 강사로는 강동 캠퍼스 압다해 강사, 종로 캠퍼스 김신애 강사, 대전 캠퍼스 박기범 강사가 각각 세미나를 진행한다.

신흥재정학교의 모토는 'We Free'

로 '자유케하는 열쇠'이다. 이들은 이들의 모토에 대해 영어 모토의 앞 글자를 따서 다음으로 설명했다. Wisdom(지혜): 재정을 섬기지 않고 다스리는 지혜, Enlighten(깨우침): 단순히 머리에 머무는 지식을 넘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감, Freedom(자유): 자본주의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누리는 자유권과 공의에 따른 경제정의와 분배정의에 대한 고찰, Experties(전문성): 논리적, 수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투자 지식 습득, Excellence(탁월함): 세상도 부러워하나 세상이 가질 수 없는 탁월함 등이 있다.

커리큘럼으로는 초급과정의 내용은 △자본주의와 그리스도인 △금리와 시장 이자, 그리스도인의 채무 △산용과 부채 △다스리기 △기업과 성경적 경제/분배 정의 등이 있다.

중급과정의 내용은 △시간가치와 복

리, 재정과 염려 △기업과 재무회계, 하나님의 정확세밀함 △주식과 재무분석, 건강하고 바른 투자 △증권의 이해,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등이 있다.

고급과정으로는 △자본시장의 이해, 포트폴리오와 공동체 △시뮬레이션&포트폴리오, 실습 체험 △파생상품과 금융시장, 탐욕과 헛된 △ 성경적 공동체와 재정 등이 있다.

신흥재정학교 측은 세미나의 특징에 대해 '성경을 기반으로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다스리는 배울 것', '돈에 대해 무지하거나 무모하지 않은 태도를 배울 것', '자본주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법을 배울 것', '금융과 자본시장을 이해하고 건전하게 투자하는 법을 배울 것' 등을 주장했다.

신흥재정학교의 대표강사 스티브 현 백은, 블루텍자산운용(주)의 대표이사이며, N15 기업평가 위원으로 있다. 그는 모건 스탠리의 시니어 PM과, 딜로이트 컨설팅의 컨설턴트를 역임한 바 있다.

이산진 기자

# '십대지기' 인천지부, 청소년 사역 위한 '사역자 학교' 연다

청소년 사역단체 '십대지기'(대표 박현동 목사)의 인천지부가 제 8회 '십대지기 학교'를 개최한다. 이번 학교는 10월 16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주간 매주 월요일 저녁 인천에 위치한 원웨이 은혜교회 송도캠퍼스에서 개최한다.

프로그램으로는 △1주차: 청소년 이해와 사역 '청소년 사역의 기초 세우기'(이 기영 목사: 인천십대지기 대표, 주안평강교회 협동 목사) △2주차: 다음세대 세계관 교육 '세계관으로 다음세대 세우기'(유

경상 교수: CTC 기독교세계관 교육센터 대표, 벤쿠버세계관대학원 초빙교수) △3주차: 다음세대 미디어 교육 '미디어 교육 어떻게 할까'(이수인 교수: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다음세대 성교육 '성경적으로 성교육하기'(최경와 소장: 다음세대교육연구소) △5주차: 다음세대와 가정 '가정과 함께 세우는 다음세대'(신승범 교수: 서울신학대학교) △6주차: 연간교회 협동 목사) △7주차: 다음세대 세계관 교육 '세계관으로 다음세대 세우기'(유



차: '다음세대를 섬기는 영성'(조영민 목사: 나눔교회) 등이 있다. 이산진 기자

# '부흥을 기다리는 청년들' 9월 예배 열린다

'부흥을 기다리는 청년들'(이하 부기청)이 '마가의다라방교회(담임 임진혁 목사)에서 23일 청년예배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부기청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기에 우리는 많이 벅하고 어렵다. 학교, 직장, 내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그리스

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혹은 기도회, 수련회에서 수많은 다짐을 했지만 또 다시 죄에 넘어지는 내 모습에 괴로워하다 '이제는 포기하고 회개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며 "만약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손잡고 예배하길 원한다.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막힌 것들이 뚫리고 새롭게

결단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자. 아버지를 뜨겁게 따르는 청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일어날 것이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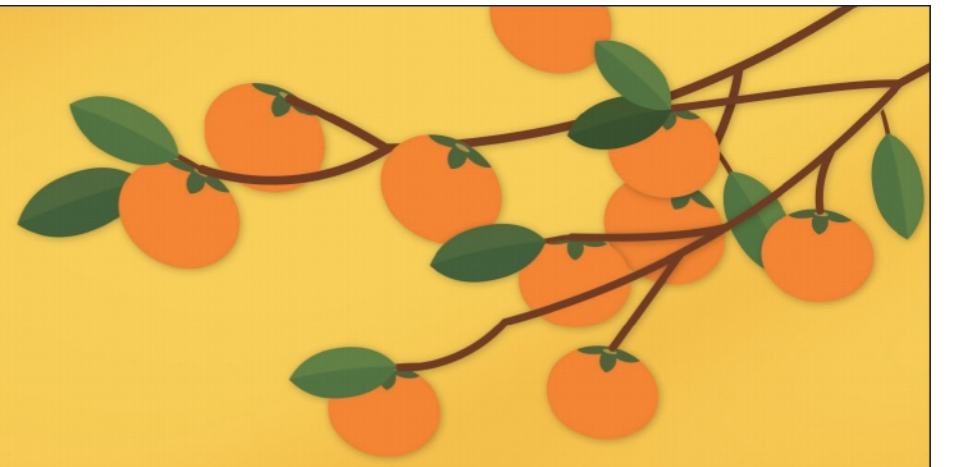
이번 예배의 찬양은 피아워십이 섬기며, 강사로는 온누리교회 이사진 목사가 말씀을 전한다. 이산진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간       | CTS 기독교TV  | Good TV  | CGN TV  | CBS TV  | Cchannel   |
|----------|--|--|---|---|--|
| 5:00     | 20 힐링스토리<br>30 새벽을 말씀과 함께-고명진 목사(수원중앙교회)                           | 40 힐링스토리<br>50 생명양식 -데일리루터-  | 00 생명의 삶<br>20 [말씀] 유관재 목사(성광교회)                                      | 00 TV 설교/강남성결교회 정인교 목사<br>30 TV 설교/서울은혜교회 김태규 목사                                      | 40 김병삼 목사의 매일만나 365 (주님은 나의 최고봉)                             |
| 6:00     |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장영일 목사(이지훈 목사(대구변교회))<br>30 생명의 말씀-김형준 목사(동안교회)      | 00 365 새벽기도 생방송 2부<br>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br>40 GOODTV 오늘의 기도<br>50 GOODTV 뉴스 | 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br>40 [말씀] 주승중 목사(주안장로교회)                              | 00 TV 설교/(생명의 양식)서산성결교회 김형배 목사<br>30 주안찬<br>50 오늘 만나는 QT                              | 00 생방송 명성교회 새벽기도회<br>4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
| 7:00     | 00 CTS 뉴스<br>20 생명의 말씀-권오규 목사(계산제일교회)<br>50 생명의 말씀-김원태 목사(수지기쁨의교회) | 10 힐링스토리<br>20 말씀의 생터 수원순복음교회 이요한 목사<br>50 비전설교 대한교회 윤영민 목사                  | 2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 1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br>30 TV 설교/한소광교회(류영모 목사)  | 40 배진기 목사의 생수의 강<br>50 노변담화                                  |
| 오전 8:00  | 20 CTS 두란노 성경교실 인바이블   | 20 세상을 깨우는 말씀 훈민복음<br>50 리브미션  |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br>20 [말씀] 한기재 목사(중앙성결교회)                           | 20 CBS성서학당:고린도전서 13강 - 김홍규 목사 "독신이나? 결혼이나?" (본문 - 고린도전서 7:25-40)                      | 00 복음강단 - 에베르교회 김학필 목사<br>30 말씀의 창 - 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이경은 목사      |
| 9:00     | 10 아주 특별한 찬양   | 20 마크스워십<br>50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미니디큐  | 00 [말씀] 최원준 목사(안양제일교회)<br>40 김숙경 소정의 부부의 발견                           | 10 새롭게 하소서  | 00 THE 깊이 금강한 신앙, 몰랐던 이야기<br>40 다시보는 성지가 좋다                  |
| 10:00    | 10 백세인생<br>40 7000마라톤-스페셜  | 00 말씀의 생터 아델포이교회 임동현 목사<br>30 말씀의 생터 크리스탈순복음 정정자 목사                          | 20 [말씀] 윤만선 목사(은혜샘물교회)  | 00 잘 믿고 잘 사는 법<br>20 목사님 궁금해요<br>40 CBS 뉴스  | 00 힐링토크 회복<br>50 김윤희 목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
| 11:00    | 30 힐링스토리<br>40 [생방송] CTS 뉴스  | 00 명사들의 명강<br>30 말씀의 생터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                                       | 00 구역의 세계로 (오십소)<br>40 저스트 텐 미닛 (예수전도단)<br>50 15분 기독교 역사              | 00 율포원  | 00 소문난 성경교실<br>3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br>50 성지가 좋다 - 국내편              |
| 12:00    | 20 신앙에세이<br>30 생명의 말씀-김중원 목사(경산중앙교회)                               | 00 GOODTV 뉴스<br>20 힐링스토리<br>30 말씀의 생터 전주바울교회 신현모 목사                          | 10 바이블 프로젝트 (구약)<br>20 [말씀] 마크 최 목사(뉴저지온누리교회)                         | 00 TV 설교/오병이교회 권영구 목사<br>30 TV 설교/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 20 복음강단 - 신촌성결교회 박노훈 목사<br>50 THE 깊이 금강한 신앙, 몰랐던 이야기         |
| 13:00    | 00 생명의 말씀-김성곤 목사(풍성한교회)<br>30 백세인생                                 | 00 말씀의 생터 예심교회 김기남 목사<br>30 세상을 보는 창 오색오감                                    |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br>20 [말씀] 양준길 목사(필그림선교회)                       | 20 다니엘 기도회  | 30 만나 워십   |
| 14:00    | 00 [생방송] 콜링갯<br>50 인생을 바꾸는 7분-예수가 길이다                              | 00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br>30 문방구  |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br>20 2023 마리아행전 (광야의 힘)                            | 00 TV 설교/(말씀의 힘) 우면동교회 정준경 목사<br>30 새롭게 하소서   | 30 성지가 좋다  |
| 오후 15:00 | 00 7000마라톤-스페셜<br>50 신앙에세이   | 00 생방송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곰   | 00 [말씀] 최경국 목사(포감사신교회)<br>40 생명의 삶                                    | 20 영혼의 양식/송암교회 김경근 목사<br>30 TV 설교/빛나는교회 서학복 목사  | 00 힐링토크 회복 플러스<br>50 정서영의 포토에세이                              |
| 16:00    | 00 CTS이학교<br>30 생명의 말씀-이정인 원로목사/박노훈 목사(신촌성결교회)                     | 00 말씀의 생터 소성교회 강복걸 목사<br>30 말씀의 생터 대구동신교회 문대원 목사                             |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br>20 카일 아이들만의 예수님의 관점<br>50 [말씀] 김형익 목사(벤살롬교회) | 00 CBS성서학당:출애굽기 26강 - 김기석 목사 "공동체를 위협하는 행위들" (본문 - 출 21:12-36)<br>50 CBS비전특강/CBS 비전특강 | 00 이석 목사의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서<br>50 김윤희 목사의 성경에센스                   |
| 17:00    | 00 생명의 말씀-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br>50 빛으로 소금으로                             | 00 말씀의 생터 한신교회 강영규 목사<br>30 김대성 목사와 함께하는 기도순례대행전 부흥회                         | 30 [말씀] 최병락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  | 40 CBS 교회소식<br>5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 00 말씀의 창 - 한빛교회 김진오 목사<br>30 말씀의 창 - 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전태식 목사      |
| 18:00    | 00 생명의 말씀-김대성 목사(소명중앙교회)<br>30 신앙에세이<br>40 장경동 목사의 잘 살아보세          | 00 비전설교 시냇가푸른나무교회 신물백 목사<br>25 말씀의 생터 한중사랑교회 서영희 목사<br>50 더 메시지              | 10 CGNTV 맞춤형 강 (나침반) 시즌2<br>50 [말씀]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 10 더 콜링 : 부르심소의 소명<br>30 TV 설교/산위외마을교회 김영준 목사   | 20 김윤희 목사의 성경에센스 구약<br>30 말씀의 창 - 엘드림교회 임병재 목사               |
| 19:00    | 30 다니엘 기도회   | 00 이영호 목사의 성령님과 함께   | 30 나침반 바이블 - 김남준 목사   | 20 이 땅을 사랑한 예수의 증인들<br>30 TV 설교/(말씀의 힘)두란노교회 이상문 목사                                   | 00 말씀의 창 - 인천제일교회 노원석 목사<br>30 스페셜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
| 20:00    | 20 리바이츠 헤리티지<br>30 생명의 말씀-장찬영 목사(강남중앙교회)                           | 00 명사들의 명강<br>30 여주봉 목사의 회복과 부흥으로 가는 길                                       | 00 바이블 프로젝트 (구약)<br>20 잊위의 사제<br>4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 00 성지가족<br>40 잘 믿고 잘 사는 법   | 10 비전메시지 - 기쁨의교회 박진석 목사<br>40 복음강단 - 새은혜교회 황형택 목사            |
| 21:00    | 00 CTS 두란노 성경교실 인바이블<br>50 글로벌 신앙에세이                               | 00 세상을 깨우는 말씀 훈민복음<br>30 백세대학교 장충현 총장 칼럼<br>40 힐링스토리<br>50 GOODTV 뉴스         | 00 갈보리교회 주일예배   | 00 CBS성서학당:고린도전서 13강 - 김홍규 목사 "독신이나? 결혼이나?" (본문 - 고린도전서 7:25-40)<br>50 CBS 뉴스         | 10 다시보는 성지가 좋다<br>30 삶의 씨앗이 되는 소리 Cseed(씨드)<br>50 CBS 뉴스     |
| 22:00    | 00 CTS 뉴스<br>40 백세인생   | 10 아버지 나의 아버지  | 10 저스트 텐 미닛 (예수전도단)<br>20 크만추   | 1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   | 00 CBN 크리스천 월드뉴스<br>20 소문난 성경교실<br>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
| 저녁 23:00 | 10 교회행진  | 10 GOODTV 특별간중   | 00 RT, 캔딜의 말씀과 성령<br>30 생명의 삶<br>50 바이블 프로젝트 (구약)                     | 10 잘 믿고 잘 사는 법<br>20 오늘 만나는 QT<br>4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                                  | 00 THE 깊이 금강한 신앙, 몰랐던 이야기<br>40 리바이츠 워십<br>50 정서영의 포토에세이     |
| 24:00    | 00 콜링갯<br>50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 00 예배실황 광림교회 김정서 목사  |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br>20 떠나보면 알게되는 (여행의 이유)                            | 00 CBS 아카데미 숲<br>50 성경골짜기   |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
| 1:00     | 00 하나님의 숨결<br>20 #클럽CCM 시즌2<br>30 CTS 두란노성경교실 인바이블                 | 00 일대일 양육모임<br>30 스카트브래너 목사의 예수님의 생애   | 00 [말씀] 김문성 목사(영락교회)<br>40 [말씀] 도지원 목사(예수비전교회)                        | 00 다니엘 기도회<br>40 TV 설교/말씀의 능력 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전태식 목사                                      | 00 새에덴강단   |
| 2:00     | 20 리바이츠 헤리티지   | 00 명설교 충신교회 박중순 목사<br>30 명사들의 명강   | 20 [말씀] 김정우 목사(동산교회)  | 30 TV 설교/본교회 조영진 목사   | 00 말씀의 창 - 퀸즈장로교회 김성국 목사<br>40 김병삼 목사의 매일만나 365 (주님은 나의 최고봉) |
| 3:00     | 00 7000마라톤 - 스페셜<br>30 찰스 스탠리 목사의 주님의 손길                           | 00 GOODTV 다크스페셜  | 00 [Global Sermon] John Piper's The Bible<br>30 [말씀]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 00 율포원  | 00 만나 워십   |
| 4:00     |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박중순 목사<br>20 오늘의 양식<br>30 아주 특별한 찬양                  |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br>30 새벽을 깨우는 말씀 영안장로교회 양병희 목사<br>55 365 새벽기도 생방송 1부           | 10 [말씀] 황성은 목사(창동영광교회)  | 00 CBS성서학당:갈릴리 산책 16강 - 조성욱 목사 "네 믿음대로 될지이다"<br>50 CBS 교회소식                           | 00 다시보는 성지가 좋다<br>20 성지가 좋다<br>50 힐링토크 회복                    |



오리지널 두유 - 베지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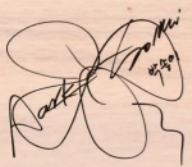
秋夕

베지밀 선물세트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우리집 요리담당  
맛있는 간단요리사!

간단요리사 전속모델  
박솔미



선물세트 판매처

